교육학석사 학위논문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관용어 교육 방안 연구

박 병 [illegible]

이 논문을 [illegible] 제출함

2005년 8월

부경대학교 교육대학원

국어교육전공

김 부 경

김부경의 교육학석사 학위논문을 인준함

2005년 6월 일

주 심 문학박사 조 미 정 (인)

위 원 문학박사 채 영 희 (인)

위 원 문학박사 박 영 준 (인)

< 차 례 >

Ⅰ. 서론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 1
2. 연구 내용 및 방법 ····· 2
3. 선행 연구 ····· 3

Ⅱ. 관용어 교육의 이론적 고찰

1. 관용어의 개념 ····· 8
2. 관용어의 범주 ····· 12
   1) 관용어의 형태 ····· 13
   2) 관용어와 경계에 있는 타 범주와의 구별 ····· 13
3. 관용성의 정도에 따른 유형 분류 ····· 20

Ⅲ. 현행 한국어 교재에서의 관용어 교육 분석

1. 관용어 교육의 기본 방향 ····· 24
2. 관용어 목록 ····· 29
3. 관용어 학습 방법 ····· 42
4. 관용어 확인 학습 ····· 60

Ⅳ. 관용어 교육의 방안 및 실제

1. 관용어 교육의 기본 방향 ····· 73
2. 관용어 교육의 방안 ····· 74
   1) 관용어 목록 ····· 74
   2) 관용어 학습 방법 ····· 82
   3) 관용어 확인 학습 ····· 94
3. 관용어 교육의 실제 ····· 103

Ⅴ. 결론 ····· 109

※ 참고문헌 ····· 113

< 표 차 례 >

<표 1> '관용어 교육' 관련 선행 연구 검토 ····· 4
<표 2> 관용어 관련 문화교육에 대한 선행 연구 검토 ····· 6
<표 3> 관용어와 경계에 있는 타 범주와의 구별 ····· 20
<표 4> 관용성의 정도에 따른 관용어 분류 ····· 22
<표 5> 현행 한국어 교재에서의 관용어 교육에 대한 기본 방향 ····· 28
<표 6> 고려대학교 『한국어』 관용어 목록 ····· 30
<표 7> 고려대학교 『한국어 회화』 관용어 목록 ····· 32
<표 8> 서울대학교 『한국어』 관용어 목록 ····· 33
<표 9> 선문대학교 『한국어』 관용어 목록 ····· 34
<표 10> 연세대학교 『한국어』 관용어 목록 ····· 36
<표 11> 이화여자대학교 『말이 트이는 한국어 - Student Book』 관용어 목록 ····· 39
<표 12> 이화여자대학교 『말이 트이는 한국어 - Work Book』 관용어 목록 ····· 40
<표 13> 각 항목별로 제시된 관용어의 개수 ····· 43
<표 14> '어휘와 표현·문법과 표현' 항목에 제시된 관용어 개수 ····· 48
<표 15> '새 단어' 항목에 출현한 관용어 개수 ····· 53
<표 16> '어휘와 문법' 항목에 출현한 관용어 개수 ····· 54
<표 17> 서울대 교재의 색인에 등재된 관용어 개수 ····· 64
<표 18> 선문대 『한국어』의 색인에 등재된 관용어 개수 ····· 66
<표 19> 연세대 교재의 색인에 등재된 관용어 개수 ····· 67
<표 20> 이화여대 교재의 색인에 등재된 관용어 개수 ····· 71
<표 21> 학습 단계별 적정 관용어 개수 ····· 75

<표 22> 초급단계에서의 관용어 목록 78
<표 23> 중급단계에서의 관용어 목록 80
<표 24> 고급단계에서의 관용어 목록 81
<표 25> 발화 기능에 따른 관용어 분류 87
<표 26> 학습 단계별 관용어 활용 예문 93
<표 27> 관용어 교육을 위한 교수·학습 지도안 103

< 그림 차례 >

<그림 1> 56
<그림 2> 57
<그림 3> 58
<그림 4> 59
<그림 5> 62
<그림 6> 95
<그림 7> 101
<그림 8> 101

A STUDY ON THE EFFICIENT WAY OF TEACHING IDIOMS TO THE FOREIGNERS

Boo-Kyoung Kim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Pukyong National University

Abstract

Idioms reflect the cultural characteristics of the country more than any other vocabularies, and are used very often in conversation. However, idioms are usually so difficult to be interpreted logically in meanings and forms that they are one of the difficult vocabularies to learn for foreigner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find out the present conditions of teaching idioms through the Korean language textbooks and to suggest the practical ways of the effective teaching of idioms.

To teach idioms to foreigners, we need to consider the theoretical basis of idioms first. Although the consideration of the theories of idioms has been continued since 1910, researchers did not come to an agreement about the concepts and technical terms of idioms. Despite the fact that the list of idioms to be learned also should be selected, the classification of the list is still confusing now because of the researchers' different viewpoints.

Chapter II clarifies the concepts and terms of idioms, and based on these, classifies the idioms. It also mentions the classified types of idioms that are related to the instruction of idioms either directly or indirectly. Because the purpose of this study, as I have mentioned earlier, is to suggest the ways of teaching idioms to foreigners, this study mainly focuses on the education of idioms, on the basis of some of the established findings.

Chapter III examines how the current education of idioms has been accomplished. Because of the limitation of field study, this study examines the

Korean language textbooks as an alternative. Chapter Ⅲ orients ourselves to each textbooks, through a careful examination of the system ot the idiom-list presented step by step, of how the idioms are presented, reviewed and even checked.

Chapter Ⅳ, after analyzing chapter Ⅲ, suggests a plan and syllabus for teaching idioms as an example. First, it summarizes the directions of teaching idioms, and then, it presents a list of idioms step by step as a plan for teaching idioms, giving examples of how to learn the list and how to make sure whether the students have learned. Finally, a syllabus is designed to be applied to real instruction reflecting all of these methods.

Ⅰ.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한국어 교육은 전문적인 한국어 교육기관이 설립된 1950년대 후반을 시작으로 볼 때, 이제 그 역사는 40년이 넘는다. 한국어 교육은 경제력과 국제적 역할의 증대 그리고 올림픽과 같은 국제적 규모의 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는 1980년대를 지나면서 그 규모는 급격하게 확대되었으며, 학습자 집단 역시 초기 선교사나 외교관 등에 한정되었던 것에 반해 현재에 이르러 그 분포가 매우 다양해졌다. 그리고 이러한 수요의 확대와 더불어 공급 역시 늘어나 교육기관의 증가뿐만 아니라 한국어 교재에 대한 연구도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그 종류도 매우 다양해지고 있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할 것은 최근에 출간된 한국어 교재가 과거의 것에 비해서 단순히 문법을 중심으로 하는 언어 교육을 넘어 점차 문화 교육에 관심을 두고 이를 반영하여 제작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언어와 문화의 관계를 고려한 것으로 언어 교육에서 단순히 겉으로 드러나는 문법 구조와 같은 것만을 학습의 대상으로 삼아서는 최종 목표 수준인 모국어 화자의 언어 능력 수준까지 도달하기 어렵다는 결론에서 비롯된 것이라 생각한다. 언어는 의사소통의 수단이면서 동시에 문화이다. 즉 각 나라의 문화에 따라서 그에 속한 사람들의 사고와 세계관이 달라지고 이러한 사고는 언어를 통해서 표출되기에 문화와 언어는 불가분의 관계에 놓인다.

현재 문화 교육에 대한 연구는 박영순(1989)을 시작으로 하여 지금까지

이루어지고 있다. 여기서 문화 교육을 위한 기초 어휘 선정과 관련해서 몇몇 연구자들이 제시한 목록을 살펴보면 분류방식이나 선정 기준에서 다소 차이를 보이고는 있지만 공통적으로 관용어가 모든 목록에 포함되어 있어 주목된다. 관용어를 문화 교육의 대상으로 선정하는 것은 관용어가 다른 어휘들에 비해 문화 반영도가 높기 때문으로, 학습자는 관용어 학습을 통해 한국의 문화적 보편성과 특수성을 함께 학습하게 된다.[1)]

이처럼 관용어는 그 어떤 어휘 보다 그 나라의 문화적 특성을 가장 많이 반영하고 있는 어휘로 언중들의 일상 회화에서도 많이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의미가 논리적으로 해석되기 어렵고 형태 역시 비논리적인 것이 많아서 외국인들이 학습하기에는 매우 까다로운 어휘 가운데 하나이다. 따라서 학습하기는 어렵지만 일반 언중의 구어로서 사용 빈도와 문화 반영도가 높은 관용어 교육을 위한 체계적 방법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이에 본 논의에서는 현행 한국어 교재에서의 관용어 교육 현황을 살피고 이를 바탕으로 하여 효과적인 관용어 교육을 위한 실질적 방안을 제시하는 데 그 목적을 둔다.

2. 연구 내용 및 방법

외국인을 대상으로 관용어를 교육하기 위해서는 먼저 관용어의 기본적인 이론에 대한 고찰이 필요하다. 그런데 관용어 이론과 관련한 논의는 1910년 이래로 꾸준히 계속 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관용어를 지칭하는 용어와

1) 가령, 영어권 학습자의 경우, '늘'이라는 의미의 '밤낮'이라는 관용어를 학습할 때 'day and night'이라는 말을 자연스럽게 연상함으로써 한국어권과 영어권이 공통적인 사고를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을 것이다. 반면에, 지난날 결혼과 같은 특별한 날에 국수를 먹은 것에서 비롯된 관용어인 '국수를 먹다'를 학습하면서, 학습자들은 한국의 문화적 특수성에 대해서도 학습할 수 있다.

개념의 경우 완전한 합의를 보이지 못한 채 논자마다 이견을 보이고 있다. 뿐만 아니라 관용어 교육을 위해서는 학습의 대상이 되는 관용어 목록을 선정해야 하는데, 이 또한 논자마다 관용어를 보는 관점의 차이로 인해 관용어의 범주가 명확하지 않아 혼란스럽다. 이에 제 Ⅱ장에서는 관용어를 지칭하는 용어와 개념을 정리하고, 이 내용을 토대로 하여 범주를 명시하기로 한다. 그리고 여기에 보태어 관용어 교육과 직·간접적 연관 관계에 있는 관용어의 유형 분류에 대해서도 함께 언급하기로 한다. 본 논의의 목적은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관용어 교육의 방법을 제시하는 데 있으므로 기존의 논의를 바탕으로 하되 관용어 교육과 관련된 것을 중심으로 기술하기로 한다.

제 Ⅲ장에서는 현행 관용어 교육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를 살펴보고자 한다. 다만 실제 교육 현장을 살피는 것에는 한계가 있기에, 현행 한국어 교재를 대상으로 관용어 교육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살펴보는 것으로 이를 대신한다. 제 Ⅲ장에서는 관용어 교육에 대한 각 교재의 기본 방향을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하여 각 단계별로 제시된 관용어 목록의 체계와 더불어 관용어가 어떻게 제시되고 있으며 제시된 관용어를 교육한 이후 학습자가 학습한 내용을 어떻게 확인하고 있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다.

마지막으로 제 Ⅳ장에서는 제 Ⅲ장에서 분석한 내용들을 바탕으로 하여 관용어 교수·학습의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기로 한다.

3. 선행 연구

지금까지 관용어 자체에 대한 논의는 1910년대의 자료 수집 차원의 연구를 시작으로 하여 현재에 이르기까지 관용어의 명칭·개념·범주는 물론이요 그 특성과 유형 그리고 판별법까지 다양하게 이루어졌으나 외국인을 대

상으로 하는 관용어 교육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는 1990년대에 접어들어서야 시작되었다. 물론 관용어를 어휘의 하위 범주 가운데 하나로 보고 어휘 교육에 대한 논의를 살핀다면 그 시기는 더욱 앞당겨질 것이다. 그러나 본고에서는 관용어를 다른 동위 계열의 속담, 유행어 등과 변별되는 독립적인 어휘로서 그 교육 방법을 제시하지 않은 것은 제외하고 독립적인 어휘로서 관용어 교육 방안에 대해 논의한 연구물만을 선행 연구에서 다루고자 한다. 또한, 본 논의가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관용어 교육인 만큼 문화 교육 차원에서의 관용어가 언급된 연구물도 함께 살펴보겠다.

먼저, <표 1>은 외국인 학습자를 대상으로 하는 관용어 교육 방안에 관한 선행 연구 분류표이다.

<표 1> '관용어 교육' 관련 선행 연구 검토

연구분야		연구자	내용	한계 및 시사점
관용어 교육	신체 관용어에 국한[2]	이영숙 (1992)	신체관용어의 유형과 생성요소를 밝히고 신체관용어의 예를 제시.	신체 관용어 활용 의의를 논하는데 그칠 뿐 구체적인 방법론은 제시하고 있지 않음.
		조현용 (2003)	신체관용어와 유사한 용어로 '비언어적 행위 관련 관용표현'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이와 관련한 교육 방안 제시.	'비언어적 행위 관련 관용표현'만을 대상으로 교육방안을 제시.
	관용어 전반	유덕자 (1998)	현행 한국어 교재를 분석하고 문제점을 분석한 후 실제 관용어 실제 관용어 교육 방법을 제시.	현행 한국어 교재에 실린 관용어 목록에 대한 비판 이후 이에 관한 대안 제시가 없음.
		문금현 (1998)	현행 한국어 교재에 나타난 관용어 목록을 제시하면서 교재의 특징과 문제점을 지적하고, 마지막에 관용어 학습 방법을 제시.	관용어 선정 기준을 마련하고 실제 단계별로 그 목록을 제시하고 있어 의의가 있으나 관용어 목록 설정이 불명확함.
		조현용	어휘 교육 전반을 다루면서	관용어 교육과 관련한 내용이

		(2000)	아울러 관용어 교육을 언제, 어떻게 교육할 것인가에 대해 언급.	문금현(1998)에서 크게 개진되지 않았음.
		전혜영 (2001)	관용표현 교육의 방향 설정을 위한 기초 작업으로 5가지를 제시한 후, 관용표현 교육 단계를 의미 전달 단계, 확인 연습 단계, 통합 활용 단계로 나누고 수업 현장에서 사용할 수 있는 방법과 구체적인 예를 제시.	관용표현 교육을 단계별로 나누어 제시하고 있으며, 특히 통합 단계에서는 발화기능을 기준으로 관용표현을 분류함으로서 일상회화에서 적극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유도.
		후문옥 (2003)	어휘 교육 전반에 논의하면서 어휘의 하위 갈래로서 관용어 교육에 대해 언급.	교육의 대상이 중국인이라는 특정 집단이기에 관용어의 유형 분류가 중국어와의 비교를 통해서 제시되어 있으며 교육도 중국인 집단을 고려한 내용이 부분적으로 포함 되어있다는 점에서 타 논의들과의 차별성을 드러냄.

이상에서 알 수 있듯이 관용어 교육과 관련하여 이루어진 연구는 첫째, 신체 관용어에 국한 된 논의된 것과 둘째, 관용어 전반을 대상으로 하여 논의 된 것으로 나뉜다.

전자에 해당하는 이영숙(1992)의 경우, 신체 관용어를 활용한 교육의 가능성만 제시되어 있을 뿐 구체적인 교수 방법에 대한 논의는 제시되어 있지 않다. 다만, 조현용(2003)에서 비디오 자료 이용, 교사의 설명, 연할극 등의 교수 방안들이 개괄적으로 제시되어 있다.

후자에서 유덕자(1998)의 경우 단계별 관용어 목록 설정 없이 교수 방법

2) 조현용(2003)에서 '비언어적 행위 관련 관용표현을 신체언어 관련 관용 표현이라고 해도 비슷한 용어가 될 것'이라고 밝히고 있으므로 본고에서는 이를 '신체 관용어'로 묶어 함께 제시한다.

만이 제시되어 있는데 반하여, 문금현(1998)은 현행 교재를 분석한 후에 그 문제점을 지적하고, 단계별 관용어 목록과 교수방법을 제시하고 있어 의의가 있다. 그러나 관용의 범주 설정이 명확하지 않아 직유 표현뿐만 아니라, 문금현(1996ㄴ)에서 이미 관용어의 범주에서 제외한다고 밝힌 속담까지도 관용어 목록에 포함되어 있어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조현용(2000)에서는 어휘 전반을 교육의 대상으로 삼고 있어 관용어 교육에 대한 방안이 구체적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내용이 앞서 문금현(1998)이 언급한 것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전혜영(2001)은 관용표현 교육 단계를 의미 전달 단계, 확인 연습 단계, 통합 활용 단계로 나누어 제시하고 있는데, 특히 통합 활용 단계에서 약속하기, 물건사기, 조언하기 등과 같은 발화 기능을 기준으로 관용어를 분류하여 제시하고 있어 듣기·말하기 상황에서 실질적인 관용어 활용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후문옥(2003)은 중국인이라는 특정 학습자를 고려하여 관용어 교수 방법을 제시하고 있어 그 의의가 있다.

두 번째로 문화 교육 차원에서 관용어가 언급된 선행 연구들을 정리하면 <표 2>와 같다.

<표 2> 관용어 관련 문화교육에 대한 선행 연구 검토

연구분야	연구자	내용	한계 및 시사점
문화 교육	박영순 (1989)	문화 교육을 통해 학습 동기 유발과 더불어 학습 능률을 높일 수 있으며 궁극적으로는 언어 능력이 신장될 수 있을 것이라 하면서 문화적 기초 어휘와 한국어 속의 문화적 요소로서 관용어를 포함시키고 있음.	문화교육의 일환으로서 관용어 교육의 중요성을 인식.
	민현식	국어 문화론의 정립을 주장하면서 현재	문화교육의 일환으로

	(1996)	교포와 외국인을 위한 국어 문화 교육을 실태를 연세대학교에서 출판된 한국어 교재를 통해 파악하고 국어 문화론에 포함되어야하는 내용으로서 관용어를 언급하고 있음.	서 관용어 교육의 중요성을 인식.
	박영준 (2000)	문화적 어휘를 문화와 관련되는 어휘·표현과 문화적 배경의 차이에 따라서 나타나는 어휘·표현으로 나누고, 관용어가 포함되는 후자에 대해서는 일반적 유래, 어원, 차용 관계, 조어법, 사용 의미, 사용 맥락, 관점의 차이 등의 항목들이 한국어 교육에서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을 밝힘.	문화교육의 일환으로서 관용어 교육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관용어를 포함한 문화적 어휘·표현을 유래, 어원 등의 항목을 밝혀 교육해야 함을 시사.
	조항록 (1998)	고급 과정의 학습자에 한정하여 문화 교육을 위한 여러 가지 방안 제시.	고급 과정의 학습자를 위한 문화 교육 방법의 예로 관용어가 제시.
	장경은 (2001)	단계별로 문화를 통한 한국어 교육의 목표와 이를 실행하기 위한 교육 방향에 대해 언급.	관용어 교육이 중급 단계에 국한되어 있으며, 문화 교육의 일환으로 제시한 교육 방안을 관용어 교육과 연계시키기 어려움.

문화 교육과 관련한 논의에서는 문화 교육 측면에서 관용어 교육의 가치를 인정하고 다른 문화 항목들과 더불어 지속적으로 교육이 이루어져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실질적인 방안에서는 관용어 교육에 적용시킬 수 있는 것이 많지 않다. 이는 교육의 대상으로 삼은 문화 항목의 범주가 넓은 데서 비롯된 것이다. 즉, 문화 교육 방안이 어휘 뿐 아니라 사고방식, 의식주 등 광범위한 문화 항목을 교육하기 위한 방안으로 제시되어 어휘의 하위 범주인 관용어에 적용시키기에는 다소 무리가 따른다.

Ⅱ. 관용어 교육의 이론적 고찰

외국인을 대상으로 관용어 교육을 모색하기 위해서는 관용어의 개념·범주·유형 분류와 같은 기본적인 이론에 대한 고찰이 필요하다. 앞서 '2. 연구 내용 및 방법'에서도 언급했듯 현재 관용어의 개념이 완전하게 정립되어 있지 않으며, 이로 인해 논자의 관점에 따라서 그 범주가 달리 설정되어 있다. 그러나 관용어 교육을 위해서는 관용어의 개념이나 범주 설정은 반드시 필요한 것으로 본절에서 이에 대해 살펴보고, 이후 제 Ⅳ절에서 관용어 개념을 바탕으로 한 범주 설정을 기준으로 관용어 목록을 제시하기로 한다. 그리고 개념과 범주 외에 관용어의 유형 분류 역시 학습자에게 제시할 관용어 목록을 선정할 때 그 기준으로 삼을 수 있는 유용한 내용이므로 여기서 함께 언급하기로 한다.

1. 관용어의 개념

관용어의 개념을 다루기 전에 우선 그 용어의 문제를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 관용어를 이르는 명칭으로는 관용어를 비롯하여 관용구, 관용표현, 숙어, 익은말, 익힘말 등이 있으며 지금까지도 용어의 통일이 이루어지지 않은 채 학자에 따라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다.

어떤 것이 관용어를 지칭하는 용어로 가장 타당한가하는 문제는 관용어의 개략적인 의미 파악을 통해 알 수 있다. 먼저 '관용구'는 관용어가 대체로 구의 형태를 취하는 것이 많은데서 기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실제 관용어의 예를 살펴보면, '입이 무겁다'와 같이 구의 형태만을 취하지

않기에 용어로 적합하지 않다. 그리고 '숙어'의 경우에는 관용어가 둘 이상의 의미소가 합하여 제3의 의미를 지닌다는 점을 생각할 때 그 용어로 적절치 못하다.[3)]

관용 표현은 관용어와 동위 계열에 있는 속담, 금기어, 은어, 상용구 등을 모두 아우르는 상위 개념으로 이미 심재기(1986), 안경화(1987), 최경봉(1993) 등 많은 논자들이 사용하고 있는 용어이다. 문금현(1996ㄴ)은 관용 표현을 광의와 협의로 나누고 관용어를 협의의 관용 표현이라 칭하고 있는데, 이는 관용어의 상위 개념을 지칭하는 의미를 '관용 표현'이라는 용어가 포함하고 있음을 인정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런데 관용어와 관용어를 포함하는 상위 개념 모두를 관용 표현으로 묶어 두는 것은 사용상 혼란을 야기할 수 있으므로 관용어를 지칭하는 용어로 관용 표현을 사용하는 것을 적절하지 않다.

이에 본고에서는 관습적으로 쓰이는 고정된 형태의 말로서 의미상 하나의 단어로 치환되며 반드시 구의 형태로만 나타나지 않는 점을 고려하여 가장 적합한 용어로 '관용어'를 취하고자 한다. 관용어가 구나 절의 형태를 지니고 있어 '어(語)'를 사용하는 것이 부적합하다는 지적이 있으나 앞서 밝혔듯 의미상 하나의 단어로 치환된다는 특성이 있기에 문제시되지 않으리라 생각된다.[4)]

---

3) 박영순(1985)는 숙어와 관용어는 두 개 이상의 단어가 단단히 결합되었다는 점에서는 같으나 의미론적으로 볼 때 관용어는 개개 단어의 의미의 합이 아닌 제3의 의미를 가지는 반면 숙어는 기본 의미 그대로를 가지는 것으로 서로 독립된 영역으로 보고 있다. 즉, 관용어인 '국수 먹는다'는 '결혼'이라는 하나의 단어와 치환이 가능하지만 숙어인 '결코 -지 않는다'는 관용어와 같이 화석화는 되어 있으나 의미는 기본 의미 그대로 해석되므로 관용어와 구별된다.

4) 또한, 오제운(1998)에서는 용어 사용의 빈도수 조사 결과 관용어가 27명, 관용구가 13명, 관용 표현이 12명, 속어가 10명 순으로 나타남으로써 '관용어'가 명칭으로서 그 세력을 확보해 가고 있음 밝히고 있어, '관용어'로 명칭을 통일시켜야 한다는 주장을 뒷받침해 주고 있다. [김향숙(2003) 재인용]

관용어의 개념에 관해서는 오랜 시간 관용어에 대한 연구를 통해서 김문창(1974), 심재기(1986), 안경화(1987), 강위규(1990), 최경봉(1993), 문금현(1998)[5] 등에 의해 많이 논의되었다. 이러한 논의에서 관용어 개념에 대한 정의는 논자 마다 약간의 차이를 보이고 있으나 이는 사용하는 용어의 차이에서 기인한 것으로, 궁극적으로 관용어가 고정된 형태로 기본 의미와는 다른 제 3의 의미를 지닌다는 점에서 상통하는 바가 있다[6].

이에 본고에서는 선행연구에서의 관용어 정의를 바탕으로 하여 관용어를 다음의 3가지 속성을 지니는 것으로 정의하고자 한다.

첫째, 관용어는 대중성을 가지고 관습적으로 널리 쓰여야 한다. 때문에 특

5)

연구자	개념
김문창 (1974)	숙어는 두 어군 이상으로 구성된 하나의 구로서 문법, 의미, 통사 등 제 관점에서 볼 때 특수한 구조를 가지며 각 구성요소간의 결합도가 특별히 긴밀하여 일반적 분리 불가능한 일종의 화석형이다.
심재기 (1986)	숙어는 두 개 이상의 단어(혹은 어간형태소)가 결합하여 하나의 단어와 동일한 통사적 및 화용론적 기능을 수행하는 일군의 결합어휘를 지칭한다.
안경화 (1987)	관용어란 언어의 전반적인 규칙성에 비추어볼 때 비정상적이나, 관습상 통용되는 표현으로 굳어진 은유표현의 구 또는 절을 말한다.
강위규 (1990)	관용 표현이란 말할이가 특정 상황에서 경험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지금까지 사용해 온 일반적인 표현과는 다른 형식을 빌어서 표현한 형태가 그 언어사회에서 대중성을 얻어, 익은 형태로 통용되는 것이다. 여기서 익은 형태라는 것은 빌어온 특이한 형식이 고정도어 하나의 단위처럼 익숙하게 사용되는 것을 말한다.
최경봉 (1993)	관용어는 구성 낱말의 뜻과는 별개의 듯을 가진 어휘 복합체가 문장 내에서 하나의 구성 성분으로 기능하는 언어 단위로, 비유적 표현이 관습적으로 쓰이다가 하나의 굳은 형태로 통용되는 것을 말한다.
문금현 (1998)	관용 표현이란 언어 내적인조건(의미 · 수사, 형태 · 통사적 조건)과 어어 외적인 조건(공시적 조건:대중성/ 광역성// 통시적 조건:지속성/ 역사성)을 갖춘 것들이다.

6) 그러나 최경봉(1993)에서 언급하였듯 제 3의 의미에 대한 한계 설정에서 이견을 보이고 있어 관용어 목록 선정에서 차이가 확연하다. 이에 대해서는 '2. 관용어의 범주'에서 언급하기로 한다.

수한 집단 혹은 소수의 집단내에서만 통용되는 은어나 전문어와 같은 것들은 제외되며, 대중들에게 널리 사용되지만 관습적으로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한시적으로 사용되는 유행어 역시 제외된다.

둘째, 관용어는 둘 이상의 자립성을 가진 어휘가 결합하여 제 3의 의미[7]를 지녀야 한다. 가령, '밤낮'과 같은 경우 '밤'과 '낮'이라는 자립성을 가진 두 어휘가 결합하여 '늘'이라는 제 3의 의미를 지니므로 관용어로 보아야 한다.

(1) ㄱ. 내 마음은 호수처럼 평온하다.
ㄴ. 내 마음은 호수다.

(2) ㄱ. 민준이는 발이 넓다
ㄴ. 지섭이는 밤낮 공부만 한다.

셋째, 관용어는 고정된 형태의 사은유여야 한다. 강위규(1990)에서 언급하였듯 '같이, 듯이, 처럼…'등의 비유 표지를 붙여 사용하는 직유는 두 사물을 직접 비교하여 설명하는 것으로 동일성을 갖고 있지는 않다. 즉, (1 ㄱ)의 경우에 '호수'는 지시적 의미만 가진 것으로 '고요하다'와 동의성을 지니고 있지 않다. 그러나 직유와 같은 표지 없이 두 사물 중 하나를 다른 것과 동일시하거나, 한 사물을 통해 새로운 뜻을 형성하는 (1 ㄴ)과 같은 은유의 경우에는 '호수=평온하다'라는 등식이 성립한다. 그러나 은유표현이라고 해도 (1 ㄴ)처럼 개인적 비유 혹은 시적 비유로 '대중성을 가지고 관습적으로 널리 쓰여야 한다'는 속성에 맞지 않는 경우에는 관용어에서 제외

7) '제 3의 의미'라는 것은 기본의미와는 다른 의미를 뜻한다. 그러나 관용어에 따라서는 기본의미와 다른 제 3의 의미로 사용되기는 하지만 그 의미가 완전히 단절된 것이 아니라 기본 의미를 통해 제 3의 의미를 유추할 수 있는 것들이 있다. 이에 관해서는 '3. 관용성의 정도에 따른 유형 분류'에서 다시 언급하기로 한다.

된다. 따라서 (2)처럼 '발이 넓다 = 교제 관계가 넓다, 밤낮 = 늘'과 같은 등식이 성립되면서 이미 대중들에게 익숙한 표현으로 아무런 비유적 추론의 과정 없이 이해되는 사은유만이 관용에 포함된다.

이상의 내용을 정리하면, 관용어란 '①대중들에 의해 널리 관습적으로 사용되며 ②둘 이상의 자립성을 가진 어휘가 결합하여 제 3의 의미를 지니는 것으로 ③고정된 형태의 사은유'이다.

2. 관용어의 범주

위에서 정의한 관용어의 개념은 관용어의 범주를 제외한 것으로 각 연구자들의 정의에 궁극적으로 일치하는 바가 있어 그 개념에 있어 크게 문제시 되는 부분이 없다. 그러나 관용어의 범주 설정 문제는 앞서 살핀 용어보다도 그 주장이 매우 다양하다. 이에 본고에서는 관용어의 범주 설정을 관용어의 형태와 관용어와 경계에 있는 다른 동위 범주들과의 구분을 통해 제시하고자 한다.

먼저, 관용어의 형태에 대한 논의는 앞서 언급한 용어 설정의 문제와도 연결되는 것이므로 아래 '1) 관용어의 형태'에서 살펴보기로 한다. 그리고 관용어와 경계에 있는 타 범주와 관련해서는 본고에서 모든 범주를 언급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기에, 선행 연구에서 언급된 타 범주 가운데 관용어와 명확하게 구별되는 고사성어나 인사말, 수수께끼 등과 같은 것들은 제외하고, 많은 학자들이 별개의 범주로 설정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예에서 혼란을 빚고 있는 다의어, 은유 표현, 속담 등을 중심으로 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1) 관용어의 형태

관용어의 형태에 대한 논의는 크게 단어 차원의 형태를 포함시키는 것과 제외시키는 것으로 나눌 수 있는데 전자의 경우는 다시 단일어 차원과 복합어 차원으로 나눌 수 있다.

먼저 단어 차원에서 실질 형태소가 곧바로 단어가 된 단일어는 '둘 이상의 자립성을 가진 어휘가 결합하여 의미상 하나의 단어와 취환될 수 있는 제 3의 의미를 지니는' 관용어의 개념과 일치하지 않으므로 제외된다.

(3) ㄱ. 밤낮, 마당발, 돌아가다('죽다'의 높임말)
ㄴ. 마개, 덮개
ㄷ. 낯설다, 늦잠, 들어가다

그러나 복합어의 경우는 다르다. (3 ㄱ)과 같이 둘 이상의 형태소 결합인 복합어는 의미전이를 통해서 제3의 의미를 가진다면 관용어의 범주에 들 수 있으나,[8] 이를 만족시키지 못하고 접사에 의해 생산적으로 만들어지는 (3 ㄴ)과 같은 파생어는 제외되며, (3 ㄷ)과 같이 합성어라 할지라도 의미전이가 없는 것은 제외된다.

2) 관용어와 경계에 있는 타 범주와의 구별

앞에서 관용어의 개념을 정의하고 더불어 그 형태를 단어 차원 이상으로

8) 박영순(1985)은 관용어와 복합어를 모두 두 가지 이상의 단어가 결합되어 제 3의 의미를 가진다는 점에서는 동일하나 그 의미전이가 관용어는 강하고 복합어는 약하다는 데서 서로 다른 범주로 구별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의미전이의 강약에 대한 파악은 자칫 주관적인 해석에 따를 수 있는 것으로서 본고에서는 복합어가 두 가지 이상의 단어가 결합되어 제 3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관용어의 범주에 넣기로 한다.

규정하였으나 이것만으로 관용어의 경계를 구분 짓기는 어렵다. 대부분의 선행연구에서 관용어와 구별되는 타 범주를 '은어, 비속어, 비유 표현, 속담, 다의어, 인사말, 고사성어' 등으로 보고 있어 대동소이하나 구체적인 예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는 논자들 마다 각 범주의 개념 해석이나 그 한계선 설정에 차이를 보이는 데서 기인한 것이다. 이에 관용어와의 경계 구분이 비교적 명확한 고사성어, 인사말, 수수께끼 등은 제외하고, 구분이 다소 모호한 다의어, 은유 표현, 속담 등과의 경계를 밝힘으로서 관용어의 범주를 명확히 하고자 한다.

① 관용어와 다의어

관용어는 사은유로서 태생적으로 비유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으며 다의어 역시 이러한 비유적 성격을 띠고 하나의 의미에서 여러 의미로 파생하여 둘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 뿐만 아니라 관용어 가운데는 이런 다의어를 포함한 것이 많아 이 둘 사이의 관계가 매우 모호하다. 즉, 관용어와 다의어가 포함된 구 사이에서 경계의 모호함이 발생한다.

(4) 눈 - ㉠ 빛의 자극을 받아 물체를 볼 수 있는 감각 기관. 척추동물의 경우 안구·시신경 따위로 되어 있어, 외계에서 들어온 막·눈동자·수정체를 지나 유리체를 거쳐 망막에 이르는데, 그 사이에 굴광체에 의하여 굴절되어 망막에 상을 맺는다. ㉡ 시력. ㉢ 사물을 보고 판단하는 힘. ㉣ ('눈으로' 꼴로 쓰여) 무엇을 보는 표정이나 태도. ㉤ 사람들의 눈길. ㉥ 태풍에서, 중심을 이루는 부분. ㉦ 『북』 자동차나 트랙터 따위의 앞 조명등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표준국어대사전)

(5) ㄱ. 눈이 나쁘다

ㄴ. 눈이 높다

위의 예문 (5 ㄱ)의 '눈'은 다의어의 '눈'의 (4 ㉡)의 의미와 연결되고 (5 ㄴ)의 '눈'의 의미는 (4 ㉢)의 의미와 연결되는데, 이러한 관용어 내부 어휘와 다의어의 의미적 연관성이 관용어와 다의어 사이의 경계에 혼란을 야기한다.

그러나 (5 ㄱ)에서 '눈'이 의미하는 '시력'은 신체 일부로서의 '눈'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4 ㉠)의 의미에서 파생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5 ㄱ)은 두 개 이상의 자립성을 가진 어휘의 결합으로 제 3의 의미를 가진다는 관용어의 속성을 만족시키지 못하므로 관용어에서 제외된다. 이에 반해 (5 ㄴ)의 '눈'의 의미인 '사물을 보고 판단하는 힘'은 신체 일부로서 '눈'과의 관련성이 '시력'과는 달리 희박함을 알 수 있다. 이는 관용어와 다의어의 인과관계로 파악된다. 즉, (5 ㄴ)이 고정된 형태로 쓰이면서 의미 전이가 발생하고, 여기서 핵심어인 '눈'의 의미 자질인 (4 ㉢)이 추가된 것이다. 따라서, (5 ㄴ)은 관용어의 범주에 포함된다.

② 관용어와 은유표현

관용어는 사은유이기에 은유 표현과 밀접한 관련을 가지지만 또한, 사은유이기에 오히려 그 구분은 명확하다고 할 수 있다. 곧, 사은유라는 것은 은유표현의 핵심이라고 할 수도 있는 신선함이나 창조성이 대중들에 의해 널리 그리고 오래 사용됨으로서 사라지고 '고정성' 혹은 '대중성'을 얻은 것이다.

(6) ㄱ. 내 마음은 호수요, 그대 노 저어 오오. (김동명 《내 마음》)
ㄴ. 낙엽은 폴란드 망명 정부의 지폐 (김광균 《추일서정》)

(7) ㄱ. 국수 먹다
ㄴ. 시집을 가다

(6)의 예에서 알 수 있듯이 은유는 신선함을 가지고 임시어적인 성격을 띠고 있어 개인적이고 일시적으로 사용된다. 그 해석 역시 사람에 따라 자유롭게 할 수 있으며 관용어처럼 제 3의 의미를 지닌다고 하기 어렵다. 그리고 형식구조도 'A는 B이다'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그러나 (7)의 관용어는 대중들에 의해 오랫동안 사용되었기에 은유표현의 신선함이 없고 그 형식구조 역시 매우 다양하다. 또한, '시집을 가다'가 '친구집을 가다'나 '고모집을 가다' 등으로 바뀌면 은유 표현과는 달리 관용어로서의 의미가 사라지는데 이는 은유표현과는 달리 관용어의 형태가 고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③ 관용어와 속담

관용어가 제 3의 의미로 해석되는데 반해, 속담은 축자적인 의미로 해석되며 여기에 보태어 그 내용에 교훈성 혹은 풍자성을 지니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관용어와 마찬가지로 형태가 고정되어 있기는 하지만 속담은 그 문장이 문법적이고 논리적이다. 그러나 이러한 차이에도 불구하고 관용어와 속담의 경계를 구분하는데 논란이 되는 것은 '개밥의 도토리, 그림의 떡, 꿀 먹은 벙어리, 빛 좋은 개살구, 우물 안 개구리, 제 눈에 안경'과 같은 형태의 어휘 처리 문제 때문이다.[9] 이에 관용어와 속담의 경계 구분은 논란

9) 주경희(2002)에 의하면 이들 표현을 심재기(1983), 조재윤(1988), 이상억(1993), 국어대사

이 되는 체언형 관용어의 형태 분류를 중심으로 하고자 한다.

주경희(2002)는 '개밥의 도토리, 그림의 떡'과 같은 것을 체언형 관용 표현으로 분류하고 그 의미는 '관용 표현 중 체언으로 종결되는 것으로 이들 중 종결되는 체언을 수식하는 성분이 있으며 구의 형식을 갖춘 것'이라고 한다. 주경희(2002)는 속담과 관용어를 구별하는 실제적인 방법으로 '다시 쓰기', '인용', '관계성'[10]을 제시하고 이를 통해 체언형 관용 표현을 속담의 범주에 포함시키고 있다.

그러나 본고에서는 이를 속담에서 관용어로 넘어가는 속담관용어로 파악하고 관용어의 범주에 포함하기로 한다. 이와 관련하여 주영진(2001)은 아래의 예문을 통해 속담에서 관용어로 넘어가는 중심원리인 축소, 결속, 중복, 유추의 원리를 설명하고 있다.

(8) ㄱ. [부스럼을 긁으면] 가려움 법이다.
ㄴ. 긁어 부스럼.

먼저 축소의 원리란 속담에서 관용어로 변하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형태적·의미적 크기가 줄어드는 현상을 말한다. (8 ㄱ)의 속담에서 (8 ㄴ)의 관용어로 변하면서 알 수 있는 것은 구성어휘의 축소이다. 그리고 이러한 구성어휘의 축소는 (8 ㄱ)의 속담이 가지고 있던 구체성을 (8 ㄴ)의 관용어에서는 상실하게 되는 의미의 축소를 야기하며, 기능적으로는 독자적인 인

전(1995, 금성출판사), 김광해(1995), 속담사전(19950 등에서는 속담으로 분류하고 성광수(1995), 문금현(1996ㄴ), 박영준(1997), 임지룡(1998), 강위규(1998) 등에서는 관용어로 분류하고 있다고 한다.

10) '다시 쓰기'란 속담 의미와 동일한 의미가 다시쓰기 되면서 의미 중복 현상이 나타나는 것이다. '인용'이란 속담이 어미 '고'와 결합하여 자기가 말하고자 하는 바를 보다 설득력 있게 표현하는 용법을 말한다. '관계성'이란 속담이 전·후 발화 내용에 대한 확신의 부여, 해석, 발신자의 의사 표현 등으로 관계를 맺는 것을 뜻한다.

용문으로서의 속담 (8 ㄱ)이 (8 ㄴ)처럼 문장 성분으로서 의존성을 띠게 한다.

(9) ㄱ. A B ⇒ A망신은 B이/가 시킨다

[어물전] 망신은 [꼴뚜기] 이/가 시킨다

[황아장수] [고불통]

[친구] [곱사등]

[집안망신] [못난 며느리]

ㄴ. 꼬리가 잡히다 - 덜미가 잡히다

ㄷ. 【[개구리가] [올챙이] [시절] [모른다]】 고, 너 초등학교 시절을 벌써 잊었냐?

ㄹ. 【[∅] [올챙이] [시절] [모른다]】 고 너 그럴 수 있냐?

ㅁ. 사람은 [올챙이 시절]을 기억해야 해.

속담에서 관용어로 변하면서 점차 계열성이 줄어들고 결합성이 증가한다. 즉, (9 ㄱ)의 속담은 구체적 상황성 때문에 상황적, 구조적, 의미적으로 계열성이 크지만 (9 ㄴ)의 관용어는 (9 ㄱ) 보다는 구체적 상황성이 떨어져 어휘 수준의 계열성만을 가지게 된다. 그리고 (9 ㄷ, ㄹ)에서 알 수 있듯이 속담은 구성성분의 생략이 가능하지만 (9 ㅁ)의 관용어는 그 생략이 불가능하다. 따라서 속담 구성성분의 결합성보다 관용어 구성성분의 결합성이 높다고 볼 수 있으며, 속담에서 관용어로 변해가는 과정에서 통합적 결속성, 즉 결합성이 증가한다고 하겠다. 이것이 바로 축소의 원리이다.

(10) ㄱ. 닭 잡아먹고, 오리발 내민다더니, 철수가 하는 일은 믿을 수 없어

ㄴ. 철수야, 이번에도 오리발 내밀거니?

중복성은 인식적 측면과 내면적 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는데 먼저, 인식적 측면에서 중복성이란 속담 (10 ㄱ)에서 새로운 관용어 (10 ㄴ)가 파생되어 나타났다 하더라도 기존의 속담 (10 ㄱ)이 인식적으로 곧 사라지지 않고 공시적으로 같이 쓰이는 공존 현상을 말한다. 그리고 내면적 측면에서 중복성이란 속담의 특성과 관용어의 특성이 매우 많은 분야에서 공통성을 가지는 현상을 말한다. 앞서 주경희(2002)가 체언형 관용 표현으로 분류한 '개밥의 도토리' 등을 '다시쓰기', '인용', '관계성'의 방법을 통해 속담의 기능과 거의 일치한다고 하여 이를 속담의 범주에 포함시킨 것도 이러한 중복성의 원리를 통해 다시 검토해야 할 것이다. 곧, 개밥의 도토리류의 체언형 관용어가 속담의 기능을 지니고 있는 것은 이것이 속담에서 비롯한 것이며 또한, 관용어로 변하면서 중복성의 원리에 의해 그 속담의 특성이 사라지지 않고 공존하기 때문이다.

(11) 고래싸움에 새우 등 터진다 : 새우등 터진다
= 강자 싸움에 약자만 피해본다 : X

마지막, 유추의 원리에서 유추란 어떤 언어형태가 의미나 기능, 음성적으로 비슷한 언어 형태에 동화하여 변하거나 또는 그런 형태가 새로 생겨나도록 하는 심리적인 과정이다. 유추의 가장 기본적인 형태는 [A:B=C:X]의 형식을 통해 X의 값을 찾는 것이다. (11)에서 X의 의미는 '약자만 피해본다'는 뜻으로 곧 X의 의미는 유추에 의해서 얻어진다고 볼 수 있다.

이상, 관용어와 경계에 있는 타 범주와의 구별을 표로 간단히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표 3> 관용어와 경계에 있는 타 범주와의 구별

다의어를 포함한 구	구의 핵심어가 단어의 기본의미에서 파생된 의미로써 구 전체의 의미가 제 3의 의미로 의미 전이가 일어나지 않는다. (2)와 (3)에 어긋나므로 관용어에서 제외.	관용어	(1)대중들에 의해 널리 관습적으로 사용되며 (2)둘 이상의 자립성을 가진 어휘가 결합하여 제 3의 의미를 지니는 것으로 (3)고정된 형태의 사은유
은유적 표현	개인에 의해 창조된 참신한 표현으로 대중들에 의해 관습적으로 사용되지 않는다. 또한 형태가 고정되어 화석화된 표현이 아니다. (1)와 (3)에 어긋나므로 관용어에서 제외.		
속담	축자적인 의미로 해석되며 그 내용에 교훈성 또는 풍자성을 지니고 있다. 다만 체언형 관용어는 속담에서 관용어로 옮아가는 과도기의 형태로 파악한다. (2)에 어긋나므로 관용어에서 제외.		

3. 관용성의 정도에 따른 유형 분류

본고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관용어 교수·학습 방안을 마련하는데 그 목적이 있기에 관용어의 유형 분류 역시 이러한 목적에 초점을 두어 관용성의 정도에 따른 유형을 제시하고자 한다.

앞서 관용어는 둘 이상의 자립성을 가진 어휘가 결합하여 제 3의 의미를 가지는 것으로 그 형태와 의미가 고정되어 있다고 하였다. 이는 자립성을 가진 어휘 A와 B가 합하여 C라는 제 3의 의미를 가지는 것으로 'A+B⇒C'로 표현할 수 있다. 그런데 제 3의 의미인 C와 단순한 A+B의 결합으로 생기는 축자적 의미 사이의 관계를 살펴보면 모든 관용어가 의미적으로 완전히 단절되어 있지는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관용성의 정도가 존재한다는 것이다.

윤희수(1990)에서는 관용어를 근접투명, 반투명, 반불투명, 불투명의 4가지 층위로 분류하고 근접투명이 합성성의 정도가 가장 높고 관용어의 굳은 정도가 가장 낮은 것으로 보았다. 이러한 분류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관용어 교수·학습에 적용하는데 유의미한 분류로서 실제 초급·중급·고급의 단계별로 관용어를 제시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이하에서는 이를 근접투명성, 반불투명성, 불투명성의 세 가지로 나누어 살펴보기로 한다.[11]

먼저, 근접투명성은 A+B(축자적 의미)와 C(제 3의 의미) 사이의 의미적 유연성이 강한 것으로 관용어 가운데 A+B(축자적 의미)를 통해서 C(제 3의 의미)의 의미 유추가 가장 쉽다. 따라서, 초급 학습자의 경우 근접투명성으로 분류되는 관용어를 중심으로 학습하고 점차 중급에서 고급으로 나아갈수록 불투명 관용어를 익히는 것이 효과적이다. 반불투명성 관용어는 근접투명성 관용어와 불투명성 관용어 사이에 위치하여 A+B(축자적 의미)와 C(제 3의 의미) 사이의 의미적 유연성이 근접투명성 관용어에 비해서는 약하지만 불투명성 관용어에 비해서는 높아 A+B(축자적 의미)를 통해서 C를 어느 정도는 예측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불투명성 관용어는 A+B(축자적 의미)와 C(제 3의 의미) 사이의 의미적 유연성이 가장 약하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류에 속하는 관용어는 앞서 표에서 보았듯 의미 연상이나 예상이 어렵고 사건이나 상황을 비유한 것이 많으며 구성 요소 중 잘 쓰이지 않는 고어나 폐어가 많다.

문금현(1996ㄴ)을 참고하여 투명성의 정도와 관련한 이상의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11) 윤희수(1990)에서는 관용어를 근접투명, 반투명, 반불투명, 불투명의 4가지 층위로 소개하고 있으나, 실제 반투명과 반불투명의 경계가 매우 모호하여 구분하기 어렵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반투명과 반불투명을 합하여 관용어를 근접투명성, 반불투명성, 불투명성의 3가지로 나누어 살펴보고자 한다.

<표 4> 관용성의 정도에 따른 관용어 분류

근접투명성	반불투명성	불투명성
① 의미 연상이나 예상이 쉽다. ② 신체 모습이나 행동, 감정을 비유적으로 묘사하여 표현한 경우가 많다. ③ 구성 어휘가 대부분 신체 관련 어휘나 일상적 어휘이다. ④ 사용 빈도가 높다	① 축자 의미에서 관용 의미를 어느 정도 예측할 수는 있으나 근접투명성 관용어에 비해서는 구체적 의미 연결이 어렵다. ② 역사적 사건, 민담, 고사성어, 개인적인 사건 등에서 유래 ③ 구성 어휘가 대부분 일반적인 어휘이다. ④ 사용 빈도가 보통이다. (근접투명성 관용어 보다는 낮으나 불투명성 관용어 보다는 높다.)	① 의미 연상이나 예상이 어렵다. ② 잘 알려지지 않은 역사적 사건이나 고사에서 유래 ③ 구성 어휘가 대부분 잘 쓰이지 않는 고어나 폐어이다. ④ 사용 빈도가 낮다.
< 예 >		
· 눈을 감아 주다 · 무릎을 꿇다 · 손을 잡다 · 손발이 맞다 · 기가 막히다	· 그림의 떡 · 미역국을 먹다 · 긁어 부스럼 · 우물 안의 개구리 · 수박 겉 핥기	· 학을 떼다 · 오지랖이 넓다 · 시치미를 떼다 · 산통을 깨다 · 변죽을 울리다

Ⅲ. 현행 한국어 교재에서의 관용어 교육 분석

제 Ⅲ절에서는 현행 한국어 교재를 대상으로 관용어의 교육의 현황과 문제점을 분석하였다. 분석은 '관용어 교육의 기본 방향→학습 단계에 따른 관용어 목록→관용어 학습 방법→관용어 확인 학습'의 순서로 이루어진다. 즉, 교재에서 관용어 선정, 학습 방법, 확인 학습 등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를 개략적으로 알 수 있는 '관용어 교육의 기본 방향'을 머리말과 목차를 통해 먼저 살펴본 후, 학습 단계에 따라 제시된 관용어 목록을 제시하고 그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기로 한다. 그리고 교재에서 관용어 학습 방법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에 대해 알아보고, 학습한 관용어들이 어떻게 확인 학습되고 있는지를 보도록 한다.

본 논의에서는 현재 출판된 한국어 교재 가운데 다음의 교재를 대상으로 초급·중급·고급 과정의 관용어 교육 실태를 분석하였다.

①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2003), 『한국어 1』, 『한국어 2』, 『한국어 3』, 『한국어 4』, 『한국어 5』, 『한국어 6』, 성문사.[12]

②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2003), 『한국어 회화 1』, 『한국어 회화 2』, 『한국어 회화 3』, 『한국어 회화 4』, 『한국어 회화 5』, 『한국어 회화 6』, 성문사.[13]

③ 서울대학교 어학연구소(2000), 『한국어 1』, 『한국어 2』, 『한국어 3』, 『한

12)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에서 지은 『한국어』는 전체 6권으로 구성된 독본이다.

13)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에서 지은 『한국어 회화』는 전체 6권으로 구성되었으며 일상 회화를 위해 마련된 교재이다.

국어 4』, 문진미디어.[14]

④ 선문대학교 한국어 교육원(2001), 『한국어 초급 1』, 『한국어 초급 2』, 『한국어 중급 1』, 『한국어 중급 2』, 『한국어 고급 1』, 『한국어 고급 2』, 생각하는 백성.[15]

⑤ 연세대학교 한국어학당(2003), 『한국어 1』, 『한국어 2』, 『한국어 3』, 『한국어 4』, 『한국어 5』, 『한국어 6』, 연세대학교 출판부.[16]

⑥ 이화여자대학교 언어교육원(2002,) 『말이 트이는 한국어 I -Student Book』, 『말이 트이는 한국어 II -Student Book』, 『말이 트이는 한국어 III -Student Book』, 『말이 트이는 한국어 IV -Student Book』, 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17]

⑦ 이화여자대학교 언어교육원(2002), 『말이 트이는 한국어 I -Work Book』, 『말이 트이는 한국어 II -Work Book』, 『말이 트이는 한국어 III -Work Book』, 『말이 트이는 한국어 IV -Work Book』, 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

1. 관용어 교육의 기본 방향

교재에서 어떤 관용어를 어떻게 제시하고 있으며, 학습한 내용을 어떻게 확인 혹은 평가할 것인가 하는 구체적인 부분은 교재 구성 단계에서 설정되는 관용어 교육의 체계나 기본 방향을 바탕으로 하여 구성하기 마련이다. 이에 교재 본문에서의 구체적인 관용어 학습을 알아보기 전에 교재별

14) 서울대학교 어학연구소에서 지은 『한국어』는 전체 4권으로 구성되어 있다. 전체 6권으로 구성된 다른 교재들이 두 권씩 묶여 각각 초급·중급·고급으로 단계가 나뉘는 반면, 서울대의 『한국어』는 단계초급·중급·중상급·고급으로 단계가 나뉜다.

15) 선문대학교 한국어 교육원에서 지은 『한국어』는 전체 6권으로 구성되어 있다.

16) 연세대학교 한국어학당에서 지은 『한국어』는 전체 6권으로 구성되어 있다.

17) 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에서 지은 『말이 트이는 한국어』는 Student Book과 Work Book으로 나뉘며 각각 4권으로 구성되어 있다. Student Book은 수업 현장에서 사용하기 위해 마련한 책이며 Work Book은 과제를 위해 마련한 책이다.

로 머리말[18]이나 목차를 통해 관용어 교육에 대한 기본적인 교육 방향을 살펴 볼 필요가 있다.

첫 번째로 고려대학교의 『한국어』는 독본 교재임에도 불구하고 문법 설명 위주의 학습을 지양하고 일상생활에서의 언어사용 능력을 높이고자 하였다. 그러나 일상 대화에서 자주 사용되는 관용어에 대해서는 고급 과정에 해당하는 5권에 와서야 언급되고 있는데 이는 관용어 학습이 고급단계의 학습자에게 적절한 것이라고 판단한 결과라 해석된다. 그런데 문제는 관용어 학습이 어느 수준의 학습자에게 적절한가를 따지기 전에, 이미 교재에서는 1권부터 6권까지 개수에 차이는 있으나 꾸준히 관용어가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다. 이로 인하여 교재의 개요상으로 관용어 교육에 대해 언급 되지 않은 5권 이하의 초·중급 단계에서의 관용어 교육은 무계획적으로 이루어졌으리라는 추측을 낳게 한다.

또한, 목차를 살펴보면 3권(제6과 : 호랑이도 제 말하면 온다), 4권(제9과 : 바늘 도둑이 소 도둑 된다), 5권(제7과 :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까지 중급 단계부터 단원 차원의 고려가 이루어지고 있는 속담과는 달리 5권(제12과 : 싼 게 비지떡이 무슨 뜻이지요?)을 제외하고는 단원차원에서의 관용어 교육에 대한 배려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아 동위 범주인 속담보다도 교재에서의 반영 비율이 낮게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국어』 교재에서는 관용어를 명칭으로 '관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그리고 관용어 범주설정에서는 관용어와 동위 범주에 속하는 다른 어휘군 학습이 두드러지게 이루어지지 않아 명확히 알 수 없으나 최소한 속담을 제시하는 단원과 관용어를 제시하는 단원을 따로 둔 것으로 보아 이 두 어휘군을 구별하고자 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실제 교재에서는 속담에 관용

18) 교재에 따라 머리말을 '서문', '일러두기', '책을 펴내면서' 등으로 다양하게 사용하고 있으나 본 논의에서는 이를 '머리말'로 통일하여 사용하기로 한다.

어가 섞여 있어 혼란이 빚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3. 관용어 학습 방법'에서 다시 언급하기로 하겠다.

두 번째로, 『한국어 회화』는 교재의 제목에서 알 수 있듯 『한국어』보다 회화적 기능을 강조하였다. 그러나 관용어가 문어보다는 구어적 성격이 강한 어휘임을 생각할 때, 회화 교재에서 관용어는 더욱 높은 비중을 차지해야 하지만 『한국어』에 나타난 관용어 개수를 비교해 볼 때 오히려 『한국어 회화』에 실린 관용어 개수가 더 적게 나타난다. 뿐만 아니라 단원차원의 관용어 학습도 구성되어 있지 않으며 관용어 학습에 대한 언급이 전혀 제시되어 있지 않아 관용어 학습에 대한 고려가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19]

세 번째로, 서울대학교 『한국어』의 머리말에서는 관용어 교육과 관련한 언급이 나타나 있지 않으나 '교재 구성' 항목을 살펴보면 3권의 26과와 4권의 7과에서 '관용 표현 이해하기'를 활동으로 제시하여 관용어를 집중적으로 학습하도록 하고 있다. 이는 교재를 구성할 때 관용어 교육을 염두에 두고 있었음을 의미한다. 서문에 의하면 교육과정은 초급, 중급, 중상급, 고급의 네 단계로 구분되는데 3권부터 '관용 표현 이해하기'를 활동으로 설정

---

19) 『한국어 회화』 4권의 머리말부터 '관용구'라는 용어가 등장하는데 이는 관용어를 언급한 것이라고 하기 어렵다. 그 내용을 인용하면 다음과 같다.
"학습자가 한국어 생활에서 흔히 부닥칠 수 있는 실제 상황을 본문의 내용으로 삼았는데, 간결한 문장을 사용하였다. 학습자는 관용구나 한국어 특유의 표현을 통해서 자연스러운 회화체를 익힐 수 있을 것이다."
4권부터 등장하는 '관용구'라는 용어는 이미 『한국어』에서 '관용어'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는데 굳이 『한국어 회화』에서는 '관용구'라는 용어를 사용하지는 않았을 것이라는 추측 아래 이 용어가 '관용어'라는 의미로 사용되었다기 보다는 '관용 표현'이나 혹은 '상용구절' 정도의 의미로 사용한 것이라 본다. 만약 이를 '관용어'의 의미로 사용한 것이라면 내용상 실제 교재에서 관용어가 많이 등장하여야 하는데 『한국어』 4권과 5권에 각각 13개 55개가 등장하는데 반해 『한국어 회화』 4권과 5권은 각각 14개 15개로 오히려 비슷하거나 현격히 적은 수의 관용어가 등장한다. 6권에서 50개로 『한국어』의 13개 보다 많은 이유는 실제 드라마 대본을 발췌하여 실어 여기에 등장하는 관용어가 많기 때문이다.

한 것은 중상급에서 관용어를 학습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본 것이라 해석된다. 그러나 고려대학교의 『한국어』와 마찬가지로 관용어의 출현은 그 이전인 2권부터이다.

네 번째로, 선문대학교 『한국어』는 고급1과 고급2의 일러두기에 "한국어의 뿌리와 표현에서는 한국어의 관용적 표현과 속담, 어휘의 유래를 밝혀 학습자가 한국어의 고유한 표현을 이해하고 활용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많은 예문들을 제시하였다."라고 밝히고 실제 교재 구성에서 '관용 표현' 항목을 두어 각 과에 3개씩 다루고 있다. 선문대학교 『한국어』는 다른 교재에 비해 관용어의 해석이나 활용예문 뿐만 아니라 어원까지 밝힘으로서 교재 구성상의 배려가 돋보인다. 그러나 속담이나 고사성어와 같은 경우에는 '중급1'에서부터 지속적으로 항목을 마련하여 체계적으로 학습하도록 구성되어 있는 반면, 관용어 교육은 고급단계에서만 이루어지고 있어 아쉽다.

다섯 번째로, 연세대학교의 『한국어』는 한국어 교재들 가운데 가장 많은 관용어를 싣고 있는 교재이다. 그러나 머리말에 관용어 교육에 대한 언급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목차에서도 속담의 경우는 4권의 '제36과 속담'으로 다루고 있는데 반해 관용어 학습을 위한 단원은 설정되어 있지 않다.

여섯 번째로, 이화여자대학교의 『말이 트이는 한국어 -Student Book』에서는 2권부터 '관용 표현'이라는 항목을 마련하여 홀수과마다 3 개씩 관용어를 다루고 있다. 다른 한국어 교재들이 중상급 혹은 고급 단계에서 관용어 학습이 시작되는 데 비해 빠른 편이다. 3권에서는 접사에 의한 어휘 확장 학습이 이루어지고 있을 뿐 규칙적인 관용어 학습은 설정되어 있지 않다. 다만 교재 구성에 따르면 '제15과 도시 생활과 쇼핑'의 '언어와 사고' 항목에 '지명과 관련된 관용 표현'을 주제로 내용이 마련되어 있다. 4권에

서는 '책을 펴내면서'에서 '재미있는 한국어'에서는 일상생활에서 빈번히 쓰이는 관용 표현을 제시하여 살아 있는 한국어 표현을 익힐 수 있게 하였다."라고 밝히고 교재에서는 매과마다 3 개씩의 관용 표현을 싣고 있다.

일곱 번째로, 이화여자대학교의 과제를 통한 학습을 위해 만든 『말이 트이는 한국어-Work Book』도 역시 2권부터 '어휘' 항목에 관용 표현이 소개되고 있는데 제시된 수는 Student Book 2권에 비해 많다. 3권에는 『말이 트이는 한국어 -Student Book』 3권과 마찬가지로 접사에 의한 어휘 확장 학습이 관용어 학습은 마련되어 있지 않다. 4권에서는 『말이 트이는 한국어 -Student Book』 4권의 '재미있는 한국어'에서 출현한 관용어를 뿐만 아니라 제시된 관용어의 핵심어와 유사한 관용어까지 함께 제시하여 어휘 확장을 통한 학습을 유도하고 있다.

이상, 한국어 교재의 서문과 목차를 통해 개략적인 관용어 교육의 체계 혹은 기본 방향을 살펴보았다. 이를 간단히 정리하여 표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표 5> 현행 한국어 교재에서의 관용어 교육에 대한 기본 방향

한국어 교재	용어 사용	관용어 학습 기본방향 제시 유무	관용어 학습 시작 단계
고려대『한국어』/ 『한국어 회화』	관용어	○ / ×	5권 / (알 수 없음)
서울대『한국어』	관용 표현	○	3권
선문대『한국어』	관용 표현	○	고급1
연세대 『한국어』	(언급 없음)	×	(알 수 없음)
이화여대 『말이 트이는 한국어』	관용 표현	○	2권

2. 관용어 목록

현행 한국어 교재에서 관용어 학습의 문제점과 현황을 알아보기 위해서는 학습 단계에 따라 어떤 관용어가 제시되어 있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학습 방법이 아무리 뛰어나더라도 제시한 목록이 학습자에게 적절한 것이 아니라면 효과적인 관용어 학습이라 할 수 없기에 학습자의 수준에 맞는 적절한 관용어를 선정하는 일은 매우 중요하다. 이에 본 논의에서는 학습 단계에 따라 관용어 목록을 교재별로 제시한 후, 적절성 여부를 살펴보기로 하겠다. 물론 이와 관련하여 문금현(1998)에서 이미 제시한 관용어 목록이 있으나 연세대와 고려대에서 출판한 교재 외에는 분석 대상 교재가 다를 뿐만 아니라 관용어 범주 설정에서도 큰 차이를 보이므로[20] 앞서 본고에서 밝힌 관용어의 개념과 범주를 바탕으로 각 교재별로 해당하는 관용어를 뽑아 새롭게 제시하기로 한다. 즉, 관용어를 다의어, 은유표현, 상용구절, 속담 등과 구별되는 범주로서 특히 '그림의 떡'과 같은 체언형 관용어의 경우 속담이 아닌 관용어로 분류하여 이하에서 제시한 관용어 목록에 포함하여 제시한다.

---

20) 문금현(1998)에서 분석 대상으로 삼은 교재는 다음과 같다.
① 연세대 한국어학당 (1992-1994), 『한국어1-6』
② 서울대 어학연구소 (1993-1995), 『한국어1-6』
③ 고려대 민족문화연구소, (1986), 『한국어1-4』
④ 고려대 민족문화연구소, (1986-1991), 『한국어1-4』
⑤ 대한민국 문화부 (1992), 『한국어 I -III』
⑥ 한국외국어대학교 한국어연수원 (1996), 『한국어1-3』
또한, 관용어 범위를 문금현(1996ㄴ)에서는 관용어, 관용구절, 순수 관용문까지로 보고 속담이나 상용구절, 순수 은유표현 또는 순수 직유표현은 제외하였으나, 문금현(1998)에서는 외국인의 경우 이를 구별할 필요가 없다고 보아 속담을 제외하고는 모두 포함시켰다.

1) 고려대학교 한국어 교재 『한국어 1~6』, 『한국어 회화 1~6』

고려대학교의 『한국어』 교재에 제시된 관용어 목록은 다음과 같다.

<표 6>[21] 고려대학교 『한국어』 관용어 목록

권	고려대학교 『한국어』 관용어 목록	합계[22]	누계[23]
1	마음에 들다	1	1
2	눈에 띄다/마음에 들다/신경을 쓰다	2	3
3	까마귀 고기를 먹다/낯이 익다/녹초가 되다/누워서 떡먹기/눈 뜨고 볼 수 없다/딱지를 떼다/땅 짚고 헤엄치기/마음에 들다/마음이 통하다/마음이 풀리다/문을 닫다/바람쐬다/벼락치기하다/설마가 사람 잡다/소귀에 경 읽기/속상하다/손짓발짓하다/식은 죽 먹기/애를 먹다/애쓰다/코 끝이 찡하다/하늘의 별따기/한 잔 하다	22	23
4	문을 닫다/빠져나갈 구멍이 없다/속상하다/속 썩이다/식은 죽 먹기/신경 쓰다/안성맞춤이다/애쓰다/얼굴이 붉그락푸르락하다/줄다리기를 하다/큰소리를 치다/한 배를 타다/호흡을 맞추다	8	13
5	개밥의 도톨이/국수 먹다/귀를 기울이다/그림의 떡/꿀 먹은 벙어리/꿩 대신 닭/너나 할 것 없이/눈 감아 주다/눈에 들다/눈에 선하다/눈을 뜨다/눈이 높다/눈이 맞다/눈이 밝다/눈이 어둡다/눈코 뜰 새(가) 없다/돌아가시다/머리를 맞대다/머리를 식히다/바가지(를) 긁다/바람 맞다/바람 피우다/발을 빼다/(야단)법석을 떨다/부채질하다/빛 좋은 개살구/새발의 피/손을 보다/손을 끊다/손을 내밀다/손을 씻다/ 손을 잡다/손이 모자라다/손이 크다/수박 겉 핥기/싼게 비지떡/애를 쓰	52	55

21) 교재에서 관용 의미가 아닌 축자적인 의미로 사용된 어휘는 관용어에서 제외하였고, 긍정형과 부정형이 모두 가능한 관용어는 긍정형만을 표제어로 삼아 제시하였다. 그러나 피·사동형의 경우에는 이를 그대로 제시하였다.

	다/야단법석이다/얼굴이 붉그락푸르락하다/오리발을 내밀다/우물 안 개구리/입에 풀칠하다/입이 가볍다/입이 무겁다/자다가 남의 다리 긁다/자리 잡다/장가가다/제 눈의 안경/코가 납작해지다/코웃음을 치다/콧대가 높다/풀이 죽다/한 잔 사다/한 잔 하다/허리띠를 졸라매다		
6	가슴이 부풀어 오르다/기가 막히다/가슴을 조이다/넋을 잃다/눈앞이 아찔하다/눈 흘기다/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다/뜨거운 감자/마음을 끓이다/맥이 풀리다/비가 오나 눈이 오나/애(를) 쓰다/애(가) 타다/이를 악물다	12	14
총계		97	109

고려대학교의 『한국어』 교재에 제시된 관용어 목록의 총계를 볼 때 5권에 55개로 지나치게 집중되어 위계적이지 못하다. 이는 관용어를 염두에 두고 단계에 따라 체계적으로 분배한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다. 또한, 목록 선정에 있어서도 단계별 고려가 미흡하다. 가령, '눈이 밝다', '눈이 높다'와 같은 것은 신체 관용어로 구성 어휘가 쉬움에도 불구하고 고급 과정인 5권에서 제시하고 있는가 하면, 3권에는 구성 어휘가 학습자의 수준에 맞지 않은 '녹초가 되다'나 '소 귀에 경 읽기' 등과 같은 것을 제시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피·사동형은 고급 과정에서 배우는 문법임에도 불구하고 사동형인 '속 썩이다'를 4권에 제시하고 있다.

한편, 고려대학교의 『한국어 회화』 교재에 제시된 관용어 목록은 다음과 같다.

---

22) '합계'는 전 단계에서 이미 제시된 관용어를 제외한 수로, 해당 단계에서도 같은 관용어가 중복 제시되면 이를 하나로 취급하여 '합계'에 포함시킨다. 가령, '마음에 들다'가 이미 1권에서 나왔다면 2권 이상에서는 이를 개수에 포함시키지 않는다. 또한 1권에서 '마음에 들다'가 여러 차례 제시되었더라도 이를 하나로 취급하기로 한다.

23) '누계'는 전 단계에서 제시된 관용어까지 포함시킨 수이다, 단, 해당 단계에서 같은 관용어가 중복 제시되면 이를 하나로 취급하여 '총계'에 포함시킨다.

<표 7> 고려대학교 『한국어 회화』 관용어 목록

권	고려대학교 『한국어 회화』 관용어 목록	합계	누계
1	마음에 들다	1	1
2	눈치 채다/마음에 들다/말을 듣다/속상하다/한 잔 하다/해가 서쪽에서 뜨다	5	6
3	날개 돋히다/눈에 거슬리다/땀을 흘리다/마음에 들다/손금을 보다/얼굴이 빨개지다/얼굴이 하얘지다/큰소리 치다	7	8
4	(얼굴이) 붉으락 푸르락하다/간에 기별도 안 가다/꿩 대신 닭/낯이 익다/마음에 들다/말도 안 되다/손 하나 까딱 안 하다/안성맞춤이다/애 태우다/애 쓰다/주먹(을) 쓰다/한 잔 사다/한 잔 하다/한 턱 내다	12	14
5	귀빠진 날/길눈이 어둡다/깨가 쏟아지다/더위를 먹다/돌아가시다/뜸 들이다/마음에 들다/막을 내리다/막을 올리다/머리를 식히다/바가지를 쓰다/바람을 쐬다/신경 쓰다/한 턱 내다	12	14
6	빰치다/가슴에 담아 두다/감투 쓰다/걸신 들리다/검은 머리 파뿌리 되다/굴러 들어온 복/귀 빠지다/기가 막히다/기분 잡치다/길눈이 어둡다/깜깜 소식이다/날 (을) 잡다/내 사전에 없다/눈이 뒤집히다/다리를 놓다/더위 먹다/돌아가시다/면목이 없다/면사포를 쓰다/몸으로 때우다/물가에 내 놓은 자식/바람(이) 나다/백년가약을 맺다/별세하다/불똥 튀다/비위를 건드리다/세상을 떠나다/속을 썩이다/손 보다/손이 크다/숨을 거두다/썩어도 준치 애 늙은이/언성을 높이다/얼굴을 펴다/영원히 잠들다/오지랖 넓다/입김이 작용하다/입맛에 맞다/입이 나오다/잡재워 버리다/저 세상으로 가다/짚신도 제 짝이 있다/콧대 세우다/큰 코 다치다/한 술 더 뜨다/한 주먹감/한잔 하다/화촉을 밝히다	44	48
총계		81	91

『한국어 회화』는 교재명에서도 알 수 있듯 회화를 위한 교재로서 구어에 무게를 두고 있으나 앞서 말했듯 제시된 관용어 수가 『한국어 회화』에 비해 오히려 적다. 그리고 6권은 '무동이네 집'이나 '한 지붕 세가족'과 같은 관용어가 많이 등장하는 드라마 대본을 싣고 있는데 이로 인해 6권에

지나치게 많은 관용어가 집중되어 있다.

2) 서울대학교 어학연구소 『한국어 1~4』

서울대학교의 『한국어』 교재에 제시된 관용어 목록은 다음과 같다.

<표 8> 서울대학교 『한국어』 관용어 목록

권	서울대학교 『한국어』 관용어 목록	합계	누계
1	없음	0	0
2	마음에 들다/입에 맞다/한 잔 하다/한 턱 내다	4	4
3	귀가 가렵다/기가 막히다/눈이 높다/돌아가시다/마음에 들다/말이 되다/문을 닫다/발이 넓다/속상하다/손발이 맞다/손 보다/손이 크다/하늘의 별 따기/한 잔 사다/ 한 잔 하다/한 턱 내다	13	16
	듣기 : 눈이 높다/마음에 들다/말이 되다/문(을) 닫다/손 보다/하늘의 별따기	0	6
4	골치 아프다/국수를 먹다/귀를 기울이다/그림의 떡/깨가 쏟아지다/너나 할 것 없이/누워서 떡 먹기/눈이 빠지다/돌아가시다/마음(을) 먹다/마음에 들다/마음을 바치다/마음을 붙이다/미역국을 먹다/바가지 긁다/바가지 쓰다/비행기 태우다/손꼽아 기다리다/숨이 막히다/신경 쓰다/아이나 어른이나 할 것 없이/얼굴 내밀다/야단이다/우물 안 개구리/입이 가볍다/입이 무겁다/주머니가 가볍다/틀에 박히다/한숨만 쉬다/한 턱 내다	27	30
	듣기 : 기가 막히다/마음이 가볍다/마음에 들다/마음을 붙이다/손길을 보내다/손꼽아 기다리다/신경 쓰다/애쓰다/한턱 내다	3	9
총계		47	65

서울대학교 『한국어』는 4권으로 이루어져 제시된 관용어 수가 가장 적지만, 관용어 다른 교재에 비해 수적으로 위계적인 관용어 분포를 보인다. 그리고 3권까지는 근접투명성 관용어인 신체 관용어가 많지만 4권부터는

불투명성 관용어가 많다.

3) 선문대학교 한국어 교육원 『한국어 초급 1~2』, 『한국어 중급 1~2』, 『한국어 고급 1~2』

선문대학교의 『한국어』 교재에 제시된 관용어 목록은 다음과 같다.

<표 9> 선문대학교 『한국어』 관용어 목록

권	선문대학교 『한국어』 관용어 목록	합계	누계
초급1	돌아가시다/마음에 들다	2	2
초급2	돌아가시다/마음에 들다/한턱 내다	1	3
중급1	그림의 떡이다/돌아가시다/마음에 들다/식은 죽 먹기/우물 안개구리/코웃음을 치다/큰소리 치다/티끌 모아 태산/한턱 내다	6	9
중급2	마음 먹다/마음에 들다/신경 쓰다/야단(법석)이다/얼굴이 빨개지다/한턱 내다	4	6
고급1	간 떨어지다/간담이 내려앉다/간담이 서늘하다/간에 기별도 안 가다/간이 콩알만해지다/고개를 젓다/고개를 떨구다/고개를 흔들다/골머리를 썩이다/골머리를 앓다/골치 아프다/골치를 썩이다/골치를 앓다/골칫덩어리/골탕을 먹다/귀에 거슬리다/기가 막히다/길눈이 어둡다/깨가 쏟아지다/꿩 구워 먹은 소식/눈 앞에 선하다/눈앞이 캄캄하다/눈앞이 아찔하다/눈썹도 까딱 안하다/눈을 팔다/눈에 거슬리다/눈에 선하다/눈이 빠지도록/눈 코 뜰 새 없다/단꿈에 빠지다/달달 볶다/돈방석에 앉다/돌아가시다/두각을 나타내다/들들볶다/들통(이) 나다/마음 먹다/마음에 거슬리다/마음에 들다/마음은 굴뚝같다/마음을 쓰다/머리가 아프다/목이 빠지다/바람을 넣다/바람을 맞다/바람을 일으키다/발 디딜 틈이 없다/발이 넓다/발로 뛰다/보조를 맞추다/비위에 거슬리다/빈손으로/손꼽히다/손이 가다/안성맞춤이다/애(가) 타다/애를 쓰다/야단법석이다/	61	66

	입에 맞다/입이 가볍다/입이 무겁다/입이 짧다/입추의 여지가 없다/한눈에/한눈을 팔다/한턱 내다		
고급2	가슴을 조이다/가슴에 와 닿다/가슴이 뭉클하다/가슴이 찡하다/골치가 아프다/골칫거리다/골탕을 먹다/귀가 가렵다/귀가 간지럽다/귀가 솔깃하다/귀에 못이 박히다/꿈 깨다/꿈도 못 꾸다/꿈도 야무지다/꿈에도 생각하지 못 하다/낯설다/두 말 할 필요가 없다/땡잡다/들통이 나다/마음에 들다/마음은 콩밭에 가 있다/마음이 가볍다/말문이 막히다/말도 안 되다/말을 놓다/말을 돌리다/몸이 열 개라도 모자라다/밑거름이 되다/바가지 긁다/불시가 남다/뻗으면 손 닿을 (데)/뼈를 깎다/뿌리 깊다/사람을 잡다/산통(을) 깨다/살얼음판을 걷다/살얼음판을 밟다/살을 깎다/살을 도려내다/살을 붙이다/상다리가 휘어지다/생사람 잡다/성을 갈다/속을 썩이다/속을 털어놓다/손가락에 장을 지지다/손도 못[안] 대다/손을 쓰다/시집가다/애쓰다/애타다/야단(법석)이다/어깨춤이 나오다/엎어지면 코 닿을 (데)/입이 가볍다/입이 무겁다/입이 짧다/자리를 만들다/장가가다/저 세상으로 가다/진이 빠지다/코끝이 찡하다/콧날이 시큰해지다/큰 코 다치다/학을 떼다/한숨(을) 쉬다/한시름 놓다/한턱 내다	58	68
총계		132	154

선문대 중급 1, 2는 속담과 고사성어를 매과에서 제시하여 학습을 유도하지만, 관용어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학습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때문에 6권으로 구성된 다른 교재들과 비교해 볼 때 중급 과정에서 제시된 관용어의 수가 현저히 적다. 그리고 전체 교재에 제시된 관용어 90% 이상이 고급단계에 출현하여 고급과정 학습자의 관용어 학습 부담이 크다. 제시된 관용어는 신체관용어가 많지만 역사·사회·문화적 배경을 가지고 있는 관용어 또한 적지 않다.

4) 연세대학교 한국어학당 『한국어 1~6』

연세대학교의 『한국어』 교재에 제시된 관용어 목록은 다음과 같다.

<표 10> 연세대학교 『한국어』 관용어 목록

권	연세대학교 『한국어』 관용어 목록	합계	누계
1	문을 닫다/한 잔 하다/한 턱 내다	3	3
2	마음에 들다/말을 듣다/손보다/한잔 하다/한턱 내다	3	5
3	갈수록 태산/그림의 떡/길눈이 어둡다/꼬리에 꼬리를 물다/낯설다/낯이 익다/눈 코 뜰 새 없다/두 말 않다/마음 놓다/마음 먹다/마음에 들다/문을 닫다/색안경을 끼고 보다/신경 쓰다/앉으나 서나/오나 가나/입에 맞다/자나 깨나/자리를 만들다/한숨이 나오다/한잔 사다/한 턱 내다	19	22
4	고개가 숙여지다/국수(를) 주다/귀를 기울이다/기가 막히다/남녀노소 할 것 없이/낯을 가리다/낯이 익다/너 나 할 것 없이/누워서 떡 먹기/눈 깜짝할 사이/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다/눈여겨 보다/눈코 뜰 새 없다/돌아가시다/뜸을 들이다/마음 먹다/마음 놓다/마음에 담다/마음에 들다/마음을 털어 놓다/마음의 문을 열다/마음이 맞다/말을 듣다/머리를 쓰다/문(을) 닫다/미역국을 먹다/믿는 도끼에 발등 찍히다/바람맞다/버스가 지난 후에 손을 들다/빈손으로/속상하다/손(을) 보다/손 없는 날/손가락 하나 움직이지 않다/손꼽아 기다리다/손에 안 잡히다/손이 가다/신경(을) 쓰다/안성맞춤이다/애(를) 쓰다/야단(법석)이다/어깨가 무겁다/어른 아이 할 것 없이/웬 떡이냐/입에 담다/입에 맞다/입이 무겁다/제자리를 찾다/쥐꼬리만하다/피는 못 속이다/한 치 앞을 모르다/한 턱 내다	43	52
5	(누구)빰치다/(잘못을) 뒤집어 쓰다/거리가 멀다/걱정이 태산/검은 머리가 파뿌리가 되도록/구미가 당기다/국물도 없다/군침이 돌다/귀를 기울이다/그림의 떡/김칫국부터 마시다/꼬리가 길면 잡히다/꿀먹은 벙어리/꿈도 안 꾸다/낯이 익다/너나 할 것 없이/너도 나도/누워서 떡먹기/눈감아 주다/눈앞이 캄캄하다/눈에 띄다/눈치를 채다/눈 코 뜰 새 없다/돌아가시다/마음에 들다/마음을 돌리다/마	71	90

	음을 잡다/마음을 터 놓다/마음이 무겁다/맥이 풀리다/머리를 짜다/면목이 없다/목에 힘주다/몸에 배다/몸으로 때우다/문(을) 닫다/바람을 쐬다/밖으로만 나돌다/발 디딜 틈도 없다/밤낮/밤이나 낮이나/배보다 배꼽이 크다/보조를 맞추다/볼 낯이 없다/북새통이다/비위를 맞추다/빈손으로/속상하다/손을 대다/손을 떼다/식은 죽 먹기/신경 쓰다/십 년 감수하다/싼게 비지떡/안성맞춤이다/애(가) 타다/애간장이 타다/애를 먹다/애쓰다/야단이다/엎지른 물/엎친 데 덮친 격/올챙이 적 생각 못 하다/우는 소리하다/우물 안 개구리/웬 떡이야/이름을 날리다/입맛에 맞다/입씨름하다/입에 맞다/입이 가볍다/입이 닳다/입이 무겁다/자리값(을) 하다/제 눈에 안경/주머니 사정/쥐구멍에 들어가다/청장 높은지 모르다/콩으로 메주를 쑤어도/큰손/풀이 죽다/피땀 흘리다/하늘 높은 줄 모르다/하늘의 별따기/한 우물을 못 파다/한 걸음 더 빨라지다/한눈에/한턱내다/한풀 꺾이다/해가 서쪽에서 뜨겠다		
6	간이 콩알만 하다/감나무 밑에서 감 떨어지기만 기다리다/거울 삼다/걸음마 단계/검은 돈/군침이 돌다/귀가 솔깃하다/귀띔해 주다/귀에 못이 박히다/금슬이 좋다/금이 가다/기가 막히다/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다/깨가 쏟아지다/꼬리가 길면 밟힌다/꽁무니를 빼다/날개 돋치다/남의 손에 넘겨주다/낯설다/낯을 가리다/낯이 두껍다/낯이 익다/너나 할 것 없이/누워서 떡먹기/눈 뜬 장님/눈앞에 보이다/눈 앞이 아찔하다/눈 감아 주다/눈길을 주고받다/눈 깜짝할 도안/눈먼 돈/눈 밖에 나다/눈에 익다/눈을 돌리다/눈을 뜨다/눈이 멀다/눈이 어둡다/눈이 오나 비가 오나/눈총을 받다/눈치(를) 채다/눈 코 뜰 새 없다/다 된 밥에 재를 뿌리다/돌아가시다/도장 찍다/둘도 없다/잡아떼다/땀을 흘리다/뚜껑을 열어봐야 안다/마음 놓다/마음먹다/마음 잡다/마음에 들다/마음이 굴뚝같다/마음을 돌리다/마음을 터놓다/마음이 가볍다/말(을) 듣다/말도 안 되다/말이 아니다/매듭짓다/머리 꼭대기까지 기어오르다/머리가 아프다/몇 손가락 안에 들다/목에 힘 주다/ 몸이 열 개라도 모자라다/문턱이 높다/물 찬 제비/미역국을 먹다/미주알 고주알/바가지를 긁다/바가지를 씌우다/바람 쐬다/발길이 뜸하다/발등에 불을 끄다/발등에 불이 떨어지다/발등을 찍다/발(을) 붙다/발뺌하다/백번 다 옳다/보조를 맞추다/부채질하다/비 맞은 생쥐 꼴/비위가 뒤집히다/비위가 상하다/비위가 좋다/비위를 건드리다/비위를 긁다/	118	152

	비위에 거슬리다/비위에 맞다/빛을 보다/빰치다/뼈대(가) 있다/뼈를 깎다/뾰족한 수가 생기다/뿌리내리다/산더미처럼 쌓이다/설 자리가 없다/속을 썩이다/속을 터 놓다/속이 좁다/손꼽다/손발이 맞다/손을 대다/손을 떼다/손을 보다/손을 쓰다/손이 모자라다/시집가다/시치미를 떼다/신경을 쓰다/쌍수를 들다/쑥밭이 되다/앓느니 죽는다/앓던 이가 빠지다/앞뒤가 맞지 않다/애쓰다/애(가) 타다/야단(법석)이다/어깨가 무겁다/어깨춤이 절로 나다/얼굴이 붉으락푸르락 하다/엎질러진 물/열을 올리다/외눈 하나 깜짝하지 않다/우물 안 개구리/운전대를 잡다/울며 겨자 먹기/입씨름하다/입에 대다/입을 다물다/점찍다/줄행랑치다/쥐꼬리만하다/코가 땅에 닿도록/코앞에 있다/큰소리 치다/큰 코 다치다/파리 날리다/팥 없는 찐빵/펜을 놓다/피눈물 나다/피땀 어리다/하늘의 별 따기/하늘이 무너지다/한솥밥을 먹다/한 입 가지고 두 말 하다/한잔 사다/한잔하다/한턱 내다/허리띠를 졸라매다/호흡이 맞다/힘에 부치다		
총계		257	324

연세대 『한국어』에는 현행 한국어 교재 가운데 가장 많은 관용어를 제시하고 있으며, 다른 교재들에 비해 이미 학습한 관용어의 반복 제시 비율이 높아 학습자가 반복 학습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보다 많다. 그러나 고급 단계에 관용어를 지나치게 많이 배치하여 학습자에게 학습 부담을 줄 수 있다. 또한, 관용어는 대부분 본문이나 예문의 내용 흐름상 선정된 것으로 보이는데, 때문에 학습자의 단계에 적절하지 않은 관용어가 많다. 가령, '입이 무겁다'나 '밤낮'과 같이 쉬운 관용어는 중급이나 고급 과정에, 고급 과정에서 배우는 피동형이 포함된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히다'는 중급 과정에 제시하고 있다. 이처럼 학습 단계에 맞게 관용어가 선정되지 않을 경우, 교육 현장에서 수업 진행에 장애가 생길 뿐만 아니라 학습자에게 혼란이나 흥미 저하를 야기할 수 있으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해 학습 단계별로 적절한 수와 목록을 미리 마련해야 할 것이다.

5) 이화여자대학교 언어교육원 『말이 트이는 한국어 Ⅰ~Ⅳ -Student Book』, 『말이 트이는 한국어 Ⅰ~Ⅳ -Work Book』

이화여자대학교의 『말이 트이는 한국어- Student Book』 교재에 제시된 관용어 목록은 다음과 같다.

<표 11> 이화여자대학교 『말이 트이는 한국어 - Student Book』 관용어 목록

권	이화여자대학교 『말이 트이는 한국어 - Student Book』 관용어 목록	합계	누계
1	더위를 먹다/마음에 들다/마음이 넓다/바람 맞다/한잔 하다	5	5
2	군침이 돌다/귀가 가렵다/귀가 아프다/귀가 얇다/꿈(을) 꾸다/눈감아 주다/눈앞이 캄캄하다/눈이 높다/마당발/마음에 들다/머리에 든 것이 없다/모가 나다/바가지를 긁다/바가지를 쓰다/바람을 맞다/바람을 쐬다/바람을 피우다/발 벗고 나서다/발을 끊다/발이 넓다/상다리가 부러지다/손을 잡다/손이 모자라다/손이 크다/입에 맞는 떡/입에 맞다/입이 무겁다/입이 짧다/재미(를) 붙이다/코앞에 닥치다/코에 붙이다/콧대가 높다/한잔 하다/한턱 내다	31	34
3	귀에 거슬리다/그림의 떡/꿀 먹은 벙어리/꿈(을) 꾸다/꿈에도 모르다/꿈에서 깨다/낙동강 오리알/눈 감아 주다/눈에 띄다/들통이 나다/마음에 들다/마음이 맞다/바가지를 긁다/비위에 맞다/심천포로 빠지다/손가락에 장을 지지다/손에 칼만 안 들었다/손이 발이 되도록/손이 가다/십 년 감수하다/자리 잡다/자리를 만들다/제 눈에 안경/쥐꼬리만하다/풀이 죽다/하나부터 열까지/하늘의 별따기/한잔 사다/한잔 하다/한턱 내다	24	30
4	(떡 줄 사람은 생각도 않는데) 김칫국부터 마시다/기가 막히다/꼬리에 꼬리를 물다/꿈(을) 꾸다/꿈도 못 꾸다/꿩 구워 먹은 소식/냄새를 맡다/눈살을 찌푸리다/눈에 띄다/눈이 어둡다/눈치코치가 없다/도마에 오르다/뒤통수를 치다/듣기 좋은 노래도 한두 번이다/말이 많다/말이 나다/말이 씨가 되다/물거품이 되다/발 뻗고 자	43	46

	다/발등에 불이 떨어지다/배꼽(을) 잡다/배부른 소리를 하다/색안경을 끼고 보다/세월이 약이다/속상하다/속을 털어놓다/속이 타다/손가락질을 받다/손때가 묻다/숨을 거두다/야단이다/옷이 날개다/으름장을 놓다/주머니를 털다/죽이 맞다/쥐뿔도 없다/천하면 삼천리/침을 흘리다/큰소리치다/파김치가 되다/한 눈을 팔다/한 뿌리에서 나오다/한 턱 내다/해가 서쪽에서 뜨겠다/허리띠를 졸라매다/허파에 바람 들다		
총계		103	115

『말이 트이는 한국어 - Student Book』 2권에서는 관용어 내부 핵심어가 같은 것을 3개씩 묶어 제시하고 있는데, 이는 관용어 목록 선정이 계획적으로 이루어졌음을 의미한다. 그러나 3권에는 2권에서 보였던 체계가 반영되지 않고 있으며 제시된 관용어 수도 2권에 비해 적다. 4권에서는 다시 관용어를 3개씩 묶어 제시하고 있으나 2권처럼 어휘 확장을 꾀하는 구성을 취하고 있지는 않다.

관용어 선정에 있어서는 2권에서 학습하기 쉽고 사용 빈도가 높은 신체 관용어를 주로 제시하고 있는데 3권과 4권에서는 근접투명성 관용어 외에도 반불투명성과 불투명성 관용어가 포함되어 있어 난도의 위계성이 고려되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이화여자대학교의 『말이 트이는 한국어- Work Book』 교재에 제시된 관용어 목록은 다음과 같다.

<표 12> 이화여자대학교 『말이 트이는 한국어 - Work Book』 관용어 목록

권	이화여자대학교 『말이 트이는 한국어 - Work Book』 관용어 목록	합계	누계
1	더위를 먹다/마음에 들다/한잔 하다	3	3

2	군침이 돌다/귀가 가렵다/귀가 보배다/귀가 아프다/귀가 얇다/꿈(을) 꾸다/내 코가 석자다/눈 감아 주다/눈앞이 캄캄하다/눈에 익다/눈이 높다/눈이 멀다/눈이 밝다/눈 코 뜰 새 없다/돌아가시다/마당발/마음에 들다/바가지를 긁다/바가지를 쓰다/바람을 잡다/바람을 피우다/발 뻗고 자다/발등에 불 붙다/발 벗고 나서다/발뺌하다/발을 끊다/발이 넓다/상다리가 부러지다/손을 보다/ 손을 씻다/손을 잡다/손이 모자라다/손이 크다/엎어지면 코 닿는다/입에 맞다/입을 모으다/입이 가볍다/입이 무겁다/입이 아프다/입이 짧다/재미(를) 붙이다/코가 납작해지다/코를 찌르다/코앞에 닥치다/코에 붙이다/콧대가 높다/한턱 내다	46	47
3	뒤집어 씌우다/그림의 떡/꿈에도 모르다/꿈에서 깨다/꿈을 꾸다/누워서 떡먹기/눈 감아 주다/눈이 빠지도록/마음에 두다/마음에 들다/마음을 먹다/마음을 비우다/마음이 넓다/마음이 맞다/목이 잠기다/목이 터지다/바람 쐬다/바람 맞다/배가 터지다/벼락치기/빈손으로/손가락에 장을 지지다/손에 익다/손을 끊다/손이 가다/손이 발이 되도록 빌다/손이 열 개라도 모자라다/손이 크다/식은 죽 먹기/십 년 감수하다/엎드려 절 받기/자리 잡다/자리를 만들다/제 눈에 안경/주머니가 넉넉하다/쥐꼬리만 하다/풀이 죽다/하늘의 별 따기/한눈에/한잔 사다/한잔 하다/한턱 내다	34	42
4	(떡 줄 사람은 생각도 않는데) 김칫국부터 마시다/(입에) 침이 마르다/군침이 돌다/꼬리가 길다/꼬리가 잡히다/꼬리에 꼬리를 물다/꼬리표가 붙다/꿈 꾸다/꿩 먹고 알 먹고/꿩 구워 먹은 소식/꿩 대신 닭/냄새를 맡다/누워서 침뱉기/눈 뜨고 볼 수 없다/눈을 감다/눈을 붙이다/눈을 씻고 보다/눈이 어둡다/눈치코치가 없다/도깨비에 홀리다/도마에 오르다/돌아가시다/둘이 먹다 하나가 죽어도 모르다/뒤통수를 치다/듣기 좋은 노래도 한두 번이다/마음에 들다/말이 나다/말이 씨가 되다/물거품이 되다/물불을 가리지 않다/발 맞추다/발 벗고 나서다/발 뻗고 자다/발등에 불이 떨어지다/배가 아프다/배꼽을 잡다/배부른 소리하다/범벅이 되다/물 샐 틈이 없다/색안경을 끼고 보다/세상을 뜨다/세월이 약이다/소리 소문도 없이/속상하다/속을 털어 놓다/속이 타다/손가락질을 받다/손때가 묻다/숨을 거두다/숨을 죽이다/십 년 감수하다/옷이 날개다/으름장을 놓다/입이 무겁다/자리를 뜨다/잡아 떼다/주머니를 털다/죽는 소리를 하다/죽이 맞다/쥐꼬리만하다/쥐뿔도 없다/찬물	60	70

	을 끼얹다/척하면 삼천리/침을 흘리다/파김치가 되다/한 눈을 팔다/한잔 하다/해가 서쪽에서 뜨겠다/허리띠를 졸라매다/허물(이) 없다/허파에 바람(이) 들다		
총계		143	162

『말이 트이는 한국어 - Work Book』은 『말이 트이는 한국어 - Student Book』에 제시된 관용어를 모두 포함하고, 여기에 보태어 연습문제 등에서 어휘 확장을 꾀하기 위해 핵심어가 같은 관용어를 제시하고 있어서 전체 관용어의 수는 『말이 트이는 한국어 - Student Book』보다는 많다. 또한 『말이 트이는 한국어 - Student Book』과 마찬가지로 2권에서는 근접투명성 관용어인 신체관용어를 중심으로 싣고, 차츰 단계가 높아질수록 어원을 가진 불투명성 관용어의 수를 늘려 제시하고 있다.

3. 관용어 학습 방법

각 교재별 관용어 학습 방법 검토를 통해 수업 현장에서 학습자가 어떻게 관용어를 익혔는가를 가늠해 볼 수 있다. 이에 각 교재별로 이를 살펴보기로 한다.

1) 고려대학교 한국어 교재 『한국어』, 『한국어 회화』

① 『한국어』

『한국어』는 각 권이 20과씩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권별 단원구성은 다음과 같다.

1권·2권 : 본문 - 새단어 - 기본문형 - 연습 - 새단어

3권·4권·5권 : 본문 - 기본문형 - 연습

6권 : 본문

1권에는 '마음에 들다' 하나가 제시되어 있고 2권에서는 ',눈에 띄다, 마음에 들다, 신경을 쓰다'로 총 3개가 출현하는데 이들 관용어는 모두 '새단어'에 제시되어 영어와 일어로 번역되어 있다. 그러나 관용어인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의 구분 없이 '새단어'에 함께 제시되어 있어 학습자가 교사의 지도가 없이는 해당 어휘가 관용어인지 알기 어렵다.

중급에 해당하는 3권부터는 그나마 '새단어' 항목도 없어 교사의 지도가 없이는 관용어 학습이 거의 불가능하다. 뿐만 아니라 3권에는 총 22개의 관용어를 싣고 있는데 관용어 학습을 위해 구성된 것이 아니라 문장 흐름상 출현한 것이기에 제시라기보다는 노출에 가깝다.

<표 13>[24] 각 항목별로 제시된 관용어의 개수

제시 부분 / 권	본문	기본문형	연습
3권[관용어 개수(비율)]	6(약 28%)	13(약 60%)	3(약 14%)
4권[관용어 개수(비율)]	1(약 13%)	7(약 88%)	0(약 0%)
5권[관용어 개수(비율)]	40(약 77%)	11(약 21%)	1(약 2%)

<표 13>은 각 항목별 제시된 관용어의 개수와 비율을 나타낸 것인데 표에서 알 수 있듯 5권을 제외하고 3권과 4권에서 기본문형에 등장하는 관용어의 비율이 가장 높다. 학습 흐름상 '본문'을 가장 비중 있게 다루기 마련이므로 문형학습이 중심인 '기본문형'에 관용어의 등장 비율이 높은 것은

24) 퍼센트는 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나타냄.

바람직하지 않다. 이는 '기본문형'은 기본문형을 학습하기 위해 마련된 항목으로 본문에서처럼 문장 속에 등장하는 어휘나 다른 문형을 익히는데 큰 비중을 두지 않아, 각각의 문형에 제시된 예문의 구조나 어휘를 꼼꼼히 살피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또 단원을 마무리하고 학습한 내용을 확인하는 단계인 '연습'에 새로운 관용어의 등장하는 것 역시 원활한 확인 학습을 방해할 뿐만 아니라 체계 없이 등장하는 관용어로 인해 학습자의 학습 부담을 줄 수 있어 적합하지 않다.[25] 따라서 교재에 관용어가 따로 제시되어 학습할 수 있도록 구성하지 않을 경우에는 관용어를 본문에 먼저 제시하여 학습한 후에 기본 문형이나 연습에 등장시켜 반복학습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리라 본다.

5권과 6권은 고급 과정에 해당하는데 6권은 독본을 위해 구성된 것으로 교재 전체가 본문으로만 엮어져 있다. 때문에 관용어가 등장하기는 하나 관용어 학습을 위한 배려가 전혀 되어 있지 않다. 그나마 5권은 『한국어』 교재에서 유일하게 관용어를 주제로 다룬 단원이 포함되어 관용어 교육에 대한 고려가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제12과 싼 게 비지떡이 무슨 뜻이지요?'에서는 5권에 제시된 52개의 관용어 가운데 32개의 관용어가 등장하여 전체의 62%에 해당하는 관용어가 한꺼번에 제시되어 있어 관용어 학습이 자칫 학생들에게 암기의 부담으로 작용하여 학습 효과를 오히려 떨어뜨릴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본문의 문장 속에 활용되어 제시된 관용어는 '눈코 뜰 새가 없다', '국수 먹다' 정도에 불과한데다 '국수 먹다'를 제외하고는 관용어의 의미 제시 없이 단순히 나열하여 학습자의 암기 부담을 더욱 가중시키므로 효과적인 방법이라 할 수 없다. 『한국어』 5권의 머리말에서는 학습자가 한국 사회와 문화를 이해하는 데 필요한 주제와 어휘를

25) '연습'은 학습자가 이미 배운 내용을 확인하는 단계로 이후 '4. 확인 학습'에서 다시 다루기로 한다.

소개한다고 하였다. 물론 관용어는 외국인 학습자가 한국의 문화나 사회를 이해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어휘임은 분명하다. 그러나 이를 제시할 때 한국의 문화나 사회를 알 수 있는 유래나 의미 설명이 없이 관용어의 단순 나열로만 되어 있다면 외국인 학습자가 이들 어휘를 통해서 한국의 문화나 사회를 이해하는 데 어려움이 따를 것이다.

② 『한국어 회화』

『한국어 회화』 1권에서 5권까지는 각각 20과씩으로 구성되어 있고 6권만이 총 15과로 되어 있다. 각 단계별 단원구성은 다음과 같다.

1권·2권 : 본문 - 새단어 - 기본문형 - 연습 - 새단어
3권·4권 : 본문 - 기본문형 - 연습
5권 : 본문 - 알아 봅시다 -이야기해 봅시다
6권 : 1과~10과 본문 - 알아 봅시다 - 이야기해 봅시다
11과~15과 본문

『한국어 회화』는 독본 교재인 『한국어』 비해 일상 회화에 더욱 역점을 두고자 한 교재임에도 불구하고, 구어적 성격이 강하고 일상 대화에서 많이 사용되는 관용어 학습에 대한 배려는 『한국어』와 크게 다르지 않아, 관용어 학습과 관련하여 『한국어』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을 『한국어 회화』 역시 지니고 있다. 즉, '새단어' 항목이 있는 1권과 2권에 등장하는 관용어는 『한국어』와 마찬가지로 영어와 일어로 번역되어 있기는 하나 관용어를 다른 어휘와 구별하여 제시하지 않아 관용어에 대해 외국인 학습자가 다른 어휘와의 차별을 인식하는데 방해하고 있다. 또한, 3권 이상에서는 '새단어' 항목마저 사라져서 교사의 지도 없이는 관용어 학습이 어렵다.

『한국어 회화』는 외국인 학습자가 한국의 문화나 사회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는 어휘인 관용어를 학습하는데 필요한 유래뿐만 아니라 그 의미조차도 제시하지 않아 관용어 학습 효과를 떨어뜨리고 제시하는 방법이 단순한 나열에 그쳐 학습 효과와 학습자의 흥미를 높이지 못하고 있다.

2) 서울대학교 어학연구소 『한국어 1~4』

『한국어』는 초급, 중급, 중상급, 고급의 네 단계로 구분된다. 각 단계별 교재 구성은 다음과 같다.

1권(전체 30과로 구성) : 1과~10과 본문 - 발음 - 문법 - 어휘
11과~30과 분문 - 발음 - 문법 - 어휘와 표현 - 연습
2권(전체 33과로 구성) : 본문 - 발음 - 문법 - 어휘와 표현 - 연습
3권(전체 34과로 구성) : 본문 - 문법과 표현 - 연습
4권(전체 35과로 구성) : 본문 - 문법과 표현 - 연습

1권에는 관용어가 나타나지 않고 2권에 '마음에 들다', '입에 맞다', '한잔하다', '한턱 내다' 4개의 관용어가 등장한다. 이 가운데 '마음의 들다'를 제외하고는 모두 예문이나 지문을 통해서 제시되며 '마음의 들다'도 아래의 (12)와 같이 '어휘와 표현'에서 관용어가 포함된 문형으로 제시하여 활용 연습을 유도하고 있어 관용어 학습이라기보다는 문형 연습에 가깝다.

(12) **N이/가 (N의) 마음에 들다**
제가 준 선물이 마음에 들어요?
그 집이 제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 친구가 마음에 드세요?

관용어 학습은 3권에서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26과 결혼하려면 아직 멀었어요!'에서는 본문에서뿐 아니라 '문법과 표현'에서 활용예문과 함께 제시되어 수업 현장에서는 교사의 지도 아래 학습자 스스로 활용 예문을 만들어 보는 등의 학습을 할 수 있다. 4권의 '7과 선 봤다는 소문을 들었어'에서는 3권의 26과보다 더 많은 관용어를 '문법과 표현'에 제시하고 있다.

(13) **눈이 높다**

우리 언니는 눈이 높아서 아무나 사귀지 않아요.

그 사람은 눈이 높아서 싼 옷은 입지 않아요.

내 동생은 아무것도 마음에 들지 않는대요. 눈이 높거든요.

서울대학교의 『한국어』는 관용어를 '문법과 표현'에 활용 예와 더불어 한 번 더 제시함으로서 반복 학습의 효과를 주고 있기는 하지만, 관용어의 뜻풀이와 학습자의 흥미도 높일 수 있고 우리나라의 문화나 사회를 이해하는데 큰 도움을 줄 수 있는 어원에 대한 설명을 제시하지 않고 활용 예문만을 싣는데 그쳐 학습 형태가 단조롭다. 뿐만 아니라 '어휘와 표현' 혹은 '문법과 표현'에서는 교재에 제시된 모든 관용어를 다루고 있지도 않다. 예문을 통해 제시된 관용어는 제외하고 (13)과 같은 형태로 제시된 관용어만을 대상으로 하여 표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표 14> '어휘와 표현 · 문법과 표현' 항목에 제시된 관용어 개수

제시항목 / 권	어휘와 표현 · 문법과 표현[26]
1	0/0 (0%)
2	2/4 (50%)
3	3/13 (23%)
4	13/30 (43%)

* '해당 항목에 출현한 관용어 개수/ 해당 권에 출현한 전체 관용어 개수(퍼센트)'를 의미한다.

『한국어』의 '새 단어'항목에서는 관용어와 함께 관용의미를 제시하고 있는 것도 있지만 관용어를 어절 단위로 끊어 단어 형태로 제시하고 있는 것도 있다.[27] 그런데 이처럼 고정된 형태인 관용어는 분리될 경우 관용 의미를 상실하고 만다. 때문에 관용어를 하나의 어휘로 학습자에게 그 의미와 함께 온전히 제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한국어』 3권과 4권의 '듣기'에는 관용어가 등장한다. 이를 통해 학습자는 학습한 관용어가 다시 반복 제시됨으로써 학습 내용을 더욱 확고히 할 수 있는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3권의 '듣기' 지문에 등장하는 관용어는 이미 교재의 지문이나 예문을 통해 제시된 것들이지만 4권의 '듣기'에 등장하는 '마음이 가볍다', '손길을 보내다', '애쓰다'와 같은 경우 듣기를 통해 처음 제시되는 관용어로 듣기의 특성상 이를 학습하기가 어려

26) 2권에서는 항목명이 '어휘와 표현'으로 되어 있고 3권과 4권에서는 '문법과 표현'으로 되어 있다.

27) 4권 '4과 비 올 확률이 높지 않아요'의 '새 단어'에서는 '골치(가) 아프다'를 싣고 '몹시 귀찮다 to be troublesome, to be annoying'로 풀이를 하고 있다. 그러나 '7과 선 봤다는 소문을 들었어'에서는 '바가지 긁다'를 '바가지' 와 '긁다'로 나누어 싣고, 각각을 '물을 푸거나 물건을 담는 그릇 a dipper', '(손톱 등으로) 무엇의 표면을 문지르다 to scratch'로 풀이하고 있다. 따라서, 학습자는 두 단어가 합쳐져 만들어진 관용 의미 '잔소리를 하다'를 익힐 수 없다.

우므로 교재를 구성할 때 유의해야 할 것이다.

3) 선문대학교 한국어 교육원 『한국어』

선문대학교의 『한국어』는 각 권이 10과로 구성되어 있는데, 각 과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초급1·2 : 각 과는 2항으로 나뉘어져 있다. 각 항은 '본문 - 문법 - 그림보고 대화하기 - 유형익히기 - 활용연습 - 번역 - 문화소개'로 구성되어 있다.

중급1·2 : 각 과는 5항으로 나뉘어져 있다. 1항은 대화, 2항은 산문, 3항은 옛날 이야기, 4항은 한자와 고사성어, 5항은 속담과 문화로 구성되어 있다.

고급1·2 : 각 과는 2항으로 나뉘어져 있다. 1항은 '대화 - 본문 내용에 대한 질문 - 문법 연습 - 대화연습 - 한국의 뿌리와 표현'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2항은 '본문- 본문에 대한 질문 - 본문내용 요약 - 어휘연습 - 고사성어 - 한국의 풍속'으로 구성되어 있다.

선문대의 『한국어』 교재는 고급 단계에서 체계적인 관용어 학습이 이루어지고 초급과 중급에서는 '본문'이나 '문법'의 예문을 통해 노출되는 수준에 그친다. 우선 초급1에는 '마음에 들다'와 '돌아가시다'가 제시되어 있는데 이 중 '마음에 들다'는 본문 하단에 마련된 새단어 제시 부분에 '(마음에)들다'로 나와 있다. '들다'와 '마음에 들다'는 엄연히 전혀 다른 어휘이며, '마음에 들다'는 '마음에'와 '들다'를 따로 떼어 놓을 경우 관용 의미가 사라지는 독립된 하나의 어휘로서 '들다'에 종속될 수 없기에 이 둘을 전혀 다른 어휘로 학습자가 인지할 수 있도록 구별하여 각각 따로 제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초급2에서는 관용어를 새단어를 통해 학습하기 전에 이전 과에서 등장하는 경우를 발견할 수 있는데 이와 같은 일은 다른 교재에도 볼 수 있다.[28] 물론 선문대 『한국어』 교재 전반에서 이러한 사례가 비일비재하게 발견되는 것은 아니나 학습 예정인 어휘가 사전의 예문이나 지문 등을 통해 노출되는 것은 어휘 학습 체계상 바람직하지 않기에 유의해야 할 것이다.

선문대 중급 1, 2는 속담과 고사성어를 매과에서 제시하여 학습을 유도하지만 여전히 관용어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학습란이 마련되어 있지 않으며 초급 과정에서와 마찬가지로 지문이나 예문을 통해 제시되는 수준에 그치고 있다.

(14) 관용 표현[29]

ㄱ. 간담이 서늘하다 : 아주 놀라다.

① 사장의 호통에 사원들은 간담이 서늘해졌다.

② 한밤중에 비명 소리를 듣고 간담이 서늘해졌다.

㉢. 간담이 내려앉다.

ㄴ. 간에 기별도 안 가다 : 양이 차지 않다. 먹은 것이 너무 적어 먹으나마나 하다.

① 배가 너무 고파서 라면 한 그릇 가지고는 간에 기별도 안 간다.

② 밥 한 그릇을 세 사람이 나누어 먹었더니 간에 기별도 안 갔다.

ㄷ. 간(이) 떨어지다 : 순간적으로 놀라다.

① 간 떨어지겠어요. 그렇게 큰소리치지 말고 말하세요.

② 차가 급정거하는 바람에 놀라서 간이 떨어질 뻔했다.

---

28) 선문대의 『한국어』 초급2에 등장하는 '한턱내다'를 그 예로 들 수 있다. 그러나 선문대의 『한국어』 교재 외에도 연세대 『한국어』에서도 이러한 예가 발견된다. 이에 대해서는 이후 다시 언급하기로 한다.

29) 교재에는 '관용 표현'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는 관용어 뿐 아니라 속담, 금기어 등을 모두 포괄하는 말로 '관용어'라는 용어로 바꾸어 써야 할 것이다.

㉣. 간이 콩알만해지다.

고급 단계에서는 관용어 학습을 위해서 관용어를 과마다 3개씩 해당 의미와 활용 예문을 함께 제시하고 있다. (14)에서 보듯, 교재에 제시된 관용어는 무작위로 선정된 것이 아니라 관용어 내부의 핵심어가 같거나 유사한 것으로, 이를 3개씩 묶어 제시하되 더불어 이들과 관련된 유의 관용어가 있을 시에는 유의 관용어도 함께 제시함으로서 학습자의 학습 능률을 향상시키고 있다.

(15) 안성맞춤 : 맞춘 것처럼 잘 만들어진 물건이나 일이 잘 들어맞게 된 것을 이르는 말.

경기도 안성에서 만든 유기(놋그릇)는 튼튼하고 질이 좋기로 유명했습니다. 안성 놋그릇은 미리 만들어 장에 내다 파는 '장내기'와 주문에 의해 만드는 '맞춤'이 있었습니다. 안성에 가서 그릇을 맞추면 생각한 대로 마음에 꼭 들었다고 합니다. 이러한 유래로 안성에서 일부러 맞춘 유기처럼 잘 만들어진 물건이나, 잘된 일을 가리켜 '안성맞춤'이라고 하게 된 것입니다.

예) - 그 탁자에 텔레비전을 올려놓으니 아주 안성맞춤인걸.
- 역시 그 목수 아저씨가 만든 신발장은 안성맞춤이야.

'관용 표현' 외에 (15)와 같은 형태로 '어원탐방'에서도 관용어가 등장한다. '안성맞춤이다'의 '안성맞춤'의 뜻이나 사용례뿐만 아니라 그 어원까지 밝혀주고 있어 관용어 학습의 흥미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 대한 이해도까지 높일 수 있다.

그러나 선문대의 『한국어』 교재에서 아쉬운 점은 '관용 표현'이나 '어원탐방'에 제시된 관용어 외에, '문법' 등의 항목에서 예문으로 노출되는 관용

어의 경우에는 이들을 학습하기 위한 별도의 학습 방법이 마련됐을 뿐 아니라 의미조차도 교재를 통해서는 알 수가 없다는 것이다. 또한, 앞서 언급하였듯 어휘체계상 관용어와 동위 범주에 있는 속담이나 고사성어는 중급에서 고급까지 지속적인 학습이 가능하도록 구성되어 있는 반면에 관용어는 고급단계에만 설정되어 관용어 학습이 지나치게 집중되어 있다. 이는 선문대 『한국어』 교재가 속담이나 고사성어에 무게를 두고 있는데 관용어에 대해서도 역시 지속적이고 균형적인 학습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4) 연세대학교 한국어학당 『한국어 1~6』

연세대학교의 『한국어』는 각 권이 10과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과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1·2권 : 대화 - 새 단어 - 문법 - 문형 연습
3권 : 산문 - 대화 - 새 단어 - 문법 - 문형 연습
4·5·6권 : 대화 - 어휘와 문법 - 문형 연습 - 문화해설 - 이야기해 봅시다

『한국어』 교재 1권에서 3권까지는 관용어가 본문이나 문법과 문형 연습의 예문으로 등장하고 이를 새 단어에서 영어 등의 외국어로 번역하는 정도에 그치고 있으며 새 단어에서 뜻이 풀이 된 수도 2권을 제외한 1권과 3권은 전혀 없거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표 15> '새 단어' 항목에 출현한 관용어 개수

제시부분 / 권	새 단어
1	0/3(0%)
2	3/3(100%)
3	8/19(42%)

*{출현 개수/전체 개수(퍼센트)}[30]

반면에 4권에서 6권까지는 1·2·3권에서처럼 지문이나 예문에 단순히 노출되거나 '새 단어'에 해석이 실리는 수준에서 벗어나 '어휘와 문법'을 통해서 (16)과 같이 뜻풀이와 활용 예문을 동시에 싣고 있다.

(16) 국물 : 국, 찌게, 김치 등의 물.
국물이 시원하다.
건더기는 다 남기고 국물만 먹는다.
국물도 없다 : 어떤 일에 대한 노력의 대가로 얼마쯤 생길 때가 있는데 그렇지 않다.
열심히 도와주었는데 국물도 없다.

(17) 눈이 멀다 : 어떤 일에 몹시 마음이 쏠려 이성을 잃다. 눈이 보이지 않게 되다.
돈에 눈이 멀다. 사랑에 눈이 먼 사람.
사랑에 눈이 멀면 자기가 좋아하는 여자 밖에 보이지 않는다.
백내장을 치료하지 않고 방치하면 눈이 멀게 되어 앞을 볼 수 없다.

30) 색인은 새 단어만을 제시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출현 개수와 전체 개수 이미 앞서 제시된 바 있는 관용어를 제외한 새로 등장한 관용어만을 포함시키기로 한다.

(18) 마음만 먹으면 : 무엇을 하겠다는 생각을 가지기만 하면. 결심만 하면.
마음먹기에 달려 있다. 마음을 고쳐먹다.
마음만 굳게 먹으면 못할 일이 없다.
마음만 먹으면 지금이라도 떠날 수 있다.

'어휘와 문법'에서는 본문에 제시된 관용어의 뜻풀이와 활용예문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16)에서 예로 든 '국물'외에도 '구미', '때우다' 등과 관련하여 이들 어휘가 포함된 관용어인 '구미가 당기다', '몸으로 때우다'를 함께 제시하여 단어에서 관용어로 어휘 확장을 함으로써 학습 능률을 높이고 있다. 그러나 (18)에서처럼 관용어의 기본형이 아닌 본문의 활용형을 그대로 옮겨와 제시한 것도 있는데, 이 경우 학습자들이 이를 기본형으로 인식하여 학습자들이 다양한 활용 연습을 하는데 장애가 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제시된 관용어가 '어휘와 문법'에서 모두 다루어지지 않는다는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어휘와 문법을 통해 다루어지는 관용어 수는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으며 대부분이 1·2·3권과 마찬가지로 지문이나 예문에서 노출되는 수준에 그치고 있다.

<표 16> '어휘와 문법' 항목에 출현한 관용어 개수

제시 부분 / 권	어휘와 문법
4	14/43(33%)
5	17/71(24%)
6	30/118(25%)

연세대 『한국어』는 다른 교재들에 비해 제시된 관용어가 많은데 그 가운데 90% 이상이 4·5·6권에 집중되어 있다. 그러나 대부분이 지문이나

예문을 통해 산발적으로 등장하고 있으며, '어휘와 문법'에 등장하는 관용어는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 그리고 그나마 '어휘와 문법'에 제시된 관용어 중에는 반복 제시된 것도 있다.[31] 뿐만 아니라 선문대 『한국어』 교재에서도 지적했듯 연세대 『한국어』에서도 학습하기도 전에 관용어가 전 과나 혹은 전 단계 교재의 예문을 통해 먼저 나타나는 경우가 발견된다.[32]

5) 이화여자대학교 언어교육원 『말이 트이는 한국어-Student Book』[33]

『말이 트이는 한국어-Student Book』은 실생활에서의 언어 사용에 초점을 두고 있는 교재로, 1·2·3권은 15과로 구성되어 있고, 4권은 10과로 구성되어있다. 각 과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1권 : 준비합시다 - 쉽터 - 해봅시다 - 읽기

2권 : 준비합시다 - 쉽터 - 해봅시다 - 관용 표현(홀수과에만 있음) - 읽기 - 쓰기(짝수과에만 있음)

3권 : 준비 - 언어와 사고 - 과제 - 상황표현 - 어휘 확장- 읽기와 쓰기

---

31) 그 예로, '마음 먹다'는 4권과 6권에서 '보조를 맞추다'는 5권과 6권에서 그리고 '야단이다'는 4권과 5권에서 '어휘와 문법'에 각각 반복 제시되어 있다.

32) 그 대표적인 예로, '한턱내다'와 '한잔하다'는 2권의 '새단어'를 통해 제시 및 풀이 되기 전에 1권의 유형 연습에 등장하고 있다. 그리고 2권의 15과 '새단어'에 제시되는 '마음에 들다'도 12과 유형연습에 먼저 등장하며, '애(를) 쓰다'와 '큰손'은 각각 4권과 5권의 '어휘와 문법'에 제시되기 전에 4권의 예문에서 먼저 등장한다.

33) 『말이 트이는 한국어』는 수업시간에 교재로 사용할 수 있도록 구성된 『말이 트이는 한국어-Student Book』과 학습한 내용을 복습 또는 연습할 수 있도록 구성된 『말이 트이는 한국어-Work Book』으로 나뉜다. 『말이 트이는 한국어-Work Book』은 본고의 확인학습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4. 관용어의 학인 학습'에서 다루기로 한다.

4권 : 10과로 구성. 과제 - 도움표현 - 어휘 - 대화 - 발음 - 재미있는 한국어 - 이야기 주머니 - 토론 - 읽기 - 쓰기 - 심화문법 - 듣기

『말이 트이는 한국어-Student Book』 1권에서는 본격적으로 관용어 학습이 이루어지고 있지는 않지만 '준비합시다'나 '해봅시다' 등에서 쉬운 관용어가 등장하고, 아래의 <그림 1>에서 보듯 '쉼터'에서는 삽화와 함께 '바람 맞다'가 소개되어 있다.

<그림 1>

2권에서는 '관용 표현'이라는 항목을 홀수과마다 관용어 내부 핵심어가 같거나 유사한 것끼리 묶어서 3개씩 제시하고 있다. 관용어의 기본형을 보기에 제시하고 연습에서는 빈칸 채우기 문제가 제시되어 있는데, 보기의 기본형을 실제 활용형으로 학습자가 바꾸어 쓰도록 하고 있다. 또한, 각 문

제에는 삽화가 삽입되어 있어 학습자의 흥미를 불러일으키고 있으며 해답은 뒤편에 싣지 않고 하단에 글자를 뒤집어서 제시해 놓아 학습자가 문제를 풀고 바로 확인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그림 2>를 통해서도 알 수 있듯 관용어를 풀이하는데 있어 학습자의 학습수준을 고려하지 않아 문제가 된다. 즉, 아직 배우지 않은 어휘나 문형으로 관용어를 해석하여 학습자가 교사의 지도 없이는 제시된 관용어의 의미를 이해할 수 없다. 제시할 관용어 목록 역시 학습자의 수준에서 선정되어야 하겠지만 그 의미도 학습자의 수준에서 해석되어야 할 것이다.

<그림 2>

3권에서는 2권에서처럼 '관용 표현'이라는 항목은 마련되어 있지 않고 지문 속에 포함되어 제시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리고 <그림 3>과 같이 '읽기와 쓰기'에서 '제 눈에 안경'이라는 제목으로 관련 내용을 다루고 있다. 물론 다른 관용어까지 확장하여 학습할 수 있도록 마련되어 있지는 않지만 관용어와 관련하여 글의 내용이 구성되어 있어 관용어 학습의 큰 부담 없이 학습자가 관용어를 익힐 수 있어 유익하다.

<그림 3>

제 눈에 안경

우리는 서로 다른 모습과 성격, 취미를 가지고 있다. 같은 부모 밑에서 태어난 형제라도, 아주 친한 친구라도 좋아하는 것, 싫어하는 것이 다 다르다. 그래서 서로 마음이 잘 맞지 않을 때는 가끔 싸우기도 하고 서로를 오해할 때도 있다.

나와 가장 친한 친구 사라는 요즘 회사 동료 중에서 어떤 사람을 좋아하는 것 같다. 나를 만나면 언제나 그 사람 이야기를 한다. 친구의 이야기를 들어 보니까 그 남자는 아주 멋있고 잘생긴 사람인 것 같다. 나도 그 남자가 어떤 사람인지 무척 궁금해졌다. 그런데 며칠 전 그 친구 집에 놀러 가서 그 남자가 어떻게 생겼는지 다짐내 보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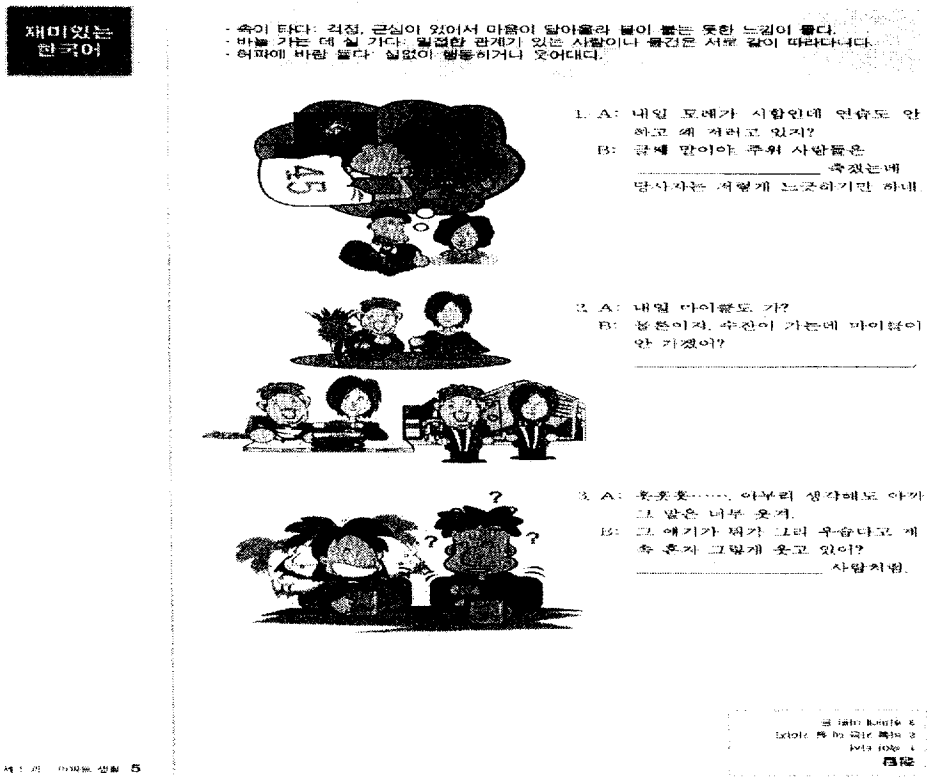
친구의 책상 위에는 못 보던 사진이 한 장 있었다. 그것은 회사에서 야유회 갔을 때 단체로 찍은 사진이었다. 제일 멋있어 보이는 사람이 자기가 좋아하는 '김동호'라는 사람이라고 말했다. 그래서 나는 제일 멋있어 보이는 사람을 찾았다. 그런데 내 친구는 그 남자가 아니라고 했다. 나는 정말 이상했다. 내 눈에는 그 남자가 제일 멋있어 보였기 때문이다. 그래서 나는 그 다음으로 멋있어 보이고 잘생긴 사람을 찾았다. 그런데 내 친구는 나를 이상하게 쳐다보면서 "네 눈에는 그 남자가 정말 멋있어 보여?"라고 물었다. 그리고 '자기가 좋아하는 김동호라는 남자, 제일 잘생겼고 멋있는 남자'라는 사람을 나에게 가르쳐 주었다. 그 순간 나는 도저히 내 친구의 눈을 믿을 수 없었다. '세상에~, 어떻게 이 남자가 제일 잘생겼고 멋있어 보이는 사람일까? 제 눈에 안경이라더니…'

그 날 집으로 돌아오면서 '제 눈에 안경'이라는 말이 자꾸 생각났다. 그리고 내 눈에 제일 멋있어 보이는 남자를 가리켰을 때 나를 이상하게 쳐다보던 친구의 얼굴이 생각나서 한참을 웃었다.

4권에서는 '재미있는 한국어'에서 2권의 '관용 표현'과 비슷한 유형으로 관용어를 소개하고 있다. 그러나 '재미있는 한국어' 항목은 관용어를 제시하

는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그림 4>에서 볼 수 있듯 엄연히 다른 어휘 범주인 '바늘 가는 데 실 가다'와 같은 속담을 관용어와 함께 제시하여 혼란을 주고 있으며, 2권에서는 관용어의 핵심어가 유사하거나 같은 것끼리 서로 묶어 제시하여 학습 효율을 높이고 있는 반면에 4권에서는 관용어 선정에 있어 그러한 고려가 없다.

<그림 4>



4. 관용어 확인 학습

어떠한 학습이든지 학습의 대상이 되는 내용이나 제시하는 방법뿐만 아니라 학습자가 이를 얼마나 잘 이해하였는지 확인하는 단계도 매우 중요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한국어 교재에서 이 단계에 해당하는 학습을 대체로 소홀하게 다루고 있어 문제가 된다. 이를 교재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고려대학교 한국어 교재 『한국어 1~6』, 『한국어 회화 1~6』

『한국어』 1권에서 5권까지는 '연습' 항목을 마련하여 학습자가 배운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연습'에 제시된 관용어는 예문에 의해 노출된 것으로 관용어와 관련한 문제는 전혀 제시되지 않고 있다. 다만, 5권의 '제12과 싼 게 비지떡이 무슨 뜻이지요?'의 '연습'에서 유일하게 관용어와 관련하여 문제가 (19)와 같이 제시되어 있다.

(19)

연 습

1. 다음 관용어는 언제 사용됩니까?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 설명해 보세요. 그리고 여러분 나라에도 비슷한 관용어가 있으면 이야기해 보세요.

1) 눈을 뜨다	2) 눈감아 주다	3) 입이 무겁다
4) 손이 모자란다	5) 허리띠를 졸라매다	6) 새발의 피
7) 우물안 개구리	8) 수박 겉 핥기	9) 개밥의 도토리
10) 제 눈의 안경	11) 코가 납작해지다	12) 바람맞다

13) 싼 게 비지떡

2. 여러분 나라의 대표적인 관용어를 5개씩 소개해 보세요.

『한국어』 교재에는 '연습' 이외에도 1권에서 5권까지 공통적으로 5과, 10과, 15과, 20과는 전 차시까지 배운 내용을 복습하기 위한 단원으로 마련하고 있다. 그런데 이 '복습' 단원은 새로운 제시 형태로 이전에 배운 내용을 복습하도록 구성되어 있지 않고 '기본 문형'을 그대로 옮겨오는 것에 불과하다. 때문에 여기에 제시된 관용어 역시 기본 문형을 익히기 위해 제시한 예문에서 노출된 그대로 이다. 엄밀히 말해, '복습' 단원에는 관용어가 등장은 하지만 기본 문형을 그대로 옮겨오는 과정에서 우연히 포함된 것에 불과한 것으로 교재에는 관용어를 복습하기 위한 어떠한 문제 형태도 마련되어 있지 않다.

또한, 『한국어』 교재에는 색인이 중급과 고급과정에는 없고 다만, 초급과정인 1권과 2권에만 마련되어 있다. 그런데 색인은 학습자가 찾고자 하는 어휘가 본문의 어디에 있는지를 쉽게 찾아 볼 수 있도록 마련한 것으로 학습자에 따라 유용하게 이용할 수 있는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어휘수가 많아지는 중급이상의 단계에서는 색인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아쉽다.

『한국어 회화』의 경우는 단원 차원의 관용어 학습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배운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마련된 '연습' 항목에서 관용어는 완전히 배제되어 있다. 『한국어 회화』 역시 1권에서 5권까지 공통적으로 5과, 10과, 15과, 20과를 '복습' 단원으로 설정하고 있는데 『한국어』 교재와는 달리 배운 내용을 복습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문제들로 구성되어 있다. 그러나 역시 관용어와 관련한 학습은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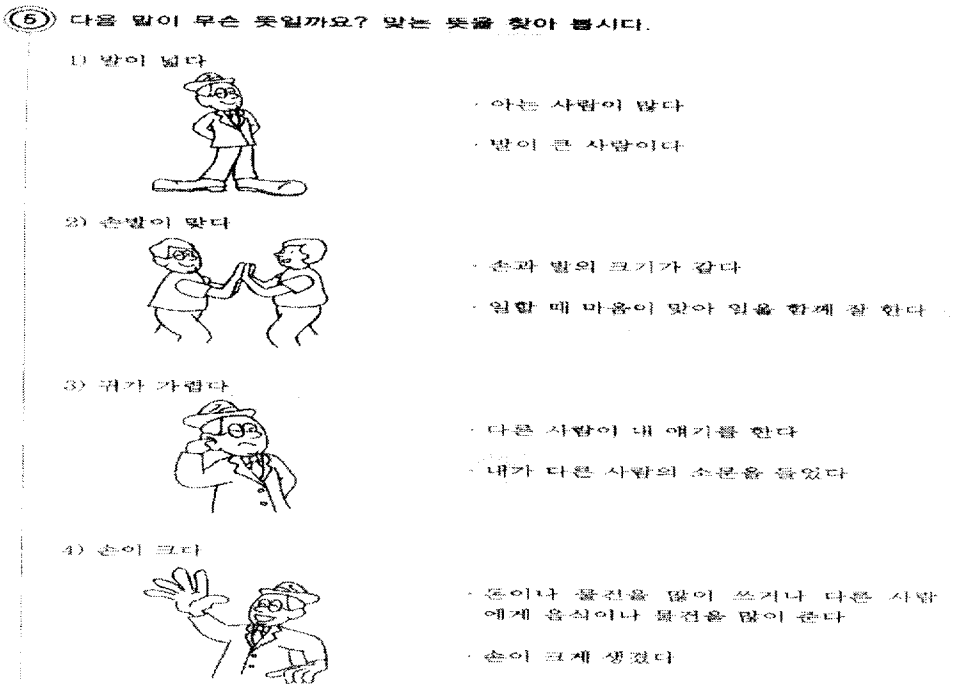
『한국어』와 『한국어 회화』에서 이처럼 학습한 관용어를 확인하는 학습의 내용 구성에서 미흡함을 보이는 것은 애초 이 교재에서 관용어 학습에

대한 고려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은 데서 비롯된 것이라 하겠다.

2) 서울대학교 어학연구소 『한국어 1~4』

서울대학교의 『한국어』는 '연습'의 단계를 두어 해당 과에서 배운 내용을 확인하고 있다. 관용어 학습이 시작되는 3권 '26과 결혼하려면 아직 멀었어요!'의 '연습'에서는 <그림 5>와 같이 관용어와 그에 해당하는 관련 그림을 보이고 관용어의 축자적 의미와 관용 의미를 동시에 제시하여 학습자가 자연스럽게 관용어를 인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림 5>



4권의 '7과 선 봤다는 소문을 들었어'에서는 3권의 26과보다 더 많은 관용어가 제시되어 있으며 학습 확인을 위해 연습문제에서는 (20), (21)과 같이 보기를 주고 짧은 대화의 내용을 파악하여 빈칸에 보기 안의 관용어를 활용하여 넣는 문제와 의미를 알아보는 문제가 제시되어 있다.

(20) 다음의 대화의 _____에 알맞은 표현을 넣으세요.

그림의 떡	눈(이) 빠지다	바가지(를) 긁다
비행기를 태우다	입이 가볍다	입이 무겁다

1) 미영 : 너 다른 사람한테 이 얘기를 하면 안 돼. 비밀이야.
   유진 : 알았어. 걱정하지 마. 난 _____.
2) 지만 : 와, 저 집 참 크고 멋있다. 수영장도 있는 데다가 테니스장도 있네. 내가 저런 집을 사게 되면 네게 방 하나 줄게.
   준구 : 그렇게 되면 좋겠지만 저 집은 우리 같은 학생에겐
3) 미치코 : 다나카 씨 여가 친구는 정말 좋겠어요. 다나카 씨처럼 성격 좋고, 멋있고 재미있는 사람을 사귀니까요.
   다나카 : 어, 오늘 왜 이래요? 아무리 그래도 난 지금 커피 살 돈도 없어요.
4) 영민 : 승호 씨, 이번에 아들 낳았다면서요? 축하해요. 한턱 내야겠네요.
   승호 : 고마워요. 그런데 한턱은 다음에 낼게요. 이번 달에는 벌써 다 써 버려서 월급 받는 날만 기다리고 있거든요.
5) 준구 : 아침부터 기분이 안 좋아 보이는데 무슨 일 있어?
   영민 : 글쎄, 아침에 나오는데 아내가. 게다가 버스를 놓쳐서 지각을 했어.

(21) 우리의 생활에서 많이 쓰이는 관용어입니다. 무슨 뜻인지 알아봅시다.

1) 국수를 먹다　　2) 깨가 쏟아지다　　3) 바가지(를) 쓰다
4) 주머니가 가볍다　　5) 미역국을 먹다

서울대 『한국어』에는 1권에서 4권까지 색인인 '찾아보기[34]' 항목이 마련

되어 있다. 그런데 2권의 경우 '마음에 들다'만이 나와 있고 '한잔 하다', '한턱내다'는 '한잔', '한턱'의 형태로 올라있어 관용의미를 도출하기 어렵다. 그리고 4권에서는 '기울이다 (귀를)', '박히다 (틀에)'와 같이 제시한 것이 발견되는데 이 역시 온전한 관용어의 형태로 제시해야 할 것이다.

1권부터 3권까지는 '새 단어'에 풀이가 제시되어 있지 않고 색인에 영어와 일어로 번역이가 되어 있어 학습자는 자연스럽게 색인을 자주 이용하게 된다. 그런데 관용어의 경우, 올바르게 등재된 것과 그렇지 못한 것을 모두 합쳐도 절반에 미치지 못하고 있어 사전이나 교사의 도움 없이는 절반 이상의 관용어 의미를 알기 어렵다. 관용어도 하나의 어휘로서 단어와 마찬가지로 새로 제시된 것이라면 모두 색인에 등재되어야 마땅하나 『한국어』 교재에서는 이를 포함하지 않아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이는 4권도 마찬가지인데 색인에 등재된 관용어의 개수를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17> 서울대 교재의 색인에 등재된 관용어 개수

제시항목 / 권	색인
1	0/0(0%)
2	1/4 (25%)
3	5/13 (39%)
4	7/30 (23%)

34) 본고에서는 이하 '색인'으로 통일하여 사용하기로 한다.

3) 선문대학교 한국어 교육원 『한국어 초급 1~2』, 『한국어 중급 1~2』, 『한국어 고급 1~2』

선문대학교의 『한국어』에서는 관용어가 고급 단계에 들어서야 본격적으로 제시되고 있지만 습득한 관용어를 확인하는 학습은 마련되어 있지 않다.

색인은 초급에서 중급까지 마련되어 있다. 그러나 번역만 제시되었을 뿐 해당 어휘가 제시된 본문의 페이지 빠져있다. 또한, 초급1과 초급2에서 '마음에 들다'가 '들다(마음에)'로 나와 있는데 이는 완전한 형태의 관용어를 제시한 것이 아니다. 앞서 언급하였듯 '마음에 들다'는 '들다'에 종속되지 않는 독립된 어휘로 제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렇지 않을 경우 학습자가 색인에서 해당 어휘를 찾는데 어려움을 주거나 혹은 '마음에 들다'를 관용어로 인식하는데 장애를 줄 수 있다.

색인에서는 해당 교재에 새로 등장하는 어휘를 실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한국어』에서는 이미 앞서 출현한 어휘를 반복하여 제시하거나 처음 등장하는 어휘를 누락시키고 있는데, 그 예로 '돌아가시다'는 초급1·초급2·중급1의 색인에 모두 등장하는 반면, 중급1에 처음 등장하는 '코웃음 치다'는 색인에 누락되어 있다. 교재에 등재된 관용어 개수를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18> 선문대 『한국어』의 색인에 등재된 관용어 개수

제시항목 / 권	색인
1	1/2(50%)
2	1/1(100%)
3	1/6(17%)
4	2/4(50%)
5	0/61(0%)
6	0/58(0%)

<표18>에서 알 수 있듯 관용어의 색인 제시 비율이 매우 낮다. 더구나 관용어가 집중적으로 제시되어 있는 고급에는 아예 색인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4) 연세대학교 한국어학당 『한국어 1~6』

연세대 『한국어』에는 확인 학습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색인과 관련해서는 다른 교재와 마찬가지로 색인에 누락된 관용어 개수가 절반을 훨씬 넘는다. 색인에 등재된 관용어 개수를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19> 연세대 교재의 색인에 등재된 관용어 개수

제시항목 / 권	색인
1	2/3(61%)
2	1/3(33%)
3	6/19(32%)
4	13/43(30%)
5	18/71(25%)
6	23/118(19%)

또한 선문대 『한국어』와 마찬가지로 2권에서 제시된 관용어가 모두 색인에 '들다(마음에)', '듣다(말을)'의 형태로 제시되어 있어 문제가 된다. '새 단어'에서 관용어로서 제시되고 해석되었다면 색인에서도 형태적 고정성을 지니고 있는 하나의 독립된 어휘로서 온전한 형태대로 제시해야 할 것이다.

5) 이화여자대학교 언어교육원 『말이 트이는 한국어 1~4 -Work Book』

『말이 트이는 한국어 - Work Book』은 『말이 트이는 한국어 - Student Book』에서 배운 내용을 확고히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구안된 교재로 이 교재에 제시된 내용 자체가 확인 학습에 해당하며 그 구성은 다음과 같다.

1권 : 15과로 구성. 문법 및 구조- 어휘- 상황표현- 대화
2권 : 15과로 구성. 구조 - 어휘 - 상황표현 - 대화 - 읽기

3권 : 15과로 구성. 문법 및 구조- 어휘- 확장표현-읽기

4권 : 10과로 구성. 문법 및 구조- 어휘 - 확장표현 - 과제 - 읽기

『말이 트이는 한국어 - Work Book』 1권은 『말이 트이는 한국어 - Student Book』 1권과 마찬가지로 쉬운 관용어가 지문에 포함되어 제시되어 있을 뿐 본격적인 관용어 학습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그러나 『말이 트이는 한국어 - Work Book』 2권에서는 『말이 트이는 한국어 - Student Book』 2권의 '관용 표현'에서 제시된 관용어보다 많은 관용어를 '어휘' 항목에서 학습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다.

(22) 다음은 귀와 관련된 표현입니다. 보기에서 맞는 표현을 찾아 문장에 맞게 쓰십시오.

귀가 얇다　귀가 아프다　귀가 가렵다　귀가 보배다　귀빠진 날

1. 마이클 : 제임스씨는 **귀가 얇아서** 큰일이에요.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하면 금방 그 말을 믿고 따라 하잖아요.

   제니퍼 :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몇 번 충고했는데 잘 고쳐지지 않는 것 같아요.

2. 민주 : 누가 내 이야기를 하고 있나 봐.

   니콜 : 왜?

   민주 : _____ 죽겠어.

3. 마리 : 내가 부탁한 거 오늘까지 다 해야 돼.

   민아 : 알았어. 벌써 열 번도 더 말한 것 같아. _____.

   마리 : 정말 중요한 일이라서 그래. 알았지?

4. 어머니 : 민우야, 네 친구 준호는 공부도 잘하고 똑똑한데 너는 왜 그 모양이니?

   민우 : 엄마, 남과 비교해서 말하는 건 아이 교육에 나쁘다고 하잖아요.

어머니 : 아니고, _____라더니. 그런 말은 또 어디서 들었니? 그래. 다음부터는 남과 비교해서 말하지 않을 테니 너도 알아서 잘해야 돼.

민우 : 그럼요, 엄마.

5. 유진 : 너 오늘 _____이지? 생일 축하해. 생일 선물이야.

사라 : 고마워.

(23)

-도록: 손이 발이 되도록 빌면서 사과를 하기도 했다.

목이 터지다 배가 터지다 눈이 빠지다

1. A : 어제 민호씨네 집들이에 왜 안 왔어요? 얼마나 잘 차렸었는데요.

B : 그래요? 급한 일이 생겨서 못 갔어요. 그래서 맛있는 거 많이 먹었어요?

A : 거의 다 처음 먹어 본 요리인데다가 맛도 있어서 **배가 터지도록** 먹었어요.

2. A : 왜 이렇게 목소리가 쉬었어요?

B : 어제 회사 동료들과 술 한잔 하고 나서 2차로 노래방에 갔어요. 거기서 _____ 노래를 불렀더니 목이 이렇게 잠겨 버렸어요.

3. A : 아이에게 오늘 같이 영화 보러 가자고 하고는 이제야 오면 어떻게 해요?

B : 미안해, 여보. 오늘 외국에서 손님이 오셔서 일찍 빠져 나올 수가 없었어.

A : 애는 _____ 아빠를 기다리다가 조금 전에야 잠이 들었어요.

B : 아이구, 이 일을 어떻게 하지?

(22)는 보기에서 관용어를 골라 빈칸을 채우는 문제로 학습자가 관용어의 의미를 알고 있는지를 파악할 수 있을뿐더러 문장 속에 관용어를 넣어 활

용하는 연습을 할 수 있다. 일상 담화에서 관용어는 단독으로 사용되기보다 문장 속에서 활용되어 쓰이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따라서, 학습자가 관용어의 의미를 익히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제 문장 속에서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연습 또한 매우 중요하다. 그리고 이러한 연습은 (22)처럼 관용어 학습만을 위해 문제를 통해서도 가능하지만 (23)과 같이 '문법 구조 및 표현' 학습과 연계를 통해서도 가능하다.

(24) - 대화문 생략 -

4. 마이클은 사라가 지기 일을 도와 줘서 고맙게 때문에 나중에 음식이나 술을 사겠다는 말을 어떻게 했습니까? 위 대화에서 찾아 쓰십시오.

(25) - 전략 -

민호 : 지금 곧 차를 빼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교통 법규를 잘 지킬 테니까 이번 ①<u>한 번만 눈감아 주십시오.</u>

- 후략 -

4. ①은 무슨 뜻입니까?

(가) 없었던 일로 해 주십시오. (나) 눈을 뜨지 마십시오.

(다) 주의를 주십시오. (라) 보지 마십시오.

3권에서는 2권과 같이 규칙적으로 관용어 학습을 짜여 있지는 않지만 학습자 수준에 맞도록 통합형의 문제가 마련되어 있다. 즉, (24)나 (25)와 같이 지문을 제시하고 지문 속에서 관용어를 찾거나 혹은 제시된 관용어의 의미를 찾도록 하여 읽기 영역의 학습과 통합되어 있다.

4권에서는 '어휘'의 '재미있는 한국어'에 관용어가 제시되어 있는데, 확인학습으로는 2권에서 등장했던 (22)와 같은 유형의 문제 외에도 관용어의 의미를 확인하는 (26)과 같은 유형의 문제가 제시되어 있다. 이러한 유형은

내용이 단순하여 낮은 수준의 학습자에게도 적용할 수 있다.

(26) 다음에서 알맞은 것을 찾아 연결하십시오.

1. 꿩 대신 닭 · · (가) 기다리던 소식이나 연락이 없을 때
2. 꿩 먹고 알 먹고 · · (나) 꼭 필요한 것이 없어서 비슷한 것으로 대신할 때
3. 꿩 구워 먹은 소식 · · (다) 한꺼번에 두 가지 이득이 생겼을 때

이상, 학습한 관용어가 각 교재에서 어떻게 확인 학습이 되고 있는지에 대해 살펴보았다. 다음으로 『말이 트이는 한국어 -Student Book』의 색인을 표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표 20> 이화여대 교재의 색인에 등재된 관용어 개수

제시항목 / 권	색인
1	3/5(60%)
2	29/31(94%)
3	12/24 (50%)
4	36/43 (84%)

현행 다른 교재들에 비해서는 색인에 제시된 관용어의 수가 많은데, 이 중에서도 관용어를 3개씩 묶어 관용어 학습을 계획적으로 마련하고 있는 2권과 4권은 그 비율이 특히 높다.

그런데 문제는 『말이 트이는 한국어 -Student Book』에서는 색인에 몇 가지 항목을 두고 교재에 등장하는 어휘와 표현들을 나누어 제시하고 있는데, 2권과 4권의 경우 그 항목 설정에 일관성이 없다는 것이다. 즉 2권과 4

권에서는 색인에 '관용 표현'과 '재미있는 한국어'라는 항목을 각각 두어, 본문의 '관용 표현'이나 '재미있는 한국어' 항목에서 3개씩 묶어 제시했던 관용어만을 따로 제시하고, 그 외 관용어는 색인의 '표현' 항목에서 다루고 있다. 때문에 관용어일지라도 어떤 것은 '표현' 항목에 배치되고 어떤 것은 '관용 표현' 혹은 '재미있는 한국어' 항목에 배치되어 학습자에게 혼란을 준다. 따라서, 색인에 항목을 마련할 경우에는 항목 설정의 기준에 일관성을 두어 학습자 이용하기 쉽도록 해야 할 것이다.

Ⅳ. 관용어 교육의 방안 및 실제

본장에서는 제 Ⅲ장의 분석을 바탕으로 하여 관용어 교육의 방안과 지도안을 통한 적용 예를 제시하고자 한다. 먼저, 1절에서는 개괄적인 관용어 교육의 기본 방향에 대해 언급하였다. 그리고 2절은 관용어 교육의 방안으로서 단계별 관용어 목록을 제시한 후, 이를 학습하는 방법과 학습한 내용을 확인하는 확인 학습을 다양한 예를 통해 살펴볼 수 있도록 하였다. 그런 후에 3절에서는 제시한 관용어 교육의 방법을 반영한 지도안을 작성하여 이를 실제 관용어 교육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1. 관용어 교육의 기본 방향

본고에서 제시하는 관용어의 기본 방향은 다음의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관용어를 지칭하는 용어로 '관용어'를 사용하고, 학습자가 관용어의 용어와 개념을 학습할 수 있도록 한다. 이는 관용어가 다른 어휘들과 변별되는 어휘임을 밝히는 것으로 이를 통해 학습자는 관용어에 대한 기본 체계를 확립하게 될 것이다.

둘째, 관용어 교육은 사전에 계획하여 체계를 마련한다. 현행 한국어 교재에서 나타났던 목록의 비위계성, 교수 방법의 빈약함, 평가 항목의 부재 등과 같은 문제점들은 관용어 교육이 사전에 체계적으로 계획되지 않은 데서 비롯한 것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관용어 교육에 대한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이에 본고에서는 '①관용어 목록', '②관용어

학습 방법', '③관용어 확인 학습'의 기본 틀을 마련하였다. 그리고 '②관용어 학습 방법'은 다시 '제시 단계', '설명 단계', '활용 단계'로 나누어 제시하여 체계적인 관용어 학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다.

셋째, 학습자의 수준을 고려한다. 본고에서는 학습자의 수준을 '한국어능력시험'의 등급 분류와 동일하게 1급부터 6급까지 설정하였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하여 관용어 목록, 관용어 학습 방법, 관용어 확인 학습을 각 등급에 따라 나누어 제시하여 학습자의 수준에 맞는 관용어 교수·학습이 이루어지도록 하였다.

2. 관용어 교육의 방안

1) 관용어 목록

외국인을 대상으로 관용어 교육을 하기 위해 가장 먼저 고려해야 할 것이 학습 내용인 관용어 목록 선정이다. 관용어 학습 목록 선정에 현재 사용되는 모든 관용어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지만 현실적으로 모든 관용어를 수집하는 것이 어렵다. 이에 본고에서는 위에서 살펴본 한국어 교재에 제시된 507개의 관용어를 중심으로 하되 더불어 박영준·최경봉(1996)의 『관용어 사전』에 등재된 3,778개의 관용어를 참고하여 목록을 선정하고 단계별로 이를 분류하기로 한다.

문금현(1998)에서는 한국어의 학습 단계를 초·중·고급의 3단계로 나눈 후, 관용어를 구어적 관용어와 문어적 관용어로 나누어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본고에서는 이를 반영하지 않고[35] 현행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한

35) 그러나 본고에서는 문금현(1998)에서 제시한 문어적 관용어와 구어적 관용어 분류는

국어능력시험'의 등급 분류를 참고하여 학습자의 언어 수준을 초·중·고급의 3단계로 나누고 다시 각 단계를 2등급씩 세분하였다.

<표 21> 학습 단계별 적정 관용어 개수

초급		중급		고급		전체 개수
1급	2급	3급	4급	5급	6급	
10개 미만	약 10개~20개	약 20개	약 20개~30개	약 30개	약 30~40개	120개 ~150개
→ 급수가 높아질수록 관용어 개수 증가 →						

위의 <표 21>은 본고에서 제시하는 학습 단계별 적정 관용어 개수이다. 먼저, 초급에서는 지나치게 많은 어휘를 학습할 경우 학습자의 부담으로 작용하여 오히려 학습 능률 뿐 아니라 흥미까지도 저해시킬 우려가 있기에 초급의 1등급에 제시하는 관용어 수를 10개 미만으로 제한한다. 그리고 같은 초급이라도 1급 보다는 2급에서 보다 많은 관용어를 제시함으로서 위계를 보이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것은 중급과 고급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전체 개수는 문금현(1998)에서 제시한 80개[36] 보다 약 2배 정도가 많은 120개에

적용하지 않기로 한다. 그 이유는 첫째, 문금현(1998)에서도 밝혔듯이 구어적인 것과 문어적인 것이 확연하게 구분되는 것이 아니라 양쪽으로 사용 가능한 것이 대부분이기에 이 둘을 기준으로 신뢰성이 높은 관용어 분류가 어렵다. 둘째, 현행 교재에 나오는 관용어가 대부분 문어적인 것으로 보고 있으며 유행어나 은어의 성격을 띤 비속적인 관용어는 구어적 관용어의 듣기용으로 분류하여 제시하고 있는데 실제 구어적 관용어의 듣기용으로 분류하여 제시된 관용어의 대부분이 한국어 교재에 제시된 것들이다. 그러므로 굳이 이들을 나누어 제시할 필요가 없다. 셋째, 결정적으로 일상생활에서 많이 사용되나 유행어나 은어의 성격을 많이 띤 것이 많은 구어적 관용어를 각 교재에서는 잘 다루지 않는다고 가정한다 해도 본 논의에서는 수업 현장에서 제시할 수 있는 관용어가 아니라, 한국어 교재에 한정하여 여기에 실어야하는 관용어 목록을 제시할 것이기에 비속적인 관용어는 제외할 것이므로 비속적인 관용어가 많다는 구어적 관용어를 포함시킬 필요가 없다.

36) 각 단계별 관용어 학습의 적정 양에 대해 문금현(1998)은 학습해야 할 관용어의 전체 개수를 80여개로 정하여 초급에서는 10개미만, 중급에서는 20개 정도, 고급에서는 40~

서 150개를 적정 수로 보았다. 이는 80개의 관용어로는 '한국어 능력 평가'의 6급[37]에 해당하는 능력 기준을 충족시키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현재 6권으로 출판된 한국어 교재의 관용어 평균 출현 수가 144개인 것을 참고로 그 적정 수를 120개에서 150개로 정한 것이다.

관용어를 6단계로 나누기 위한 분류는 투명도, 사용 빈도, 어휘 수준, 문화 반영도를 기준으로 한다. 그러나 여기서 사용 빈도는 객관적인 측정이 어려우므로 일반적으로 사용빈도가 높은 것으로 알려진 신체관용어를 우선순위에 두는 것으로 이를 대신하고자 한다. 단계별 관용어 선정 기준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관용성의 정도에 따라 관용어를 분류한다. 관용성의 정도는 근접투명성, 반불투명성, 불투명성으로 나뉜다. 근접 투명성에 해당하는 관용어는 의미 연상이 쉽고 일상적인 어휘로 구성되어 있어 익히기 쉬울 뿐 아니라 사용 빈도 또한 높게 나타난다. 이에 반해 불투명성 관용어는 의미 연상이 어렵고 고어나 폐어로 어휘가 구성되어 익히기 어려우며 사용빈도가 낮다. 반불투명성은 근접투명성과 불투명성의 중간에 위치한다. 따라서, 초급과

50개 정도를 제안하고 있다.

37) <6급> 능력 기준

사회문화적 요구		사실상 이 이상 학습과정을 통해 배울 필요는 없는 정도이다. 스스로 알아보고, 물어보고, 참고 서적이나 기타 정보를 이용해서 자율적 발전이 가능하다. 단, 아직 전문가가 아니라면 한국 고전, 방언 등에는 모르는 경우가 많은 수도 있다.
언어능력	기본학습목표	사회생활이나 직장에서 필요한 한국어를 이해하며, 고도의(현대사회의 일반적 상식 범위 내의) 내용의 한국어 구사가 가능, 수준 높은 문장(신문, 잡지, 교양서, 문예작품 등)이나, 텔레비전·라디오·강연 등의 시사적인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고 문장이나 말로 정확히 전달할 수 있으며, 토의·토론에서 자신의 의견을 정확히 이야기할 수 있는 정도 있다. 자주 쓰이는 한자에 독음을 달 수 있다.
	어휘	대부분의 일상적 어휘나 전문적 어휘 구사한다. 그 밖의 어휘도 문맥에 의지하거나 사전을 능숙하게 이용하며 해결한다.
	문장	괴팍한 표현이나 지나치게 빠른 말이 아니면 사실상 거의 다 이해한다.
	발음	정상적인 발화에서 발음과 관련된 문제가 없다.

중급에서는 근접투명성 관용어를 중심으로 하고 차츰 반불투명성 관용어와 불투명성 관용어를 익히도록 하되 특히 불투명성 관용어는 고급단계에서 제시하도록 한다.

둘째, 초급과 중급 단계에서는 신체관용어를 중심으로 관용어를 제시한다. 신체관용어는 대부분이 근접투명성에 해당하며 사용빈도가 높다. 신체 관용어는 구성 어휘가 신체와 관련한 것들로 되어 있어 어휘 수준이 그다지 높지 않다. 또한, 의미 유추가 쉬울 뿐만 아니라 외국인들의 모국어와 유사한 것들이 있어 학습이 용이하다.

셋째, 학습자의 수준에 맞도록 관용어 내부의 어휘와 문법의 수준을 고려하여 제시한다. 근접투명성 관용어이며 또한 신체관용어라 할지라도 각각의 어휘와 문법 수준은 달리 나타난다. 즉, '마음에 들다'와 같은 경우는 초급에서 학습하는 데 문제가 없으나 '속을 썩이다'는 사동표현을 익힌 후 학습할 수 있다.

넷째, 우리나라의 문화 반영도를 고려한다. 언어와 문화는 불가분의 관계로 언어를 익히는 것 자체가 그 나라의 문화를 익히는 것이지만 특히 관용어는 해당 국가의 문화를 많이 반영하고 있는 어휘 가운데 하나이다. 따라서, 이 점을 학습에 적극 활용하기 위해 우리나라의 문화를 학습할 수 있는 관용어를 제시한다.

다섯째, '번역 가능성'을 고려한다.[38] 이는 학습자들의 모국어가 서로 동일할 때 고려할 수 있는 방법으로 번역 가능성이 큰 관용어를 낮은 단계에 배치하여 학습을 용이하게 할 수 있다.

여섯째, 앞서 살핀 한국어 교재를 초급, 중급, 고급으로 나누었을 때 교재

---

38) 윤희수(1990)에서는 '번역 가능성'을 첫째, 외국어(목표어)와 모국어를 비교해 볼 때 모국어로 설명이나 패러프레이즈만 될 수 있는 것 ; 둘째, 축어적으로 번역되어도 관용적 의미를 유지하는 것 ; 셋째, 의미는 같지만 외국어의 유사한 관용어로 번역되는 것 ; 넷째, 의미는 같지만 외국어의 다른 관용어로 번역되는 것으로 분류하였다.

에서 공통적으로 제시되는 관용어를 우선하여 제시한다.

① 초급

앞서 살펴본 한국어 교재들은 관용어 교육을 중급 혹은 고급의 수준에서 시작하였으나, 실제 교재에서는 서울대 『한국어』를 제외하고는 모두 초급단계인 1권에서 관용어가 적게는 1개에서 많게는 5개까지 제시되어 있다. 본고에서도 관용어를 구성하는 어휘와 관용어 자체의 의미가 쉽고, 사용 빈도가 높은 관용어의 경우, 초급부터 교육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고 초급단계에서의 관용어 교육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초급 1급에서는 많은 양의 어휘 학습이 학습자에게 부담일 뿐 아니라 흥미를 저하시켜 오히려 학습 능률을 떨어뜨릴 수 있기에 적은 수의 관용어를 제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초급단계의 관용어 목록을 선정할 때는 중급단계나 고급단계의 학습자에 비해 사용빈도수 등과 같은 관용어 외적인 문제 외에도 관용어를 구성하는 어휘나 문법 대한 고려가 매우 중요하다. 이를 바탕으로 초급단계에서 관용어 목록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표 22> 초급단계에서의 관용어 목록

단계	초급	
	1급	2급
관용어 목록	<근접투명성 관용어> 마음에 들다/마음이 넓다/돌아가시다/문을 닫다/밤낮/손이 크다/큰손	<근접투명성 관용어> 눈이 낮다/눈이 높다/마음이 가볍다/마음이 무겁다/손을 대다/손을 떼다/손을 씻다/손을 잡다/입이 가볍다/입이 무겁다/한잔하다/한턱내다
개수	7개	12개

단어형 관용어는 구절형 관용어에 비해 문법 측면에서 보다 자유로우며 학습 또한 용이하기 때문에 이를 초급 1급에 배치하였다. 그리고 구절형 관용어도 초급 1급의 수준에서 학습하게 되는 어휘와 문법을 고려하여 목록을 선정하였다.

초급 2급에서는 1급에서 보다는 많은 관용어를 학습할 수 있도록 관용어 수를 늘려 제시하였다. 또한, 어휘 확장을 통해 학습의 능률을 높일 수 있도록 관용어의 핵심어가 같거나 유사한 것을 선정하였다. 그리고 동시에 '한잔하다', '한턱내다'를 제외하고는 가급적이면 서로 반의 관계를 형성하는 것을 제시하여 하였다.[39] 그러나 이 또한 초급 수준임을 감안하여 관용어가 2개가 하나의 쌍을 이루도록 하여 그 수를 제한하였다.

② 중급

중급 3급에서는 관용어의 핵심어가 같은 것을 기준으로 3개씩 짝을 이루도록 목록을 선정하여 초급에 비해 보다 많은 어휘 확장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다. 중급 4급은 3급에서와 마찬가지로 관용어의 핵심어가 같은 것을 기준으로 하여 선정한 것도 있으나, 의미상 유사한 것도 묶어서 제시할 수 있도록 일부 선정하였다.

---

39) Craik & Lockart(1972)의 처리 깊이 이론(Levels of processing theory)에 의하면 반의어, 상어어·하의어의 개념들을 함께 학습하는 의미적인 수준의 처리가 소리내어 읽으면서 외우거나 자주 봄으로써 눈에 익혀 학습하는 지각적인 수준의 처리 보다 그 기억이 영구적이라 하였다. [우리어문학회 편(2001) 재인용]

<표 23> 중급단계에서의 관용어 목록

단계	중급	
	3급	4급
관용어 목록	<근접투명성 관용어> 귀가 가렵다/귀가 아프다/귀가 얇다/눈이 멀다/눈이 어둡다/말이 많다/마음을 놓다/마음을 먹다/마음을 잡다/말을 놓다/말을 듣다/손을 보다/손이 가다/손이 모자라다/한 눈에	<근접투명성 관용어> 낯(이) 익다/낯설다/낯이 두껍다/머리가 아프다/머리를 맞대다/머리를 쓰다/머리를 짜다/발을 끊다/발을 빼다/발이 넓다/손때가 묻다/손발이 맞다/손을 끊다/애가 타다/애를 먹다/애를 쓰다
	<반불투명성 관용어> 바람나다/바람을 맞다/바람을 피우다	<반불투명성 관용어> 국물도 없다/국수를 먹다/마당발/미역국 먹다/시집가다/장가가다
개수	18개	22개

③ 고급

고급 단계에서 제시된 관용어에는 이전 단계에서처럼 신체 관용어를 중심으로 하여 내부 핵심어가 유사한 것도 있으나, 어원이나 문화적인 설명이 가능한 것들을 이전 단계에 비해 많이 배치하였다. 이외에도 5급에서는 속담에서 관용어로 바뀐 채언형 관용어를 배치하여 형태상 유사한 것을 묶어 익힐 수 있도록 하였으며 6급에서도 역시 '~(이)나 ~(이)나'의 형태를 가진 관용어들을 선정하여 이들을 함께 학습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피동과 사동 표현이 6급에서 주로 학습된다는 점을 감안하여 피동이나 사동표현으로 구성된 관용어를 6급에 제시하였다.

<표 24> 고급단계에서의 관용어 목록

단계	고급	
	5급	6급
관용어 목록	<근접투명성 관용어> 눈감아 주다/눈이 빠지도록/눈치 채다/눈코 뜰 사이(가) 없다/목이 빠지도록/비위가 상하다/비위가 좋다/비위를 건드리다/비위를 맞추다/손쉽다/입에 맞는 떡/코웃음을 치다/콧대가 높다/콧대를 세우다/풀이 죽다	<근접투명성 관용어> 가슴을 조이다/가슴이 뭉클하다/간담이 내려앉다/간담이 서늘하다/간이 떨어지다/간이 콩알만 하다/골머리[골치]가 아프다/골머리[골치]를 썩이다/골머리[골치]를 앓다/골칫거리다/골칫덩어리/골탕을 먹다/기가 막히다/눈앞이 아찔하다/눈앞이 캄캄하다[깜깜하다]/눈이 오나 비가 오나/머리를 식히다/발등에 발을 끄다/발등에 불 붙다/발등에 불이 떨어지다/발등을 찍다/밤이나 낮이나/속을 썩이다/앉으나 서나/입을 씻다/자나 깨나/코가 납작해지다/콧날[코끝]이 찡하다
	<반불투명성 관용어> 그림의 떡/꿩 구워 먹은 소식/꿩 대신 닭/꿩 먹고 알 먹고/누워서 떡 먹기/뜸을 들이다/바가지를 긁다/바가지를 쓰다/식은 죽 먹기/우물 안 개구리/웬 떡이냐/제 눈에 안경/쥐구멍에 들어가다/쥐뿔도 없다/콩으로 메주를 쑤어도/하늘에 별따기	<반불투명성 관용어> /감투를 쓰다/김칫국(부터) 마시다/깨가 쏟아지다/꼬리가 (길면) 잡히다[밟히다]/꼬리가 길다/꼬리에 꼬리를 물다/비행기를 태우다/싼게 비지떡/오리발을 내밀다/쥐꼬리만하다
	<불투명성 관용어> (야단)법석을 떨다/야단(법석)이다	<불투명성 관용어> 시치미를 떼다/오지랖이 넓다
개수	33개	40개

2) 관용어 학습 방법

관용어를 교재에 숨기는 방법은 무의식 중에 자연스럽게 학습시킨다는 점에서 좋을 수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학습자가 학습의 대상으로 생각하지 않거나 제시된 내용에 비해 제시되지 않은 내용이 더 가치 없거나 혹은 중요하지 않은 것으로 여길 위험이 있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학습의 가치가 충분한 관용어를 체계적으로 교육하기 위해서 이를 명확하게 제시하는 방법을 지향한다.

관용어 학습 단계[40]는 '제시 단계', '설명 단계', '활용 단계'로 구성된다. '제시 단계'는 앞서 단계별로 선정된 관용어를 어떤 순서와 방법으로 제시할 것인가를 보여주는 단계이다. 그리고 '설명 단계'에서는 제시된 관용어를 해당 학습자의 수준에 맞게 뜻을 풀이하고 가능하면 그 어원 등을 함께 소개함으로써 우리나라 문화에 대한 학습도 하도록 된다. 마지막으로 '활용 단계'에서는 실제 문장 속에서 관용어가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가를 보이고 이를 익힘으로써 일상생활에서 학습자가 관용어를 적극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① 제시 단계

관용어를 제시하는 방법으로 관용어 학습란을 두어 따로 제시하는 방법과 본문의 내용을 통해 제시하는 방법이 있다. 전자의 경우에는 학습자의 수준에 따라 적정 수를 의도적으로 배치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관용어도 관용어 내부 핵심어가 같은 것이나 의미가 서로 유사한 것, 혹은 반대되는

40) 본고에서 제시한 '학습 단계'는 학습자가 관용어를 '습득'하기 위한 단계, 즉 아직 배우지 않은 관용어를 대상으로 하여 이를 배우고 익히는 단계를 의미한다. 따라서 이미 학습한 관용어를 대상으로 이를 복습·확인하기 위해 마련한 '확인 학습'은 '학습 단계'에 포함시키지 않고 별도로 제시하기로 한다.

것끼리 선정할 수 있어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학습이 이루어질 수 있다. 이는 전 단계에 걸쳐 적용할 수 있으나, 특히 1·2·3급 정도 수준의 학습자에게 활용하면 더욱 효과적인 방법이라 생각된다. 가령, 2급에서는 (27)에서와 같이 관용어를 두 개씩 묶어 각 단원마다 혹은 홀수과나 짝수과에 규칙적으로 제시할 수 있다.

(27)
ㄱ. 눈이 낮다
눈이 높다
ㄴ. 마음이 가볍다
마음이 무겁다
ㄷ. 손을 대다
손을 잡다
ㄹ. 손을 떼다
손을 씻다
ㅁ. 입이 가볍다
입이 무겁다
ㅂ. 한잔하다
한턱내다

후자의 경우에는 본문이 어떠한 형식으로 어떤 주제를 담고 있느냐에 따라 학습의 효과가 달리 나타날 수 있다. 먼저 관용어와는 별개의 주제로 엮어진 대화문에 관용어가 제시된 경우에는 학습자가 문장차원이 아닌 담화 차원에서 관용어를 접하게 되므로 그 활용형을 익히는 것뿐만 아니라 앞뒤 문맥을 통해 관용어 의미를 이해하는 데도 도움이 된다. 이러한 방법은 한국어 수준이 낮은 학습자에게 적용하기에는 무리가 따를 수 있으나 높은 수준의 학습자에게는 효과적이다.

(28)
민준 : 지섭씨! 무슨 생각을 하고 있어요?
지섭 : 어, 민준씨. 올해 여름 휴가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었어요. 민준씨는 어디로 갈 계획이에요?
민준 : 음, 올해는 집에 있을 거예요.

지섭 : 왜요? 작년 이 무렵에는 휴가날짜만 눈이 빠지게 기다렸잖아요. 그때 해변으로 갔었죠?

민준 : 네. 그런데 작년에 해변으로 놀러 갔다가 얼마나 바가지를 썼는지 몰라요. 지금 생각해도 속이 상해요. 게다가 휴가지에 차가 너무 많아서 자동차 주차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였어요.

지섭 : 그래요? 정말 애 먹었겠군요. 그렇지 않아도 휴가지 때문에 고민하고 있었는데 민준씨 이야기를 들으니 갑자기 머리가 아프네요.

민준 : 그럼 지섭씨도 집에서 보내는데 어때요? 더구나 휴가 전까지 **눈 코 뜰 새 없이** 바쁘잖아요. 휴가는 집에서 편안하게 보내세요.

지섭 : 작년에도 집에서 휴가를 보냈기 때문에 안돼요. 그때 아내가 얼마나 **바가지를 긁었다**고요. 그래서 올해는 해변에 가기로 약속했는데 큰일이군요.

민준 : 그럼 **꿩 대신 닭**으로 수영장이라도 가는 것이 어때요?

지섭 : 수영장이요? 좋은 생각이네요. 오늘 저녁에 아내와 다시 의논해봐야겠어요.

(28)은 5급 수준의 학습자에게는 적절한 지문으로써 이전에 배운 관용어도 함께 지문에 포함시켜 복습을 유도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새로 배우게 되는 관용어[41]의 경우에는 앞뒤 문맥을 통해 학습자에게 그 의미를 유추해 보도록 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이 경우에는 관용어가 대화 내용의 흐름에 따라 제시되는 것이기에 앞서 관용어를 의도적으로 배치하여 교육할 수 있는 방법에 비해, 제시된 관용어 사이에 연관 관계가 낮아 어휘 확장을 통한 학습이 쉽지 않다. 게다가 사전에 미리 제시할 관용어를 계획하지 않고 교재를 구성할 경우에는 관용어의 구성이 산만하고 체계에 맞지 않아 오히려 관용어 학습에 장애가 될 수도 있으므로 이를 고려해야 할 것이다.

41) (26)의 지문에서 굵게 표시한 관용어가 새로 학습할 관용어에 해당한다.

그리고 이외에도 한국의 문화와 관련하여 지문을 제시할 수도 있다. 『말이 트이는 한국어 Ⅲ』에서는 '언어와 사고'라는 항목을 마련하여 한국의 문화를 소개하고 있다. (29)는 한국의 문화와 속담을 연관 지어 소개한 글이다.

(29)

한국 사람들은 언제부터 떡을 먹었을까? 농경 사회였던 한국은 삼국 시대 전부터 명절이나 중요한 날에는 여러 가지 떡을 만들어 먹었다. 사람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치르는 의례, 즉, 통과 의례에서는 그 사회의 대표적인 음식이 등장한다. 서양에서 케이크가 주로 등장하듯이 한국에서는 떡이 그 자리를 차지해 왔다. 그래서 생일, 돌, 회갑, 결혼식, 장례식 날이면 백설기, 수수경단, 인절미 등의 다양한 떡을 먹었다. 또한 각 철마다 있는 절일(節日)에도 떡은 빠지지 않는 음식이었다. 설날에는 흰떡 삼짇날에는 진달래화전, 한식날에는 쑥떡, 추석에는 송편 등을 먹었다.

한국인과 떡의 긴밀한 관계는 풍속이나 의례에서 뿐만 아니라 민담, 전설, 속담 등의 언어생활을 통해서도 알 수 있다. 민담에서 떡은 중요한 먹거리였다. '호랑이도 좋아하는 떡'이라는 민담에서는 배고픈 호랑이가 사람을 잡아먹는 대신에 떡을 받아먹고 사람을 놓아준다. 또 '아내보다 떡을 좋아한 남편' 이야기에서는 하나 남은 떡을 먹기 위해 아내와 남편이 내기를 한다. 말을 하지 않는 사람이 내기에서 이기는 것인데 남편은 떡 내기에서 이기기 위해 집에 도둑이 들어왔는데도 "도둑이야!'라고 외치지 않는다. 이러한 이야기는 호랑이나 남편의 어리석음을 말하려는 것이 아니라 한국 사회와 떡이 얼마나 깊은 관계가 있는 지를 말해주는 것이다. 한국인과 떡의 관계는 속담에서도 그 예를 찾아볼 수 있다..

그림의 떡, 떡 줄 사람은 생각지도 않는데 김칫국부터 마신다
미운 놈 떡 하나 더 준다, 가는 떡이 커야 오는 떡이 크다
굿이나 보고 떡이나 먹자, 남의 떡으로 제사 지낸다

귀신 듣는데 떡소리 한다, 누워서 저절로 입에 들어오는 떡은 없다.

이들 속담에서 떡은 사람들이 희망하는 것이고, 받고 싶어하는 것이며 귀한 것이다. 한국문화에서 떡이 차지하는 위치를 모른다면 '떡보다 더 맛있는 음식이 많고 귀한 것도 많은데 왜 꼭 떡일까?'하고 생각할 것이다. 그러나 반대로 한국인과 떡의 관계를 안다면 민담이나 속담 등에 담겨 있는 한국 사회와 한국인의 사고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1. 한국 사람들에게 떡은 어떤 음식입니까?
2. 떡이 등장하는 속담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3. 여러분 나라의 옛날 이야기나 속담에 자주 등장하는 음식은 무엇입니까? 왜 그 음식이 자주 등장합니까?

위의 글에서는 떡과 관련한 민담과 속담만이 소개되고 있지만[42] '웬 떡이냐', '입에 맞는 떡', '누워서 떡 먹기', '싼게 비지떡' 등과 같이 떡과 관련한 관용어도 함께 제시할 수 있다. 이 경우 학습자는 떡과 관련한 한국의 음식문화와 함께 관용어, 속담 등의 어휘를 함께 학습할 수 있게 된다. 그리고 음식 문화 외에도 유덕자(1998)에서 언급한 바 있는 우리나라의 농경문화를 반영한 '바가지를 긁다', '바가지를 쓰다', '풀이 죽다', '식은 죽 먹기', 말을 신중히 조심해서 하거나 적게 하는 것을 미덕으로 삼는 문화를 반영한 '입이 가볍다', '입이 무겁다', '콩으로 메주를 쑤어도' 등도 글로 엮어 학습자에게 소개할 수 있다. 단, 이들 어휘를 제시할 때에는 학습자가 혼란을 일으키지 않도록 관용어와 속담을 서로 구분해서 제시해야할 것이다.

한편, 전혜영(2001)에서는 관용어와 발화기능을 연결하여 관용어를 분류하고 있다.[43] 이 가운데 본고에서 제시한 관용어 목록을 중심으로 정리하면

42) 『말이 트이는 한국어 Ⅲ』에서는 '그림의 떡'을 속담으로 취급하고 있으나 본고에서는 이를 관용어로 보고 있다.

43) 전혜영(2001)에서는 관용어를 다른 언어적인 요소와 통합하여 과제를 수행하는 단계로

다음과 같다.[44]

<표 25> 발화 기능에 따른 관용어 분류

기능		관용어
약속하기		한턱내다/ 한잔하다/ 바람 맞다/ 눈 빠지게/ 애가 타다
물건사기		바가지 쓰다/ 바가지 씌우다/ 마음에 들다
결심(계획) 말하기		마음을 먹다
조언하기 조언 구하기		꼬리에 꼬리를 물다
경험 말하기		쥐구멍에 들어가다/ 누워서 떡 먹기/ 그림의 떡/ 하늘의 별 따기 미역국을 먹다/ 식은 죽먹기
변명하기		오리발을 내밀다/ 시치미 떼다/ 눈 감아 주다
칭찬하기		비행기 태우다
초대하기		손이 모자라다/ 손이 크다/ 발이 넓다
감정 표현 기능	기쁨	가슴이 뭉클하다/ 마음이 가볍다/ 콧날[코끝]이 찡하다
	슬픔	눈앞이 아찔하다/ 눈앞이 캄캄하다[깜깜하다]/ 애가 타다/ 풀이 죽다
	분노	비위가 상하다/ 속이 썩다
	두려움	가슴을 조이다/ 간담이 내려앉다/ 간담이 서늘하다/ 간이 떨어지다/ 간이 콩알만 하다/ 쥐구멍에 들어가다
	사랑	마음에 들다/ 눈을 감아주다

이는 각 기능별로 자주 사용되는 관용어를 모아 놓은 것으로 상황을 설정

서 '통합 활용 단계'를 설정하고 있다. 여기서 관용어를 구어적인 것과 문어적인 것으로 나누고 있다. 이 가운데 구어적 관용어의 목적은 듣기 상황에서 이해하고 말하기 상황에서 발화하는 것인데, 듣기와 말하기는 구체적인 발화 기능을 가지고 사용되어야만 유의미적인 학습이 되므로 발화기능과 관용어를 관련하여 기능 수행에 따라 관용어를 분류하였다.

44) 본고에서 제시한 관용어 목록 이외에 전혜영(2001)에서 제시한 관용어는 표에서 제외되었다. 그리고 전혜영(2001)에서 기능의 하나로 설정한 '감정 표현하기'는 김향숙(2003)을 참고하여 세분하여 제시한다.

하여 제시한다면 학습자가 관용어를 일상 회화에서 사용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② 설명 단계

설명단계에서는 기본적인 관용어 뜻풀이 외에도 그 어원이나 유의어, 반의어 등을 함께 소개하도록 한다. 그리고 이때 각 학습자 언어권의 관용어와 비교함으로써 문화적 공통점과 차이점을 함께 학습할 수 있다.[45] 가령, '그림의 떡'과 '누워서 떡 먹기'는 각각 영어로 'pie in the sky', 'as easy as pie'로 번역되는데 이를 통해 서양의 파이와 우리나라의 떡을 비교함으로써 음식문화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학습할 수 있다.

관용어 설명은 각 단계에 따라 달리 이루어져야 한다. 즉, 초급에서는 학습자의 한국어 수준이 낮으므로 관용어를 한국어로 설명하는 데 무리가 있다. 따라서, (30)과 같이 학습자의 모국어로 그 의미를 직역하여 축자적 의미를 밝히고 더불어 각 학습자 언어권에 대응하는 관용어나 의미를 함께 제시하도록 한다.

(30) **문을 닫다**

직역 : shut one's gate

번역 : ① call it a day · close for the day · closed for the day

② shut down · close down

중급 단계에서는 학습자의 모국어 번역과 한국어 해석을 함께 제시하고

45) 한 집단의 학습자들의 언어권이 지나치게 다양할 경우에 이러한 수업을 진행한다면 자칫 산만하고 비효율적인 수업으로 흐르기 쉽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관용어를 학습자의 언어권과 비교하여 문화를 학습하기 위해서는 각 학습자의 언어권이 크게 갈리지 않도록 집단을 구성하는 것이 좋다.

어원이 있을 경우에는 가능한 한 중급 학습자 수준에서 이해하기 쉬운 말로 바꾸어 그 어원을 설명하고 그럴 수 없을 때에는 학습자의 모국어로 번역하여 제시한다. 그리고 '참고' 항을 마련하여 비슷한 말, 반대말 등을 제시하여 어휘 확장을 할 수 있다.

(31)

시집가다 : get married to a man and live with one's husband's parents

Etymology: We call one's husband's home *Shi-jip* in Korean. 'Getting married to a man' connotes 'marrying into a family' in a sense that a married woman comes to live with her parents-in-law in their house. *Shi-jip* means a new home, a new family in which the bride would be devoted to her parents-in-laws. *Shi-jip* was translated as '媤宅' in Chinese, and the character '媤' was originally made in Korea, emphasizing that a married woman should devote herself to her husband and parents-in-law.

장가가다 : get married to a woman

Etymology: When a man gets married to a woman, Koreans say 'he goes to *Chang-ga*, his wife's parents' home. In the Koguryo, which was one of the ancient countries of Korea, according to its traditional custom of matrilineal society, a married man used to work for his wife's parents and was not supposed to establish his own home until he got a child. Nowadays, this old custom had faded, but its term *Chang-ga* still remains and we can see the vestige of the custom; after a Korean traditional wedding, the groom stays at his wife's home for three days.

고급 단계에서는 학습자의 모국어 번역 없이 한국어로만 설명이 가능하

다. 설명 형식은 중급에서 제시한 것 외에도 (32)과 같이 뜻풀이나 어원을 이야기로 엮어 제시할 수 있다.

(32)[46]

시치미를 떼다

"이 매는 내 거야."

"무슨 소리야? 이건 내 매야."

매 한 마리를 두고 돌이와 동이가 싸우고 있었습니다.

"못 말려. 또 싸우는 거야?"

같이 매사냥을 나온 솔이가 옆에서 한 마디 합니다.

매 사냥이란 길들인 매를 데리고 사냥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냥감을 많이 알려 주는 훌륭한 매를 탐낼 수밖에 없지요. 그런데 매들은 생김새가 비슷해서 얌체들이 남의 좋은 매를 자기 매라고 우리는 바람에 종종 싸움이 나곤 한답니다.

"그러지 말고 매에 이름표를 달면 어때? 이웃 마을에서도 다 이름표를 다는데 그 이름표를 시치미라고 부른다지, 아마."

솔이는 싸우고 있는 돌이와 동이에게 말했습니다.

"그거 아주 좋은 생각인데?"

돌이와 동이도 참 괜찮은 방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며칠 뒤 돌이와 동이, 솔이는 다시 매사냥을 나왔습니다. 이번에는 쇠뿔로 얇게 만든 이름표를 매에 하나씩 붙들어 매고서 말입니다.

"시치미만 보면 누구의 매인지 쉽게 알 수 있을 거야. 와, 이젠 싸울 일 없네!"

솔이가 흡족한 표정을 짓자, 돌이와 동이도 맞장구치며 자기 매를 쓰다듬었습니다. 그런데 매 사냥을 시작한 지 몇 시간 지나지 않아 돌이와 동이가 또 싸우는 거예요. 솔이는 얼른 달려갔습니다.

---

46) 우리누리(2000), 「그래서 이런 말이 생겼대요」, 꿈소담이.

"이건 내 매야."

"시치미를 뗀다고 누가 모를 줄 알아? 이건 내 매라고!"

화가 머리끝까지 난 동이가 돌이한테 소리를 질렀습니다.

동이 매를 탐낸 돌이가 얌체같이 동이 매의 시치미를 떼고는 자기 매라고 딱 잡아떼는 거였어요. 솔이는 두 사람이 한심하다는 듯 "못 말려!"하고 머리를 저었습니다.

이처럼 이야기로 엮어 관용어를 학습할 경우에는 학습자의 흥미를 유발하고 자연스럽게 어원과 문화를 익힐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또한, 이야기 속에 학습자 수준에 맞는 문법이나 표현을 사용함으로서 통합학습의 효과도 얻을 수 있다.

③ 활용 단계

관용어와 속담 모두 형태상 고정성을 띄고 있으나 속담은 문장 내에서 독립적인 형태를 유지할 수 있는 반면에 관용어는 문장 내에서 다른 성분들과 융합된다.[47] 따라서 학습자가 의사소통 과정에서 관용어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관용어의 기본형뿐만 아니라 활용형에 대한 학습도 이루어져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관용어의 용법상 제약[48]들 가운데 필요한 내용을 선

47) 문금현(1996ㄴ)에서는 이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
"통사 구조에서 있어서 속담은 비교적 일정한 구조적 틀을 가지고 있으며, 문맥 내에서 다른 성분들과 융화되지 못하고 두드러지는 반면, 순수 관용 표현은 문맥 내에 자연스럽게 녹아들어 있다. 즉 전자는 문장 내에서 독립성이 높고, 후자는 독립성이 낮다고 하겠다. 또 소담은 그 자체로 하나의 완전한 문장을 이룰 수 있으나, 순수 관용문은 하나의 문장 성분일 뿐이므로 다른 성분들이 더 첨가되어야 완정한 문장이 된다."

48) 관용어의 용법상 제약을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제약	적용 가능성	비고

별적으로 교육해야 한다. 그러나 이를 학습자가 또 하나의 문법으로 받아들여 관용어 학습을 어려워하거나 기피할 수 있으므로 학습자의 수준에 맞는 관용어를 활용한 예문들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익힐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활용 예문을 통해 관용어가 구어적 성향을 가지며 상황이나 상대에 따라 그 사용이 제한되는 점도 더불어 학습자에게 인지시키도록 한다.

먼저 1급에서는 관용어 교육을 위해서만 따로 예문을 드는 것 보다는 본문이나 예문을 통해 자연스럽게 노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기에 생략하기로 하고 2급부터 그 예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어순 도치	△	· 관용어의 어순 도치가 전혀 불가능하다고 할 수는 없으나 중의성의 지니고 있는 관용어의 경우 축자적 의미로의 해석 가능성이 높아진다. · 관용어를 관형화하는 경우에는 관용 의미가 사라진다.
수식	△	· 논항 수식의 경우에는 관용의미가 사라지나, 수식이 술어에만 일어나는 경우에는 관용 의미가 유지된다.(단, 술어 수식의 경우에도 관용의미에 적합한 수식어가 아닐 때에는 관용의미를 잃어버린다.) · 체언형 관용어는 관용어 전체를 수식할 경우에만 관용 의미가 유지된다.
부정형	△	· 용언형 관용구의 경우에는 '안'과 '못'을 사용한 단형부정과 장형부정이 모두 가능하나, 서술형 관용어는 '안' 삽입만 가능할 뿐 '못'의 사용은 부자연스럽다 · 체언형 관용어, 부사형 관용어는 '안'과 '못' 사용이 불가능하다.
대치	×	· 관용어의 일부를 다른 어휘와 대치할 경우 관용 의미가 사라진다.
대명사화	△	· 관용어의 대명사화는 관용어의 특성에 의해 관용어의 구성요소가 아닌 전체를 대명사화할 때 성립한다.
피동화와 사동화	△	· 관용어가 타동사와 같은 기능을 가지면 일부가 피동화 될 수 있다. 그리고 예외적으로 자동사이지만 피동화가 되는 것도 있다. · 사동화는 피동화와 마찬가지로 부분적으로 인정된다. 그러나 사동화가 되는 것 가운데 대부분이 단형 사동화에는 제약을 보이고 있으며, 둘 다 가능한 경우에도 단형 사동화보다는 장형 사동화가 더욱 자연스럽다.

<표 26> 학습 단계별 관용어 활용 예문

학습 단계		관용어 활용 예문
초급	2급	· 한턱내다 : 오늘은 제 생일입니다. 제가 한턱내겠습니다. · 입이 가볍다 : ① ○○씨를 믿지 마세요. ○○씨는 입이 가벼워요. ② 저는 입이 가볍지 않습니다.
중급	3급	· 손이 가다 : ① 손이 많이 가는 일은 어려워요. ② 이 요리는 손이 많이 가지 않아요. · 귀가 얇다 : ① 제 동생은 귀가 너무 얇아서 큰일이에요. ② 저는 귀가 얇은 사람이 아니에요.
	4급	· 머리를 쓰다 : ① 오늘 머리를 너무 많이 써서 피곤해요. ② 머리를 쓰는 일은 하고 싶지 않아요. · 손때가 묻다 : ① 손때가 묻은 가구는 버리기 싫어요. ② 이 집의 곳곳에 제 손때가 묻어 있어요.
고급	5급	· 눈을 감아주다 : ① 이번 한번만 눈을 딱 감아주세요. 앞으로 절대 실수하지 않겠어요. ② 당신이 저지른 잘못은 눈을 감아줄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6급	· 기가 막히다 : ① 어머니가 만드신 불고기는 기가 막히게 맛있어요. ② 그 소식을 들으니 너무 기가 막혀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 골탕을 먹다 : ① 누나는 언제나 나를 골탕 먹인다. ② 친구가 시키는 대로 했다가 골탕만 먹었다. ③ 동생인 나를 계속 괴롭히다가는 언젠가 형이 꼭 골탕 먹게 될거야.

2급 수준의 학습자는 관용어를 문두나 문중에 넣어 자유롭게 활용하기에는 무리가 따르므로 구절형태의 관용어가 서술절로 활용되는 예를 보이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리고 이때 부정형을 사용한 예문도 함께 제시하여 학습자가 자연스럽게 익힐 수 있도록 한다. 3급부터는 관용어를 문장 내에서

자유롭게 활용하여 부정형뿐만 아니라 '너무', '많이' 등의 부사를 삽입한 문장의 예도 함께 보여 줄 수 있다. 또한, 관용어의 형태가 고정되어 있기는 하지만 조사의 생략이 빈번하게 이루어지므로 이에 대한 교육도 활용 단계에서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그리고 제시하는 예문은 반드시 학습자의 문법, 어휘, 표현 등이 언어 수준을 고려하여 해야 하므로 피·사동형의 예문은 6급에서 제시하도록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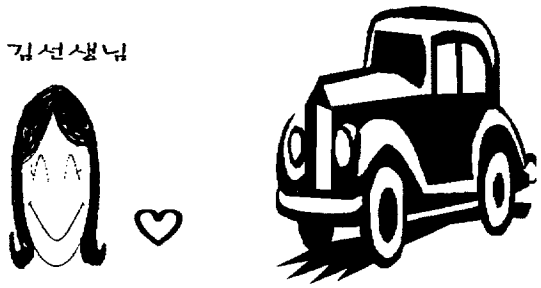
3) 관용어 확인 학습

확인 학습은 학습자가 학습한 관용어를 얼마나 잘 이해하고 있는가를 알아보는 동시에 반복학습의 효과까지 얻을 수 있기에 반드시 필요하다. 문제의 유형에 따라 얻을 수 있는 학습의 효과가 달리 나타남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유형을 반복적으로 제시하는 것은 학습자의 흥미 저하뿐 아니라 무엇보다도 학습 효과를 높이기 어렵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학습자의 수준을 고려하여 다양한 문제 유형을 제시하고자 한다.

① 초급

초급 단계에서는 가능한 적은 어휘를 사용하여 문제를 출제해야 하며, 특히 1급에서는 학습한 표현이나 어휘 등의 양이 적으므로 그림을 이용한 문제가 효과적이다. 즉, <그림 6>과 같이 상황 혹은 맥락을 이해할 수 있도록 그림을 제시한 후, 관용어를 사용하여 빈칸을 채우거나 짧은 문장을 만들도록 하는 문제를 이용할 수 있다.

<그림 6>



1. 김선생님은 자동차가 마음에 든다

2급에서는 관련된 것끼리 선을 그어 연결하는 문제를 이용할 수 있다. 이때 학습자의 수준에 맞게 그 의미를 제시하기 어려울 경우에는 이를 학습자의 모국어로 번역하여 제시하도록 한다.

(33) Underline the words in idiom-meaning.

㉠ 손을 씻다 · · set one's sight too high

㉡ 눈이 높다 · · have a big mouth

㉢ 입이 가볍다 · · wash one's hands of somebody/something

또는 학습자가 직접 문장 속에서 관용어를 활용하여 쓸 수 있도록 하는 문제도 있다. 이때 문제에 사용된 예문은 학습자가 이미 알고 있는 어휘나 표현을 이용하도록 한다.

(34) Complete the sentence below using the glossary in parenthesis.

가 : 김 선생님, 생일을 축하합니다.

나 : 고맙습니다. 오늘 _____?(한잔하다)

가 : 좋습니다.

나 : 오늘은 제가 _____(한턱내다)

② 중급

3급에서는 앞서 2급에서 제시했던 문제 유형 외에도 (35)와 같이 관용어의 의미를 고르는 문제를 활용할 수 있다.

(35) 아래 관용어의 의미를 보기에서 고르세요.

1. 발이 넓다 ( )

① 발이 크다 ② 씀씀이가 크다 ③ 아는 사람이 많다 ④ 발이 두껍다

2. 국물도 없다 ( )

① 먹을 것이 없다 ② 이익이 없다 ③ 손해를 보다 ④ 깨끗이 먹다

그리고 3급의 활용학습에서 부정형이나 수식 등에 대한 학습이 이루어지므로 확인학습에서는 (36)과 같이 <보기>를 제시하고 문제의 빈칸에 맞는 관용어를 선택해 활용하는 문제를 출제할 수 있다. 이러한 유형의 문제를 통해 학습자는 관용어 의미뿐만 아니라 제시된 대화문의 문맥을 파악하고, 문맥에 맞도록 관용어를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를 수 있다.

(36) <보기>에서 알맞은 관용어를 골라 빈칸을 채우세요.

<보기>

말을 놓다	손을 보다	마음먹다	바람맞다	한잔하다

㉠ 가 : ○○씨는 몇 살이에요?

나 : 20살이에요. △△씨는요?

가 : 저도 20살이에요.

나 : 그럼 우리 _____?

가 : 그래. 좋아.

㉡ 가 : 어제 ○○씨와 남포동에서 만났나요?

나 : 아니요. 어제 ○○씨한테 _____.

가 : 사실, 어제 ○○씨가 서면에서 애인과 함께 놀고 있는 것을 봤어요.

나 : 뭐라고요?

이외에도 '십자말풀이'와 같은 문제도 이용할 수 있다. 그런데 관용어의 경우 조사가 생략되어 쓰이는 경우가 많으므로 <보기>를 제시하여 혼란을 피하는 것이 좋다. 가로 열쇠와 세로열쇠를 통해 힌트를 줄 때는 관용어의 의미를 직접 제시하는 방법 외에도 여러 가지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 즉, 관용어의 의미를 학습자의 수준에 맞추어 쉽게 제시하기 어려울 경우에는 학습자의 모국어로 번역하거나 혹은 짧은 예문을 통해 관용어를 유추하도록 할 수 있도록 할 수 있으며, 또는 유의어나 반의어를 제시할 수도 있다.

(37) '가로 열쇠'와 '세로 열쇠'를 보고 <보기>에서 해당하는 어휘를 골라 빈칸을 채우세요.

									㉲애	
			㉯손						를	
			발			㉤미	역	㉲국	먹	다
	㉮바		이					물	다	
㉠바	람	을	맞	다				도		
	이		다			㉱말		없		
	나				㉣발	을	베	다		
	다			㉰눈		놓			㉴장	
			㉢손	이	가	다			가	
				높			㉥시	집	가	다
㉡낯	이	두	껍	다					다	

<보기>

낯이 두껍다	바람을 맞다	국물도 없다	국수를 먹다	눈이 높다
눈이 멀다	말을 놓다	머리를 쓰다	미역국 먹다	바람을 피우다
바람이 나다	발을 빼다	손발이 맞다	손을 보다	손을 잡다
손이 가다	시집가다	애를 먹다	장가가다	낯설다

《가로 열쇠》

㉠ be fooled[cheated]; be taken in; be rejected; be stood up; get the cold shoulder

㉡ (be) brazen-faced[shameless, impudent, cheeky, audacious]

㉢ take[need] a lot of care; require attention; be troublesome

㉣ 비슷한 말 : 발을 끊다, 손을 떼다

㉤ 시험에 떨어지다

㉥ 여자가 결혼하다

《세로 열쇠》

㉮ lead a loose life; keep fast company

㉯ 생각 혹은 행동이 서로 잘 맞다

㉰ 반대말 : 눈이 낮다

㉱ 반말하다

㉲ 아무 이익도 없다

㉳ 마음 고생하다

㉴ 남자가 결혼하다

③ 고급

5급과 6급은 고급 수준의 학습자이기에 확인 학습 문제에 사용된 문법과 표현 그리고 어휘 등에서 다소 차이를 둘뿐, 문제 유형에는 크게 차이를 둘 필요가 없다. 이 단계에서는 앞서 중급에서 제시했던 문제 유형도 제시

할 수 있으나, 이 외에 아래와 같이 관용어의 활용형을 고르는 문제나 헷갈리기 쉬운 관용어의 의미를 선택하는 문제 유형을 출제할 수 있다.

(38) ( )괄호에 가장 알맞은 것을 고르세요.

1. 친구가 내 그릇을 깨고도 (　　), 정말 얄미워요. (　)

① 시치미를 떼줘서　　② 시치미를 뗄테니

③ 시치미를 떼니　　④ 시치미를 떼지 않아

2. 철수는 선생님 (　　) 말썽꾸러기가 아니에요. (　)

① 골치를 앓는 ② 속을 썩이는 ③ 애가 타는 ④ 머리를 식히는

(39) 밑줄 친 부분과 의미가 같은 어휘를 고르세요.

1. 언니는 밥이나 낮이나 고향에 계신 부모님 생각만 해요. (　)

① 늘　② 가끔　③ 종종　④ 자주

2. 정애는 우리 반에서 콧대가 가장 높다. (　)

① 코가 가장 크다　　② 자존심이 가장 세다

③ 잘난 체하고 뽐낸다　　④ 냄새를 잘 맡는다

그리고 고급 단계에서는 문장의 의미를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하여 관용어를 사용해 직접 작문하는 연습이 필요하다. 이는 관용어 학습 외에도 학습자가 익힌 문법이나 표현 등을 함께 사용하게 되므로 통합 학습의 효과도 얻을 수 있다.

(40) <보기>에서 알맞은 관용어를 골라 빈칸을 채우세요.

<보기>

간담이 내려앉다	깨가 쏟아지다	꼬리가 길면 잡히다
꼬리에 꼬리를 물다	싼게 비지떡	오리발을 내밀다

1. 가 : 이 바지는 값이 싸기는 하지만 질이 별로 좋지 않은 것 같아.
그래서 사야 할지 말아야 할지 고민이야.

나 : _____

2. 가 : 어제 결혼한 신혼부부 봤니? 얼마나 사이가 좋은지 몰라.

나 : _____

3. 가 : 어머, 식탁에 올려놓은 떡이 또 없어졌네. 벌써 이게 몇 번째야.
한두 번도 아니고...

나 : _____

(41) <예>와 같이 관용어를 사용하여 빈칸을 채우세요.

<예> 와플이 불 사고만 일으켜서 정말 골치가 아파요.

1. 내 친구는 마라톤 선수라서 1000m 달리기는 식은 죽 먹기야.
2. 갑작스런 아저씨의 사고 소식을 듣자 눈앞이 아찔했어요.

다음은 만화를 활용해 전체 상황을 파악하여 빈칸을 채우는 문제이다. 만화는 지문보다 학습자에게 더욱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어 흥미를 높일 수 있다.[49]

49) (30)에 제시된 관용어가 6급으로 분류되어 있어 고급단계에서 이를 제시하였으나 만화 속 지문에 사용된 문법·표현·어휘가 학습자의 수준에 적절하다면 초급이나 중급단계에서도 활용 가능하다.

<그림 7>[50]

이 외에 신문을 이용한 학습도 있는데, 조항록(1998)에서도 언급하였듯이 고급 학습자들에게 신문은 사회의 제 현상 담고 있는 총체적 도구로서 문화교육 현장에서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다. 특히 신문의 제목은 함축적인 표현을 즐겨 사용하는데 여기에 관용어가 흔히 사용되고 있다.

<그림 8>

제목 : _____

<주경원 기자> (오마이 뉴스 2002. 10. 29)

50) 우리누리(2002), 『그래서 이런 말이 생겼대요』, 꿈소담이.

위의 <그림 8>은 그림이 의미하는 바를 알고 그 의미를 함축적으로 담고 있는 관용어를 사용하여 제목을 짓는 문제이다. <그림 8>과 같은 한 컷 만화는 일반적으로 당시의 정치·경제·사회·문화 전반에서 가장 화제가 되는 주제를 표현하므로, 이를 통해 문화를 익히게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학습자들의 토론을 유도하여 통합 학습을 꾀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42)와 같은 기사문도 위와 같은 형식의 문제로 활용할 수 있다. 즉, 학습자가 기사의 전체 내용을 파악하고 이를 함축적으로 나타낼 수 있는 관용어를 이용하여 제목을 짓도록 하는 것이다. 기사문 역시 토론 학습이 가능하며 또한 표현이나 어휘 학습까지 이루어질 수 있다.

(42) [한마디] 무지한 환경파괴 제 발등 찍는다

그동안 한국사회에서 주도적인 흐름은 '개발과 성장'이었다. 이를 뒷받침하는 '자본주의적 경제성장 이데올로기'는 자연에 대해 인간의 가해를 정당화하였고, 인간사이의 공동체성은 파괴되고 있다.

- 중략 -

나무나 동식물, 대지와 공기를 파괴하는 것은 자기 몸을 다치게 하는 것이다. 오늘날의 환경파괴는 자기 몸에 상처내기와 같다. 명상이란 그저 호흡에만 깨어 있는 것이 아니라, 바위에 앉고 나무를 만질 때, 그 나무 와 바위가 나의 일부이며, 물소리와 날아가는 저 새가 나의 일부라는 것 을 깨닫는 것이다. 그런 일체관의 명상에 들게 되면 미워해야 할 대상, 싸워야 할 적이 없어진다. 이기고 지는 관계 속에서 이기기 위한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연관과 조화를 중시하는 삶이 가장 큰 행복이라는 깨달음이 절실하다.

<박석동. 한국불교환경교육원 사무국장> (매일경제 2002. 5. 20)

3. 관용어 교육의 실제

관용어 교육은 '제시단계→설명단계→활용단계'를 통해 관용어 학습을 한 후, 확인학습을 통해 이해도를 측정하는 것으로 구성된다. 이를 바탕으로 실제 교수·학습 지도안을 제시하면 <표 27>과 같다.

<표 27> 관용어 교육을 위한 교수·학습 지도안

학습주제	관용어	대상	5급 수준의 외국인 학습자		
학습 목표	· 일상 대화에서 사용하는 관용어의 의미를 이해하고 이를 활용하여 말할 수 있다. · 관용어 학습을 통해 문화적인 공통점과 차이점을 이해할 수 있다.				
단계	학습내용	교수·학습 활동		학습형태	유의점 및 자료
		교사활동	학생활동		
도입 (10분)	출석점검 학습목표 제시·확인 동기 유발	출석점검 및 인사 학습목표를 확인한다. 십자말풀이를 통해 흥미를 유발한다.	인사 학습목표를 인식한다. 십자말풀이를 한다.	개별 학습	자료①
전개 (30분)	본문 내용 이해 문맥을 통한 관용어 의미 유추	본문을 읽게 한다. 본문의 대략적인 내용을 묻는다. 새로 등장하는 관용어의 의미를 문맥을 통해 유추하게 한다. 예) '하늘의 별 따기'라는 말이 무슨 의미일까요?	본문을 읽는다. 본문의 내용을 이야기한다. 관용어의 의미를 유추하여 말한다. -'_____'는 의미 같아요.	개별 학습 문답 학습	자료② 학습자가 자유롭게 말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조성한다.

	관용어 의미 파악	발표한 내용을 정리한 다음 관용어의 의미를 설명한다.	관용어의 의미를 이해한다.	개별 학습	자료③
	관용어를 통한 문화 학습	관용어를 학습자의 모국어와 비교하거나 혹은 비교하도록 하여 문화적인 공통점 혹은 차이점을 이해하도록 한다. 예) '_____'이라는 말과 유사한 것이 영어(일어, 중국어…)에도 있나요?	학습한 관용어를 자신의 모국어와 비교하한 후 문화적인 공통점 혹은 차이점을 이해한다. 예)네. 있어요. 우리나라에서는 '_____'라고 해요.	문답 학습	발표 후 문화적 공통점과 차이점을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 준다.
	어휘확장	학습한 관용어와 관련된 다른 관용어를 제시하여 어휘 확장을 유도한다.	학습한 관용어와 관련된 다른 관용어를 안다.	개별 학습	
	관용어 활용 학습	관용어를 활용한 문장을 이해하게 한다. 질문을 한 뒤, 학생이 관용어를 활용하여 대답하도록 한다. 예) 내일 뭐해요?	관용어를 활용한 문장을 이해한다. 관용어를 활용하여 질문에 대답한다. -내일 시험을 쳐서 눈코 뜰 새 없이 바빠요.	개별 학습 문답 학습	
정리 (10분)	확인 학습 차시 예고	학습지 제시 차시 예고 및 정리	학습지 풀기 차시에 학습할 내용 확인	개별 학습	자료④

<재미있는 관용어> - 자료①

* '가로열쇠'와 '세로열쇠'를 보고, 해당하는 답을 <보기>에서 찾아 빈칸을 채우세요.

		㉮머				
	㉡머	리	가	아	프	다
		를				
㉠㉭애	를	쓰	다			
가		다				
타				㉣목		
다			㉢손	이	가	다
		㉯속		빠		
	㉰눈	이	빠	지	게	
		상		게		
		하				
		다				

<보기>

눈이 빠지게	마음을 먹다	머리가 아프다	머리를 쓰다	머리를 짜다
손이 가다	목이 빠지게	속이 상하다	손을 보다	애가 타다
애를 먹다	애를 쓰다			

《가로열쇠》

㉠ 안타깝거나 초조하다.

㉡ (걱정거리 등으로 인해) 기분이 좋지 않다.

㉢ 몹시 애타게 오래.

㉣ 노력이 들다

《세로열쇠》

㉭ 마음 고생하다.

㉯ 좋은 방법을 생각하다.

㉰ 괴롭다

㉱ ㉢의 유의어.

< 본문 > - 자료②

민준 : 지섭 씨! 무슨 생각을 하고 있어요?

지섭 : 어, 민준 씨. 올해 여름 휴가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었어요. 민준 씨는 어디로 갈 계획이에요?

민준 : 음, 올해는 집에 있을 거예요.

지섭 : 왜요? 작년 이 무렵에는 휴가날짜만 눈이 빠지게 기다렸잖아요. 그때 해변으로 갔었죠?

민준 : 네. 그런데 작년에 해변으로 놀러 갔다가 얼마나 바가지를 썼는지 몰라요. 지금 생각해도 속이 상해요. 게다가 휴가지에 차가 너무 많아서 자동차 주차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였어요.

지섭 : 그래요? 정말 애 먹었겠군요. 그렇지 않아도 휴가지 때문에 고민하고 있었는데 민준 씨 이야기를 들으니 갑자기 머리가 아프네요.

민준 : 그럼 지섭 씨도 집에서 보내는데 어때요? 더구나 휴가 전까지 **눈코 뜰 새 없이** 바쁘잖아요. 휴가는 집에서 편안하게 보내세요.

지섭 : 작년에도 집에서 휴가를 보냈기 때문에 안 돼요. 그때 아내가 얼마나 **바가지를 긁었다**고요. 그래서 올해는 해변에 가기로 약속했는데 큰일이군요.

민준 : 그럼 **꿩 대신 닭**으로 수영장이라도 가는 것이 어때요?

지섭 : 수영장이요? 좋은 생각이네요. 오늘 저녁에 아내와 다시 의논해야겠어요.

<관용어> - 자료③

1. **하늘의 별 따기** : 매우 어려운 것.

   반대말 : 누워서 떡 먹기 / 식은 죽 먹기

   예) 서울에서 집을 장만하기는 하늘에 별 따기이다.

   철수에게 돈을 빌리는 일은 하늘에 별 따기야.

2. **눈 코 뜰 사이[새](가) 없다** : 바쁘다

   예) 일이 너무 많아서 눈 코 뜰 사이가 없다.

   취업 준비 때문에 모두 눈 코 뜰 새 없이 바쁘게 지내고 있어.

3. **바가지를 긁다** : (아내가 생활의 어려움에서 오는 불평이나 남편에 대한 불만을 늘어 놓으면서) 잔소리를 하다.

   어원 : '바가지를 긁다'는 옛날에는 콜레라가 돌 때 전염병 귀신을 쫓는다고 바가지를 득득 문질러서 시끄러운 소리를 내는 데서 생긴 말이다.

   참고 : 바가지를 쓰다

   예) 매일 늦게 들어오는 남편 때문에 아내는 늘 바가지를 긁었다.

   상우 씨는 아내가 바가지 긁는 것을 제일 싫어해요.

4. **꿩 대신 닭** : 적당한 사람이나 물건이 없을 때, 그것 보다는 못하지만 그와 비슷한 것으로 대신하는 경우에 쓰는 말.

   어원 : 옛날에 떡국을 끓일 때 꿩고기로 국물을 만들었다. 그러나 꿩은 사냥을 해야 잡을 수 있기 때문에 쉽게 구할 수가 없었다. 그래서 꿩을 구한 집에서는 집에서 기르는 닭을 잡아 국물을 만들어 떡국을 끓였다. 여기서 '꿩 대신 닭'이라는 말이 유래하였다.

   참고 : 꿩 먹고 알 먹고

   꿩 구워 먹은 소식

   예) 갈비를 먹고 싶지만 돈이 없으니 꿩 대신 닭으로 삼겹살이라도 먹자.

   오늘 면접시험에 입고 갈 정장이 없어요. 꿩 대신 닭으로 언니 원피스라도 빌려 입어야겠어요.

<학습지> - 자료④

* 밑줄 친 부분과 뜻이 같은 것을 고르세요.

1. 내 친구는 매일 운동을 해서 1000m 달리기는 식은 죽 먹기야.

① 재미가 없다 ② 쉽다 ③ 하고 싶지 않다 ④ 지겹다

2. 남편이 잘못했으면 아내가 잔소리를 해도 참아야 해요.

① 바가지 쓰다 ② 말이 많다 ③ 바가지 긁다 ④ 말을 놓다

* 괄호 안의 어휘를 이용하여 빈칸을 완성하세요.

1. 동훈 : 마이클! 오랜만이야. 어떻게 지냈어? (눈 코 뜰 사이[새](가) 없다)

마이클 : _____.

2. 아들 : 엄마, 볶음밥 먹고 싶어요. (꿩 대신 닭)

엄마 : _____.

3. 민우 : 올해 졸업을 하는데 취업이 안돼서 큰일이야. (하늘의 별 따기)

인성 : _____.

* <보기> 안의 어휘를 3개 이상 사용하여 짧은 글을 지어보세요.

<보기>

꿩 대신 닭 / 눈위서 떡 먹기 / 눈이 빠지게 / 눈 코 뜰 사이[새](가) 없다 / 마음을 먹다 / 머리가 아프다 / 머리를 쓰다 / 머리를 짜다 / 목이 빠지게 / 바가지 긁다 / 속이 상하다 / 손을 보다 / 손이 가다 / 식은 죽 먹기 / 애가 타다 / 애를 먹다 / 애를 쓰다 / 하늘의 별 따기

V. 결론

둘 이상의 자립성을 가진 어휘가 결합하여 제 3의 의미를 지니는 관용어는 일상 회화에서 사용빈도가 높을 뿐 아니라 다른 어휘들에 비해서 해당 언어권의 문화 반영도가 높은 어휘로 문화교육의 차원에서도 가치가 있다. 그러나 축자적 의미로 관용 의미의 파악이 어려워 외국인의 경우에는 이를 익히기 쉽지 않아 반드시 체계적인 학습이 필요하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현행 한국어 교재를 통해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관용어 교육의 실태와 문제점을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하여 관용어 교수·학습 방안을 제시하였다.

제 Ⅲ장에서는 관용어 교육과 관련하여 현행 한국어 교재 분석하였는데, 이를 통해 드러난 문제점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관용어 목록 설정이 체계적이지 못하다. 단계가 올라갈수록 많은 관용어가 제시되어야 하지만 대부분의 한국어 교재들이 그러하지 못하다. 즉, 높은 단계에 제시된 관용어가 낮은 단계에서 제시된 관용어에 비해 그 수가 적거나 혹은 지나치게 많은 경우가 있는가 하면 고급 단계에만 관용어가 지나치게 몰려있는 경우가 있다. 한편, 각 교재에 제시된 관용어 합계의 편차가 심한데 이러한 편차는 교재 가운데 관용어 학습을 사전에 계획하지 않고 본문이나 예문의 내용 흐름에 따라 관용어를 제시함으로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이로 인해 학습자의 수준에 맞지 않는 관용어가 제시되기도 한다. 관용어의 목록을 설정할 때는 관용어의 빈도수나 문화 반영도 등도 당연히 고려해야하지만 무엇보다 학습자의 수준에 맞는 관용어를 우선하여 제시해야 할 것이다.

둘째, 관용어 제시 방법이 적절하지 못하다. 관용어 학습란을 마련하거나

혹은 단원을 설정하여 집중적으로 관용어를 학습할 수 있도록 한 교재도 있으나 그렇지 않은 교재의 경우에는 본문이나 예문의 내용 흐름상 필요성에 의해 포함되어 학습자가 관용어의 기본형조차 파악하기 어렵다.

셋째, 관용어 의미 설명이 미흡하다. 특히, 따로 관용어 학습란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교재의 경우에는 어원 설명은 거의 없을 뿐만 아니라 뜻풀이된 관용어가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 또한, 뜻풀이가 된 경우에도 그 풀이에 사용된 문법, 표현, 어휘 등이 학습자의 수준에 맞지 않는 것이 있어 문제가 되는 것도 있다. 그리고 관용어 학습을 위해 항목을 따로 마련한 교재들도 관용어 학습을 위해 마련한 항목이 아닌, 본문이나 예문을 통해 제시된 관용어는 그 의미를 풀이해 놓지 않은 것이 많이 있다.

넷째, 확인 학습이 충실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확인 학습은 반복 학습의 의미 외에도 학습자의 학습 이해도 측정하여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피드백할 수 있는 중요한 학습의 일부임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교재에서 이에 대한 학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그리고 이에 대한 확인 학습이 마련된 경우에도 문제 유형이 다양하지 못해 큰 효과를 얻지 못하고 있는 것도 있다.

다섯째, 색인에 누락된 관용어가 많다. 색인은 교재에 새로 등장하는 어휘를 실음으로써 어휘 학습에 도움을 주기 위해 마련한 것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교재가 절반 이상의 관용어를 색인에 누락시키고 있으며, 간혹 색인 관용어의 기본형을 등재하지 않거나 새로운 관용어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색인에 반복 제시하고 있는 경우를 볼 수 있다.

이에 제 Ⅳ장의 제 1절에서는 이상의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 학습자의 수준에 따라 관용어 목록을 제시하고, 관용어 학습(제시단계→설명단계→활용단계)과 이를 복습하고 이해도를 측정할 수 있는 확인 학습을 마련함으로써 관용어 학습의 체계를 마련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내용을 바탕으로

하여 제 2절에서는 교수·학습 지도안을 구안하였다.

제 Ⅳ장에서 관용어 교육과 관련하여 현행 교과서의 문제점을 극복하고 효과적인 교수·학습을 위해 제시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첫째, 관용어의 목록을 수준별로 나누어 제시하였다. 총 120개~150개의 관용어를 1급부터 6급까지 학습자가 학습해야 하는 적정수로 설정하고, 이를 6단계로 나누어 급수가 높아질수록 관용어의 개수 또한 증가 하도록 하였다. 또한 초급에 해당하는 1급과 2급 수준의 학습자에게는 신체 관용어와 같이 구성 어휘가 쉽고 사용 빈도가 높은 근접투명성 관용어를 학습할 수 있도록 하고, 중급에 해당하는 3급과 4급 수준의 학습자에게는 근접투명성 관용어와 반불투명성 관용어를 학습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리고 고급 수준인 5급과 6급에 해당하는 학습자는 근접투명성 관용어와 반불투명성 관용어뿐만 아니라 불투명성 관용어까지 학습할 수 있도록 목록을 설정하였다.

둘째, 관용어 학습을 제시단계, 설명단계, 활용단계로 나누어 효과적인 관용어 교수·학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다. 먼저, 제시단계에서는 관용어 학습란을 따로 마련하는 방법과 본문의 내용을 통해 제시하는 방법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이때 전자는 낮은 수준의 학습자에게, 후자는 높은 수준의 학습자에게 적절한 방법으로 보고, 이를 예와 함께 제시하였다. 이어 설명단계에서는 관용어의 의미 해석 외에도 그 어원이나 유의어, 반의어를 함께 소개하여 문화 교육과 더불어 학습자의 어휘 확장을 이루어지도록 하였다. 활용단계는 학습자가 관용어를 일상회화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한 단계로서, 학습자가 예문을 통해 관용어가 활용된 예를 자연스럽게 익힐 수 있도록 하였다.

셋째, 학습자의 수준에 맞는 다양한 확인 학습 유형을 제시하였다. 확인 학습은 학습자가 이미 학습한 내용을 복습하고, 자신의 학습 성취도를 평

가하는 중요한 교수·학습 과정임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현행 한국어 교재가 확인학습과 관련한 내용을 소홀히 다루고 있었다. 이에 본고에서는 학습자의 수준별로 확인 학습의 문제 유형을 제시하여 학습한 관용어를 복습·점검할 수 있도록 하였다. 특히, 문맥 파악 능력, 어휘력, 작문 능력 등을 함께 신장시킬 수 있는 다양한 문제 유형을 통해 학습자의 흥미뿐만 아니라 학습 효율도 높일 수 있도록 하였다.

본 논문은 불특정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여 보편적인 관용어 교수·학습 방안을 마련하였기 때문에 대상 선정이 구체적이지 않아 각 학습자의 특성을 반영하는 데 미흡하다는 한계를 지니고 있다. 이에 앞으로 언어권, 문화권, 연령, 지식수준 등을 기준으로 구체적인 학습자 대상을 분류하고 이들을 위한 구체적인 교육 방안이 개발되어야 할 것이다.

참고 문헌

강위규(1990), “관용 표현의 개념과 성립 요건”, 『한글』 209, 한글학회.

강위규(1990), 「우리말 관용 표현 연구」, 부산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곽지영(1997),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어휘 연구”, 『말』 22, 연세대학교 언어연구교육원 한국어학당.

김광해(2003), “국어교육용 어휘와 한국어교육용 어휘”, 『국어교육』 111, 한국국어교육연구학회.

김문창(1975), 「국어 관용어 연구」, 서울대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김문창(1990), “숙어 개념론”, 『韓國學硏究』 2, 인하대학교한국학연구소.

김준기 · 김향숙(2003), 『현대국어 관용어 연구-구약성서를 중심으로』, 한국문화사 .

김향숙(2003), 『한국어 감정표현 관용어 연구』, 한국문화사.

문금현(1996ㄱ), “관용 표현의 생성과 소멸”, 『국어학』 28, 국어학회.

문금현(1996ㄴ), 「국어의 관용 표현 연구」, 서울대 박사학위 논문.

문금현(1998),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관용표현의 교육”, 『이중언어학회지』 15, 이중언어학회.

문금현(1999), “관용표현에 대한 국어교육학적 고찰”, 『先淸語文』 27, 서울대학교사범대학국어교육과.

문금현(2000), “구어 텍스트를 활용한 한국어 어휘 교육”, 『한국어 교육』 11, 국제한국어교육학회.

민현식(1996), “국제 한국어 교육을 위한 국어 문화론의 내용 구성 연구”, 「한국말 교육」 7, 국제 한국어 교육학회

박갑수(1994),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교육과 문화적 배경”, 『선청어문』 26, 서울대 국어교육과.

박세영(2001), 「국어 관용어 판정에 대한 연구」, 고려대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박숙희 편(1994), 『뜻도 모르고 자주 쓰는 우리말 500가지』, 서운관.

박영순(1985), “관용어에 대하여”, 『국어교육』, 한국국어교육연구회.

박영순(1989), “제2언어교육으로서의 문화 교육-한국어의 문화적 요소를 중심으로-”, 「이중언어학회지」 5, 이중언어학회.
박영순(2002),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교육론』, 월인.
박영준(2000), “한국어 숙달도 배양을 위한 문화적 어휘·표현의 교육”, 『한국어 교육』 11, 국제한국어교육학회.
박영준(2001), “관용어 사전의 실제와 개선방안”, 『한국어학』 13, 한국어학회.
박영준·최경봉(1996), 『관용어 사전』, 태학사.
박일환 편(1994), 『우리말 유래사전』, 우리교육.
성기철(1998), “한국어 교육의 목표와 내용”, 『이중언어학』 15, 이중언어학회.
성기철(2001), “한국어 교육과 문화 교육”, 『한국어 교육』 12, 국제한국어교육학회.
심재기(1986), “한국어 관용표현의 화용론적 연구”, 『관악어문 연구』 11, 서울대학교 국어국문학과.
안경화(1987), 「한국어 숙어의 유형에 대한 분석적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안경화(2001), “속담을 통한 한국 문화의 교육 방안”, 『한국어 교육』 12, 국제한국어교육학회.
우리누리(2002), 『그래서 이런 말이 생겼대요』, 꿈소담이.
우리어문학회 편(2001),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교육』, 국학자료원.
유덕자(1998),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관용어 교육」, 이화여대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윤희수(1990), “관용어의 굳은 정도, 『논문집』 11, 금오공과대학.
이도영(1996), “문화 교육으로서의 국어 교육”, 『선청어문』 24, 서울대 국어교육과.
이영숙(1992), “신체관용어와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교육에의 활용”, 『말』 17, 연세대학교
장경은(2001), “문화를 통한 한국어 교육의 실현 방안”, 『말』 25, 연세대학교 언어연구교육원 한국어학당.
장세경·장경희(1994), “국어 관용어에 관한 연구-정서 표현을 중심으로”,

『한국학논집』 25, 한양대학교한국학연구소.
전혜영(2001), "한국어 관용표현의 교육 방안", 『한국어 교육』 12, 국제한국어교육학회.
조항록(1998), "한국어 고급 학습자를 위한 한국 문화 교육 방안", 『한국어 교육』 9, 국제한국어교육학회.
조항록(2000), "초급 단계에서의 한국어 교육과 문화 교육", 『한국어 교육』 11, 국제한국어교육학회.
조항록(2001), "한국어 교육의 현황과 교육 정책",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교육』 25, 연세대학교 한국어학당.
조현용(1999), "한국어 어휘의 특징과 어휘 교육", 『한국어 교육』 10, 국제한국어교육학회.
조현용(2000), 『한국어 어휘교육 연구』, 박이정.
조현용(2003), "비언어적 행위 관련 한국어 관용표현 교육 연구, 『한국어 교육』 14, 국제한국어교육학회.
주경희(2002), "속담과 관용어의 차이점-의미 실현 양상을 중심으로", 『국어국문학』 130, 국어국문학회.
주영진(2001), "우리말 속담의 관용어 되기 원리", 『동남어문집』 12, 동남어문학회.
진대연(1999), "한국어 교재 분석의 기준: 연구와 적용", 『국어교육학 연구』 9, 국어 교육학회.
최경봉(1992), 「국어 관용어 연구」, 고려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최경봉(2000), "관용어의 구성형식과 의미 구조", 『한국언어문학』 45, 한국언어문학회.
최길시(1998),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교육의 실제』, 태학사.
홍민표 외(1999), 『한영 관용표현 해설사전』, 홍익미디어플러스.
후문옥(2003), 「중국인을 대상으로 한 한국어 어휘 교육」,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Diane Larsen-Freeman(2003), 방영주 역, 『*Techniques and Principles in Language Teach*』 (『외국어 교육의 교수기법과 원리』), 동인.

◎ 한국어 교재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2003), 『한국어 1』, 『한국어 2』, 『한국어 3』, 『한국어 4』, 『한국어 5』, 『한국어 6』, 성문사.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2003), 『한국어 화화 1』, 『한국어 화화 2』, 『한국어 화화3』, 『한국어 화화 4』, 『한국어 화화 5』, 『한국어 화화 6』, 성문사.

서울대학교 어학연구소(2000), 『한국어 1』, 『한국어 2』, 『한국어 3』, 『한국어 4』, 문진미디어.

선문대학교 한국어 교육원(2001), 『한국어 초급 1』, 『한국어 초급 2』, 『한국어 중급 1』, 『한국어 중급 2』, 『한국어 고급 1』, 『한국어 고급 2』, 생각하는 백성.

연세대학교 한국어학당(2003), 『한국어 1』, 『한국어 2』, 『한국어 3』, 『한국어 4』, 『한국어 5』, 『한국어 6』, 연세대학교 출판부.

이화여자대학교 언어교육원(2002), 『말이 트이는 한국어 I -Student Book』, 『말이 트이는 한국어 II -Student Book』, 『말이 트이는 한국어 III -Student Book』, 『말이 트이는 한국어 IV -Student Book』, 이화여자 대학교 출판부.

이화여자대학교 언어교육원(2002), 『말이 트이는 한국어 I -Work Book』, 『말이 트이는 한국어 II -Work Book』, 『말이 트이는 한국어 III -Work Book』, 『말이 트이는 한국어 IV -Work Book』, 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